



제 4 편 인 물

- 인물선정위원회



제 1 장

전라좌도수군절도사



성명	취임연월일	이임연월일
박거겸(朴居謙)	성종 10년(1479) 1월 10일	노환으로 이임
박양신(朴良信)	성종 10년(1479) 1월 21일	
심정원(沈貞源)	성종 12년(1481) 2월 14일	
이병정(李秉正)	성종 12년(1481) 9월 21일	
조극치(曹克治)	성종 15년(1484) 12월 27일	
변희(邊熙)	성종 15년(1484) 12월 29일	
변처녕(邊處寧)	성종 17년(1486) 11월 27일	
우현손(禹賢孫)	성종 20년(1489) 11월 20일	
박암(朴巖)	성종 20년(1489) 11월 4일	
안우건(安友養)	성종 22년(1491) 10월 4일	
이거인(李居仁)	성종 24년(1493) 10월 24일	
이양(李良)	연산군 3년(1497)	
변오천(邊伍千)	연산군 8년(1502) 4월 1일	

이종인(李宗仁)	중종 4년(1506) 4월 3일	
김세희(金世熙)	중종 11년(1516) 1월 25일	
방호의(方好義)	중종 20년(1525) 9월 22일	
이성언(李誠彦)	중종 20년(1525) 12월 12일	
백유검(白惟儉)	명종 17년(1562) 6월 17일	
성 박(成 訥)	선조 14년(1581)	선조14년(1581)
이 용(李 庸)	선조 14년(1581)	
이 경(李 璟)	선조 19년(1586) 10월 24일	
심 암(沈 巖)	선조 20년(1587) 3월 3일	선조20년(1587) 4월 처형(處刑)
이 천(李 薦)	선조 20년(1587) 6월 1일	
박 선(朴 宣)	선조 20년(1587) 7월25일	
변국간(卞國幹)	선조 20년(1587)	
이유의(李由義)	선조 24년(1591) 1월 5일	
원 균(元 均)	선조 24년(1591) 2월 4일	선조24년(1591)
유극량(劉克良)	선조 24년(1591) 2월 8일	
이순신(李舜臣)	선조 24년(1591) 2월 13일	선조30년(1597) 2월 파직(罷職)
원 균(元 均)	선조 30년(1597) 2월	동년 7월 전사(戰死)
이순신(李舜臣)	선조 30년(1597) 8월	선조31년(1598) 11월 전사(戰死)
이시언(李時言)	선조 31년(1598) 11월	선조34년(1601) 3월(통제영 옮김)
배흥립(裨興立)	선조 34년(1601) 3월	선조35년(1602) 8월
이순신(李純信)	선조 35년(1602) 9월	선조36년(1603) 1월 파직(罷職)
안 위(安 衛)	선조 36년(1603) 1월	동년9월 파직(罷職)
이응해(李應鼎)	선조 36년(1603) 11월	선조37년(1604) 친상(親喪)으로 거(去)
이정표(李廷彪)	선조 37년(1604) 4월	선조39년(1606) 1월
이규문(李奎文)	선조 39년(1606) 1월	동년(同年) 4월 파직(罷職)
이 간(李 侃)	선조 39년(1606)	선조40년(1607)
류지신(柳止信)	선조 40년(1607) 6월	선조41년(1608) 8월
조 의(趙 諱)	선조 41년(1608) 8월	광해군1년(1609) 6월
이유직(李惟直)	광해군 1년(1609) 6월	광해군3년(1611) 4월
송희립(宋希立)	광해군 3년(1611) 5월	광해군4년(1612) 파직(罷職)
이 립(李 笠)	광해군4년(1612) 5월	광해군5년(1613) 6월
신경등(申景燈)	광해군5년(1613) 7월	광해군6년(1614) 9월
박안도(朴安道)	광해군6년(1614) 9월	광해군7년(1615) 11월
이흥립(李興立)	광해군7년(1615) 11월	광해군10년(1618) 7월
안 룩(安 玘)	광해군10년(1618) 7월	광해군12년(1620) 12월
정문룡(鄭文龍)	광해군12년(1620) 12월	광해군13년(1621) 12월 서거(逝去)
이 란(李 澣)	광해군14년(1622) 8월	인조1년(1623) 부상으로 거(去)

기여헌(奇汝獻)	인조1년(1623) 5월	인조2년(1624) 7월 파직(罷職)
이 익(李 益)	인조2년(1624) 7월	동년 9월
이의배(李義培)	인조2년(1624) 9월	인조3년(1625) 9월
유몽룡(劉夢龍)	인조3년(1625) 9월	인조5년(1627) 3월 파직(罷職)
여인길(呂仁吉)	인조5년(1627) 4월	동년 5월 나거(拿去)
이경여(李慶餘)	인조6년(1628) 1월	동년 7월
황리중(黃履中)	인조6년(1628) 7월	인조 8년(1630) 7월
정봉수(鄭鳳壽)	인조8년(1630) 10월	인조 9년(1631)
송영망(宋英望)	인조9년(1631) 8월	
엄 황(嚴 桴)	인조10년(1632) 3월	인조11년(1633) 10월 파직(罷職)
백선남(白善南)	인조11년(1633) 10월	인조13년(1635) 10월
안몽윤(安夢尹)	인조13년(1635) 10월	인조15년(1637) 8월 파거(罷去)
변○○(邊○○)	인조15년(1637) 8월	인조17년(1639) 9월
이곽제(李郭齊)	인조17년(1639) 9월	
이회백(李會伯)	미상	인조21년(1643) 5월
이경안(李景顔)	인조21년(1643) 5월	인조23년(1645) 5월
민인전(閔仁全)	인조23년(1645) 5월	인조25년(1647) 1월
유찬선(劉讚先)	인조25년(1647) 1월	인조25년(1647) 7월
정 해(鄭 楷)	인조25년(1647) 10월	동월 3월 서거(逝去)
김여온(金汝溫)	인조26년(1648)	
신 유(辛 喆)	효종1년(1650)	
민인량(閔仁亮)	효종1년(1650)	
이기성(李技聲)	효종2년(1651)	
조후익(曹厚益)	효종4년(1653)	
민 선(閔 瑋)	효종5년(1654)	
신 단(申 檀)	효종6년(1655)	
이상우(李象羽)	효종8년(1657)	
민응건(閔應兼)	효종9년(1658)	
최정현(崔廷顯)	효종10년(1659) 5월	현종2년(1661) 3월
이익달(李益達)	현종 1년(1660) 12월 25일	
박 형(朴 潤)	현종2년(1661) 4월	현종3년(1662) 3월 파직(罷職)
유 정(俞 掄)	현종3년(1662)	
이도빈(李道彬)	현종5년(1664) 3월	현종7년(1666) 2월
이민발(李敏發)	현종7년(1666) 2월	동년 5월 나거(拿去)
정 영(鄭 諤)	현종7년(1666) 6월	동년 12월 나거(拿去)
류 장(柳 樞)		
이익형(李益亨)	현종7년(1666) 12월	

이시정(李時玟)	현종10년(1669) 1월	
이 간(李 幹)	현종11년(1670) 1월 13일	
김흥운(金興運)	현종11년(1670)	
원 상(元 相)	현종13년(1672) 10월	
박신주(朴新胄)	현종15년(1674) 7월 11일	
이형진(李衡鎭)	현종15년(1674) 11월	
이 ?(李 ?)	숙종2년(1676) 9월	숙종3년(1677) 12월 파직(罷職)
김세기(金世器)	숙종4년(1676) 1월	숙종5년(1679) 12월
최원립(崔元立)	숙종6년(1680) 6월	
노 전(盧 銓)	숙종7년(1681) 5월	숙종8년(1682) 9월 나거(拿去)
민 응(閔 鏞)	숙종8년(1682) 9월	
신명전(申命全)	숙종9년(1683) 6월	숙종10년(1684) 3월
구도홍(具道弘)	숙종10년(1684) 3월	동년 6월 파직(罷職)
한 근(韓 根)	숙종10년(1684) 6월	
신 유(申 誥)	숙종12년(1686) 4월	숙종13년(1687) 2월 파직(罷職)
이홍필(李弘弼)	숙종13년(1687) 2월	부임도중 전주에서 서거(逝去)
이 택(李 澤)	숙종13년(1687) 2월	
이우항(李宇恒)	숙종14년(1688) 2월	숙종15년(1689) 4월
유덕삼(柳德三)	숙종15년(1689) 4월	숙종17년(1691) 4월
홍이도(洪以度)	숙종17년(1691) 4월	동년 8월(전라병사)
홍하명(洪夏明)	숙종17년(1691) 8월	
윤 해(尹 河)	숙종18년(1692) 3월	숙종19년(1693) 4월
정동망(鄭東望)	숙종19년(1693) 4월	숙종20년(1694) 6월 파직(罷職)
박선흥(朴宣興)	숙종20년(1694) 7월	
최극태(崔克泰)	숙종21년(1695) 8월	숙종22년(1696) 6월 나거(拿去)
원덕휘(元德徽)	숙종22년(1696) 6월	숙종23년(1697) 8월
유성채(柳星彩)	숙종23년(1697) 8월	숙종25년(1699) 5월
남 헌(南 獻)	숙종25년(1699) 5월	숙종27년(1701) 3월
조이중(趙爾重)	숙종27년(1701) 3월	숙종28년(1702) 1월
이석관(李碩寬)	숙종28년(1702) 12월	동년12월 파직
채이장(蔡以章)	숙종28년(1702) 12월	숙종30년(1704) 9월
이 휘(李 暉)	숙종30년(1704) 9월	
윤우진(尹遇進)	숙종31년(1705) 10월	숙종33년(1707) 6월 파직(罷職)
윤오상(尹五商)	숙종33년(1707) 7월	숙종35년(1709) 2월
이봉상(李鳳祥)	숙종35년(1709) 3월	숙종36년(1710) 2월
이 삼(李 森)	숙종36년(1710) 2월	동년 11월 사직(辭職)
이수민(李壽敏)	숙종36년(1710) 12월	

심익진(沈益軫)	숙종38년(1712)	
민 순(閔 純)	숙종39년(1713)	숙종41년(1715) 4월 파직(罷職)
유 해(柳 濟)	숙종40년(1714) 4월	(객사 소실)
이여옥(李汝玉)	숙종41년(1715) 5월	(객사 신축:1718)
이제면(李濟冕)	숙종42년(1716) 8월	숙종46년(1720)
민제장(閔濟章)	숙종44년(1718) 8월	경종2년(1722) 4월
최 완(崔 完)	숙종46년(1720) 6월	경종4년(1724) 4월
박세정(朴世挺)	경종2년(1722) 4월	
정도원(鄭道元)	경종4년(1724) 1월 9일	영조1년(1725) 8월
민창기(閔昌基)	경종4년(1724) 4월	
유윤흥(柳胤興)	영조1년(1725) 4월 10일	영조2년(1726) 8월 파직(罷職)
원백규(元百揆)	영조1년(1725) 8월	영조3년(1727) 7월 나가(拿去)
유성일(柳星一)	영조2년(1726) 8월	영조5년(1729) 5월
허 인(許 璘)	영조3년(1727) 7월	
남태적(南泰績)	영조3년(1727) 12월 28일	
장태소(張泰紹)	영조5년(1729) 3월 7일	영조5년(1729) 8월 우수사로 이임
신명윤(申命尹)	영조5년(1729) 5월	영조6년(1730) 11월
우하형(禹夏亨)	영조5년(1729) 8월	
조 엄(趙 儼)	영조6년(1730) 8월 23일	
조호신(趙虎臣)	영조6년(1730) 8월 30일	영조8년(1732) 9월
이중익(李重翊)	영조6년(1730) 10월 28일	
이명상(李命祥)	영조8년(1732) 7월 8일	
이희하(李希夏)	영조10년(1734) 6월	
신 만(申 漫)	영조12년(1736) 8월	
홍덕망(洪德望)	영조14년(1738) 5월	
구선행(具善行)	영조16년(1740) 6월 18일	영조16년(1740) 12월 파직(罷職)
전운상(田雲祥)	영조16년(1740) 1월	영조18년(1742) 8월
조동하(趙東夏)	영조16년(1740) 12월	영조19년(1743) 2월
김 윤(金 潤)	영조18년(1742) 9월	영조20년(1744) 5월
유주기(俞青基)	영조19년(1743) 2월	영조21년(1745) 2월
안종대(安宗大)	영조20년(1744) 6월	
이 달(李 逮)	영조21년(1745) 11월	
이장오(李章吾)	영조23년(1746) 2월 19일	영조24년(1748) 윤 7월
이태상(李泰祥)	영조23년(1747) 5월 20일	영조25년(1725) 11월 서거(逝去)
남익엽(南益曄)	영조24년(1748) 윤 7월	영조26년(1750) 11월 서거(逝去)
한국필(韓國弼)	영조25년(1749) 12월	영조27년(1751) 10월
이성원(李聲遠)	영조26년(1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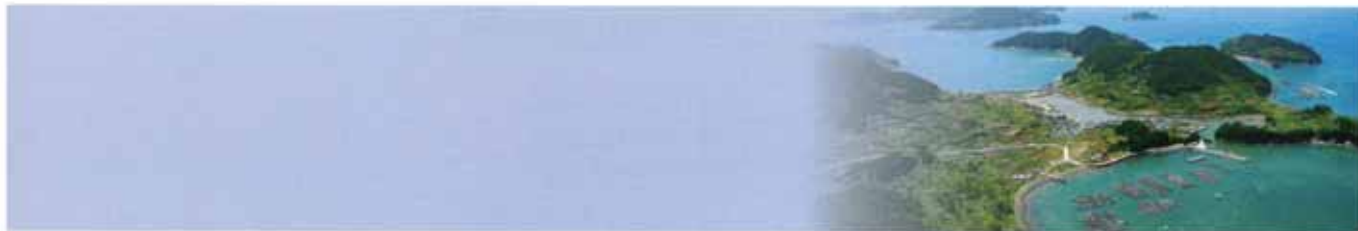
정익량(鄭益良)	영조27년(1751) 10월	영조29년(1753) 12월
박재해(朴載河)	영조29년(1753) 6월 9일	영조30년(1754) 9월 나거(拿去)
최진해(崔鎭海)	영조30년(1754) 윤4월 3일	영조31년(1755) 3월
이경설(李景說)	영조31년(1755) 8월 21일	동년 10월
이양중(李陽重)	영조31년(1755) 11월	영조32년(1756) 6월 나거(拿去)
○태연(○泰淵)	영조32년(1756) 6월	영조33년(1757) 10월
김종만(金鍾萬)	영조33년(1757) 10월	영조34년(1758) 11월
이윤덕(李潤德)	영조34년(1758) 11월	영조35년(1759) 윤6월
장지항(張志恒)	영조35년(1759) 윤5월 14일	영조36년(1760) 4월
박시좌(朴時佐)	영조36년(1760) 7월 7일	
이명운(李明運)	영조36년(1760) 7월	영조38년(1762) 4월
이경무(李敬懋)	영조38년(1762) 4월	영조39년(1763) 3월 나거(拿去)
김광백(金光白)	영조39년(1763) 1월 20일	영조41년(1765) 2월 나거(拿去)
남익상(南益祥)	영조41년(1765) 2월	영조42년(1766) 12월
이한창(李漢昌)	영조42년(1766) 12월	영조43년(1767) 7월
윤희동(尹僖東)	영조43년(1767) 7월 16일	영조45년(1769) 6월
김상옥(金相玉)	영조45년(1769) 5월 12일	
민범수(閔範洙)	영조47년(1771) 4월 3일	
조혜진(趙惠鎭)		
김영완(金永緩)	영조49년(1773) 4월	
홍화보(洪和輔)	영조51년(1775) 3월	영조52년(1776) 7월 나거(拿去)
이문덕(李文德)	영조52년(1776) 7월	정조2년(1778) 5월
유 집(柳 집)	정조2년(1778) 3월 10일	
권 식(權 弼)	정조2년(1778) 10월	동년 9월 나거(拿去)
이문혁(李文赫)	정조4년(1780) 9월 29일	정조5년(1781) 1월
이동엽(李東曄)	정조5년(1781) 1월	동년 7년(1783) 1월
강오성(姜五成)	정조5년(1781) 윤5월	정조7년(1783) 1월
손상룡(孫相龍)	정조7년(1783) 1월	정조8년(1784) 4월
이형원(李亨元)	정조8년(1784) 6월	정조9년(1785) 1월
구세적(具世勳)	정조9년(1785) 2월	정조10년(1786) 1월
허 임(許 任)	정조9년(1785) 11월 26일	정조11년(1787) 4월 파직(罷職)
이운국(李潤國)	정조11년(1787) 4월	정조13년(1789) 1월 파직(罷職)
이건수(李健秀)	정조13년(1789) 11월 22일	정조14년(1790) 12월
조 첩(趙 弼)	정조14년(1790) 12월	정조16년(1792) 2월
이은복(李殷福)	정조16년(1792) 2월	정조17년(1793) 2월 파직(罷職)
조명즙(曹命楫)	정조17년(1793) 6월	정조19년(1795) 6월
이운창(李運昌)	정조19년(1795) 6월	정조21년(1797) 5월

조 대(曹 岱)	정조21년(1797) 5월	정조23년(1799) 10월
김 선(金 璿)	정조23년(1799) 10월	순조1년(1801) 7월 서거(逝去)
이동선(李東善)	순조1년(1801) 8월	순조2년(1802) 5월 나가(拿去)
정주성(鄭周誠)	순조2년(1802) 5월	순조3년(1803) 윤2월
백동운(白東運)	순조3년(1803) 1월 9일	
이신경(李身敬)	순조3년(1803) 2월 22일	순조4년(1804) 9월
신대곤(申大坤)	순조4년(1804) 9월	순조6년(1806) 8월
유상량(柳相亮)	순조6년(1806) 7월	순조7년(1807) 9월
허 호(許 溲)	순조7년(1807) 9월	순조9년(1809) 1월
안 숙(安 楮)	순조9년(1809) 1월	순조10년(1810) 9월
이춘영(李春英)	순조10년(1810) 9월	순조12년(1812) 8월
이철구(李鐵求)	순조12년(1812) 8월	조13년(1813) 6월
이상겸(李相謙)	순조13년(1813) 6월	순조15년(1815) 7월
이유수(李儒秀)	순조15년(1815) 7월	순조17년(1817) 7월
이정회(李鼎會)	순조17년(1817) 7월	동년 12월
임성윤(任聖尹)	순조18년(1818) 1월	순조19년(1819) 2월
이형겸(李亨謙)	순조19년(1819) 2월	순조20년(1820) 11월
구신선(具信善)	순조20년(1820) 11월	순조22년(1822) 3월
이충운(李忠運)	순조22년(1822) 3월	동년 9월 파직(罷職)
이유엽(李儒燁)	순조22년(1822) 9월	순조24년(1824) 8월
이원조(李源祖)	순조23년(1823) 11월 30일	
이완식(李完植)	순조24년(1824) 8월	순조26년(1826) 1월
김노갑(金魯甲)	순조26년(1826) 1월	순조27년(1827) 5월
이행교(李行敎)	순조27년(1827) 5월	동년 7월(제주특사로)
이은빈(李閔彬)	순조27년(1827) 7월	순조29년(1829) 7월
심능준(沈能俊)	순조29년(1829) 7월	순조31년(1831) 5월
원영린(元永麟)	순조31년(1831) 5월	순조33년(1833) 3월
이유상(李儒常)	순조33년(1833) 3월	현종1년(1835) 3월
박시회(朴著會)	현종1년(1835) 2월 5일	
이희보(李熙輔)	현종1년(1835) 3월	현종2년(1836) 6월
정일영(鄭日永)	현종2년(1836) 6월	현종3년(1837) 4월
임태순(任泰淳)	현종3년(1837) 4월	현종5년(1839) 6월
구재철(具載哲)	현종5년(1839) 2월 3일	
이형재(李亨在)	현종5년(1839) 6월	현종6년(1840) 8월 서거(逝去)
이용현(李容鉉)	현종6년(1840) 9월	현종8년(1842) 7월
유신검(柳信儉)	현종8년(1842) 7월	현종10년(1844) 3월 파직(罷職)
민 석(閔 楫)	현종10년(1844) 2월 9일	

김 일(金 益)	현종10년(1844) 3월	현종11년(1845) 6월
유창근(柳昌根)	현종11년(1845) 6월	동년 11월 (충청병사로 전임)
이인희(李寅熙)	현종11년(1845) 12월	
정수기(鄭壽基)	현종13년(1847) 11월	현종14년(1848) 10월 서거(逝去)
정하응(鄭夏應)	현종14년(1848) 11월	철종1년(1850) 2월
이조연(李肇淵)	철종1년(1850) 2월	
허 섭(許 燮)	철종2년(1851) 5월	동년 11월 파직(罷職)
이민식(李民植)	철종2년(1851) 11월	철종3년(1852) 10월 파직(罷職)
유광노(柳光魯)	철종3년(1852) 11월	
유 숙(柳 淑)	철종5년(1854) 8월	철종7년(1856) 7월
원세현(元世顯)	철종7년(1856) 7월	철종8년(1857) 12월(충청병사로)
심선례(沈宣禮)	철종8년(1857) 12월	철종9년(1858) 3월 파직(罷職)
백낙신(白樂莘)	철종9년(1858) 2월 16일	철종10년(1859) 10월 파직(罷職)
이희철(李熙鐵)	철종10년(1859) 9월 21일	
홍길모(洪吉謨)	철종10년(1859) 9월 25일	철종11년(1860) 7월 파직(罷職)
이길구(李吉求)	철종11년(1860) 6월 20일	
구성희(具性喜)	철종11년(1860) 6월 25일	동년 12월 조난거(遭難去)
김선환(金善桓)	철종11년(1860) 12월	철종13년(1862) 윤8월
정인규(鄭寅奎)	철종13년(1862) 윤8월	철종14년(1863) 12월
이석영(李錫永)	철종14년(1863) 12월	고종1년(1864) 6월 파직(罷職)
이주응(李周應)	고종1년(1864) 6월	고종2년(1865) 9월 慶尙兵使로
윤선응(尹善應)	고종2년(1865) 9월	고종4년(1867) 9월
이종진(李鍾晉)	고종4년(1867) 9월	고종6년(1869) 4월 사직(辭職)
조문현(趙文顯)	고종6년(1869) 4월	고종8년(1871) 6월 (功臣)
성고수(成喬修)	고종8년(1871) 6월	고종10년(1873) 4월
이회준(李會準)	고종10년(1873) 5월	동년6월 서거(逝去)
이규호(李圭浩)	고종10년(1873) 윤6월	?
한용선(韓用善)	고종12년(1875) 6월	고종13년(1876) 6월
조존흥(趙存興)	고종13년(1876) 9월	고종15년(1878) 2월 파직(罷職)
이용익(李容益)	고종15년(1878) 2월	고종16년(1879) 3월
구연홍(具然弘)	고종16년(1879) 3월	고종18년(1881) 윤7월
윤홍대(尹弘大)	고종18년(1881) 윤7월	
이상렴(李尙濂)	고종20년(1883) 7월	동년 9월 서거(逝去)
이희갑(李熙甲)	고종21년(1884) 3월	고종23년(1886) 4월
이민승(李敏承)	고종23년(1886) 4월	동년 5월 조난사(遭難死)
이연규(李廷珪)	고종23년(1886) 8월	고종25년(1888) 4월
정학순(鄭學淳)	고종25년(1888) 4월	고종26년(1889) 2월
김동운(金東韻)	고종26년(1889) 2월	고종27년(1890) 7월
신택희(申宅熙)	고종27년(1890) 7월	고종29년(1892) 4월 (9월 去)
이봉호(李鳳鎬)	고종29년(1892) 9월	고종31년(1894) 8월
김철규(金澈圭)	고종31년(1894) 8월	고종32년(1895) 7월 廢營으로 轉去

제 2 장

전근대 인물



제1절 입향선조

■ 강계선(姜桂仙 : 조선 중기)

진주인(晋州人), 어사 사첨(御史 師瞻)의 후손으로 이중(爾重)의 아들이다. 자(字)는 성옥(聖玉)이다. 정조 때 순천에서 소라면 사곡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사곡에 살고 있다.

■ 강 원(姜 沅 : 조선 중기)

진주인, 사과 극공(司果 克恭)의 아들로 자는 일여(日汝)다. 창녕우수(昌寧 郵守)와 순천도호부사(順天都護府使)를 거쳐 병마절제사를 지냈다. 임진왜란 때 예암산에 은거하였으며 후손들이 상암동에 살고 있다.

■ 강익성(姜益成 : 조선 중기)

진주인. 은열공 민첨(殷烈公 民瞻)의 후손으로 통덕랑 승철(通德郎 昇哲)의 아들이다. 숙종 때 진주에서 화양면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화양면 세포에 살고 있다.

■ 강인영(姜仁永 : 조선 중기)

진주인. 통계 회중(通溪 淮仲)의 후손으로 문흠(文欽)의 아들이다. 자는 화경(化敬), 호는 사계(沙溪)다. 정조 때 병영(兵營)에서 광양으로 옮겨왔으며 다시 소라면 마륜으로 이주하여 후손들도 마륜에 살고 있다.

■ 강자해(姜自海 : 조선 중기)

진주인. 은열공 민섭(殷烈公 民瞻)의 후손으로 진사 영수(進士 英壽)의 아들이다. 자는 위탁(渭卓), 호는 수현(守軒)이다. 명종 때에 진주에서 상암동 진례로 이주 하여 은둔 생활을 하였으며 후손들도 진례에 살고 있다.

■ 강정열(姜廷烈 : 조선 중기)

진주인. 금재 한(琴齋 漢)의 후손으로 통정 선호(通政 善昊)의 아들이다. 자는 운서(雲瑞), 호는 해은(海隱)이다. 영조 때 함양에서 울촌면 봉전으로 이주 하였으며 후손들이 여수, 광양, 순천 등지에 살고 있다.

■ 강칠봉(姜七鳳 : 조선 중기)

진주인. 부사 연(府使 璉)의 7대손으로 자는 화익(化益)이다. 효종 때 진주에서 여수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은 화양면 이천에서 살고 있다.

■ 고추겸(高秋謙 : 조선 중기)

제주인(濟州人). 문산 효시(文山 效柴)의 후손으로 만유(萬有)의 아들이다. 자는 추룡(秋龍)이다. 영조 때 구례에서 여수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여수에서 살고 있다.

■ 곽영수(郭永壽 : 조선 중기)

현풍인(玄風人). 노재 도(魯齋 都)의 후손으로 득남(得男)의 아들이다. 자는 영준(永俊), 호는 야은(野隱)이다. 인조 때 임실에서 만흥동으로 이주하였으

며 후손들은 만흥동과 돌산 등지에 살고 있다.

■ 곽필흥(郭弼興 : 조선 중기)

현풍인, 노재 도(魯齋 都)의 후손으로 가선 태문(嘉善 台文)의 아들이다. 자는 호정(虎亭)이다. 종3품인 선략장군(宣略將軍)을 지냈다. 숙종 때 고흥에서 여수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은 둔덕동에 살고 있다.

■ 김 검(金 儉 : 조선 중기)

김녕인(金寧人), 돈녕 준(敦寧 遵)의 후손으로 일담(日聃)의 아들이다. 자는 화이(和爾)다.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여 정5품인 정랑(正郎)을 지냈다. 임진왜란 때 순천시 하사동에서 화양면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은 화양면 서촌에 살고 있다.

■ 김계선(金啓先 : 조선 중기)

김해인(金海人), 절효공 극일(節孝公 克一)의 후손으로 자는 성복(性福), 호는 망호향(望湖亭)이다. 정3품인 통훈대부(通訓大夫)를 지냈다. 명종 무오사화(戊午士禍) 때 청도(淸道)에서 삼일면 묘도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묘도에 살고 있다.

■ 김광옥(金光玉 : 조선 중기)

김녕인, 돈녕 준(敦寧 遵)의 후손으로 주서(周瑞)의 아들이다. 자는 이옥(而玉), 호는 죽은(竹隱)으로 통훈(通訓) 품계까지 올랐다. 선조 때 고흥에서 웅천동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웅천동에 살고 있다.

■ 김광추(金光秋 : 조선 중기)

김해인, 축은 방려(築隱 方礪)의 후손으로 운(運)의 아들이다. 자는 문언(文彦), 호는 지산(芝山)이다. 영조 때 통훈(通訓)의 품계까지 올랐다. 보성에서 만흥동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만흥동에 살고 있다.

■ 김금장(金今章 : 조선 중기)

김해인, 절효공 극일(節孝公 克一)의 후손으로 호는 일민(逸民)이다. 이의(吏議)의 관직을 지내다가 신축사화(辛丑士禍) 때 화양면으로 이주하여 은거

했다. 후손들이 화양면 원포에 살고 있다.

■ 김급(金汲 : 조선 중기)

김해인. 문민공 일손(文愍公 駟孫)의 후손으로 선경(善慶)의 아들이다. 자는 인문(仁汶), 호는 삼호당(三好堂)이다. 가선(嘉善)의 관직을 지내다가 인조 때 경주에서 적량동에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묘도동, 화양면 화동에 분거하여 살고 있다.

■ 김담(金淡 : 조선 중기)

경주인. 상촌 자수(桑村 自粹)의 후손으로 우곤(遇坤)의 아들이다. 자는 원거(元擧), 호는 퇴은(退隱)이다. 숙종 때 보성에서 소라면 사곡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사곡에 살고 있다.

■ 김덕조(金德兆 : 조선 중기)

광산인(光山人). 좌상 국광(左相 國光)의 후손으로 수인(守仁)의 아들이다. 호는 일재(逸齋)이다. 현종 때 참판을 지냈다. 경기에서 소라면 현천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화양면 장동에 살고 있다.

■ 김두상(金斗祥 : 조선 중기)

김해인. 양의공 응서(襄毅公 應瑞)의 후손으로 자는 군호(君豪)이며 가선(嘉善)의 관직에 이르렀다. 인조 때 평안 용강(平安 龍岡)에서 소라면 달천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달천에 살고 있다.

■ 김득기(金得淇 : 조선 중기)

수원인(水原人). 참판 기종(參判 起宗)의 증손(曾孫)으로 생원 세춘(生員 世春)의 아들이다. 삼척영장(三陟營將), 진해군수(鎭海郡守)를 지냈다. 숙종 때 수원에서 미평동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미평동, 삼일동, 낙포 등지에 분거하여 살고 있다.

■ 김만승(金萬升 : 조선 중기)

김녕인. 충의공 문기(忠毅公 文起)의 후손이다. 정조 때 경성에서 화양면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화양면 안정에 살고 있다.

■ 김명운(金命韻 : 조선 중기)

광산인(光山人). 좌의정 국광(國光)의 후손으로 부호군 대유(副護軍 大有)의 아들이다. 자는 화숙(和叔), 호는 죽암(竹庵)이다. 선조 때에 연산에서 여수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소라면 봉두에 살고 있다.

■ 김몽팔(金夢八 : 조선 중기)

김해인. 감무공 익경(監務公 益卿)의 후손으로 사행(思行)의 아들이다. 자는 규옥(珪玉)이다. 가선(嘉善)과 중추부사(中樞府事)의 벼슬을 지냈다. 숙종 때 영암에서 소라면 장척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장척에 살고 있다.

■ 김상려(金尙麗 : 조선 중기)

김해인. 학성군 완(鶴城君 完)의 후손으로 광일(光一)의 아들이다. 자는 계지(啓之)이다. 숙종 때 영암에서 달천도(達川島)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소라면 달천에 살고 있다.

■ 김상언(金尙彦 : 조선 중기)

김해인. 축은 방려(築隱 方礪)의 후손(後孫)으로 화섭(華燮)의 아들이다. 자는 사언(士彦), 호는 성재(省齋)이다. 정조 때 보성에서 소라면 사곡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사곡에 살고 있다.

■ 김서강(金瑞剛 : 조선 중기)

김녕인. 백촌 문기(白村 文起)의 후손으로 수복(壽福)의 아들이다. 통훈(通訓)의 자리에 올랐다. 임진왜란 때 충청도에서 여수로 피신해 왔으며 후손들이 화양면 서촌에 살고 있다.

■ 김성태(金聲泰 : 조선 중기)

김해인. 일손(駟孫)의 후손으로 양(漾)의 아들이다. 자는 문여(文汝)이다. 숙종 때 청도에서 남원으로, 남원에서 잠시 기거하다가 다시 여수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여수에 살고 있다.

■ 김시철(金時哲 : 조선 중기)

김녕인. 백촌 문기(白村 文起)의 후손으로 현감 난(蘭)의 아들이다. 자는 시

중(時中)이다. 숙종 때 하동에서 여수로 옮겨와 살았으며 종2품의 동돈녕(同敦寧)의 벼슬을 지냈다. 후손들이 소라면 가산, 상암동 당내, 여서동 등지에 살고 있다.

■ 김시택(金始宅 : 조선 중기)

김녕인. 영돈녕 준(領敦寧 遵)의 후손으로 기성(器成)의 아들이다. 자는 치안(致安), 호는 효우당(孝友堂)이다. 가선(嘉善)과 정2품의 한성부 판윤을 역임했다. 영조 때 고흥에서 화양면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화양면 안양에 살고 있다.

■ 김언립(金彦立 : 조선 중기)

김해인. 학성군 완(鶴城君 完)의 후손으로 세명의 아들이다. 자는 평일(平日), 호는 백암(白岩)이다. 절충장군을 지냈다. 영조 때 영암에서 소라 궁항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소라면, 울촌면, 돌산면 등지에 살고 있다.

■ 김여필(金麗弼 : 조선 중기)

김해인. 절효공 극일(節孝公 克一)의 후손으로 중안(重安)의 아들이다. 자는 군의(君義), 호는 청파(晴坡)이다. 통덕랑(通德郎)을 지냈다. 숙종 때 순천에서 만흥동 천성산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만흥동에 살고 있다.

■ 김연중(金挺重 : 조선 중기)

김해인. 문민공 일손(文愍公 翼孫)의 후손으로 광장(光章)의 아들이다. 자는 성수(聖叟), 호는 둔암(遯庵)이다. 숙종 때 고성에서 쌍봉 소재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소호동에 살고 있다.

■ 김용갑(金龍甲 : 조선 중기)

김녕인. 분성군 응수(盆城君 應壽)의 후손으로 만안(萬安)의 아들이다. 자는 태초(太初)다. 정조 때 영남에서 화양면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화양면 세포에 살고 있다.

■ 김윤강(金允康 : 조선 중기)

경주인. 수은 충한(樹隱 沖漢)의 후손으로 참봉 지(智)의 아들이다. 생원을

지냈다. 명종 때 남원 두동에서 소라면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신덕동, 호명동, 돌산읍 등지에 살고 있다.

■ 김은재(金銀載 : 조선 중기)

김해인. 태령(泰齡)의 아들로 자는 의현(義賢), 호는 서산(西山)이며 참봉(參奉)을 지냈다. 고려 말 충남에서 여수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상암동, 화양면 옥적 등지에 살고 있다.

■ 김응달(金應達 : 조선 중기)

김녕인. 둔녕 준(敦寧 遵)의 후손으로 부사 언공(府使 彦恭)의 아들이다. 선조 때 고흥에서 월내동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학동에 살고 있다.

■ 김응운(金應韻 : 조선 중기)

김해인. 축은 방려(築隱 方礪)의 후손으로 진사 선(銑)의 아들이다. 자는 의지(義之), 호는 학남(鶴南)이다. 가선(嘉善)을 지냈고 인조 때 보성에서 쌍봉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학동에 살고 있다.

■ 김일(金鎰 : 조선 중기)

광산인(光山人). 문정공 태현(光山人 文正公 台鉉)의 후손으로 동주 덕구(東洲 德垢)의 아들이다. 자는 태숙(台淑), 호는 해은(海隱)이다. 제용감(濟用監) 참봉을 지냈고 숙종 때 광주에서 여수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소라면 관기와 울촌면 구암 등지에 살고 있다.

■ 김재남(金在 南 : 조선 중기)

김해인. 흥무왕 유신(興武王 庾信)의 후손으로 충익공 치모(忠翼公 致慕)의 아들이다. 자는 정오(正午), 호는 송암(松菴)이다. 선조 때 김해에서 오천동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오천동에 살고 있다.

■ 김정장(金鼎章 : 조선 중기)

김해인. 한림 용(翰林 勇)의 후손으로 성원의 아들이다. 자는 자현(自賢), 호는 남은(南隱)이다. 통정(通政)에 증직되었고 효종 때 순천에서 소라면 대포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대포에 살고 있다.

■ 김지(金地 : 조선 중기)

김해인. 절효공 극일(節孝公 克一)의 후손으로 성명(聖明)의 아들이다. 자는 덕세(德世)다. 임진왜란 때 영남에서 화양면 이목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이목에 살고 있다.

■ 김창세(金昌世 : 조선 중기)

김해인. 탁영 일손(濯纓 駟孫)의 후손으로 여명(麗命)의 아들이다. 자는 덕원(德元). 호는 송파(松坡)다. 정조 때 곡성에서 소라면 복촌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소라면, 화양면 등지에 살고 있다.

■ 김철휘(金喆輝 : 조선 중기)

경주인. 수운충한(樹隱沖漢)의 후손으로 오익(五益)의 아들이다. 자는 중선(重善). 호는 사촌(沙村)이다. 현종 때 남원에서 여수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화양면 장척에 살고 있다.

■ 김침(金僉 : 조선 중기)

경주인(慶州人). 상촌 자수(桑村 自粹)의 후손으로 두인(斗鉤)의 아들이다. 자는 명운(明允)이다. 선조 때 충청도에서 여수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웅천동, 문수동 등지에 살고 있다.

■ 김춘산(金春山 : 조선 중기)

김해인. 김녕군 목경(金寧君 牧卿)의 후손으로 자는 세상(世章). 호는 춘파(春坡)이다. 중추(中樞)의 벼슬을 지냈고, 임란 때 충청 회덕에서 소라면 의곡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여수, 돌산, 광주 등지에 살고 있다.

■ 김치성(金致聲 : 조선 중기)

김해인. 절효공 극일(節孝公 克一)의 후손으로 별장(別將)을 지낸 응원(應遠)의 아들이다. 자는 광숙(光淑)이다. 임진왜란 때 창원에서 여수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오림동에 살고 있다.

■ 김치하(金致廈 : 조선 중기)

광산인. 문숙공 주정(文肅公 周鼎)의 후손으로 찰방 진기(察訪 晉器)의 아

들이다. 자는 영균(永均)이다. 현종 조에 충남에서 장흥으로, 다시 장흥에서 월내동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학동에 살고 있다.

■ 김태순(金息淳 : 조선 중기)

김해인, 송정 경추(松汀 景秋)의 6대손으로 봉재(鳳載)의 아들이다. 자는 현백(玄伯), 호는 봉정(鳳汀)이다. 숙종 때 보성에서 율촌면 봉정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봉정에 살고 있다.

■ 김태한(金兌澣 : 조선 중기)

김해인, 감무 익경(監務 益卿)의 후손으로 시익(時益)의 아들이다. 자는 문중(文重), 호는 청계(淸溪)다. 숙종 때 김해에서 여수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율촌면 내리에 살고 있다.

■ 김후승(金厚承 : 조선 중기)

김해인, 축은 방려(築隱 方礪)의 후손으로 홍립(弘立)의 아들이다. 자는 성삼(聖三), 호는 성재(省齋)이다. 숙종 때 보성에서 쌍봉 시목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시전동에 살고 있다.

■ 김흠(金欽 : 조선 중기)

경주인, 세필(世弼)의 후손으로 중경(重慶)의 아들이다. 자는 의홍(義洪), 호는 운학(雲鶴)이다. 진사를 지냈고, 선조 때 충주에서 화양면 마상동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화양면, 남면, 순천, 고흥 등지에 살고 있다.

■ 남기(南琦 : 조선 중기)

의령인(宜寧人), 충경공 재(忠景公 在)의 후손으로 우석의 아들이다. 사후에 통정이의 관직에 올랐다. 인조 때 장흥에서 여수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오림동, 소라면 죽림 등지에 살고 있다.

■ 문두재(文斗載 : 조선 중기)

남평인(南平人), 강성군 익점(江城君 益漸)의 후손으로 성채(星采)의 아들이다. 자는 극단(極端), 호는 송천(松川)이다. 가선(嘉善)을 지냈고, 숙종 때 강진에서 화양면 이천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이천에 살고 있다.

■ 문시백(文時伯 : 조선 중기)

남평인. 강성군 분점(江城君 盆漸)의 후손으로 필립(必立)의 아들이다. 자는 신보(信甫), 호는 사포(沙浦)다. 숙종 때 장흥에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화양면 백초, 소라면 현천 등지에 살고 있다.

■ 문응지(文應祉 : 조선 중기)

남평인. 충선공 익점(忠宣公 益漸)의 후손으로 부사 복(府使 福)의 아들이다. 호는 남은(南隱)이다.

병절교위(秉節校尉)를 지냈고, 임진왜란 때 보성에서 웅천동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웅천동에 살고 있다.

■ 민인준(閔仁俊 : 조선 중기)

여흥인(驪興人). 유수 심언(留守 審言)의 후손으로 사정(思程)의 아들이다. 자는 백수(伯秀)다. 선조 때 개성에서 적량동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학동에 살고 있다.

■ 박동빈(朴東彬 : 조선 중기)

상주인(尙州人). 판서 안예(判書 安禮)의 후손으로 시석(時碩)의 아들이다. 자는 대범(大範), 호는 청은(淸隱)이다. 대사간을 지냈다.

숙종 조에 광양에서 율촌면 행정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율촌면 행정에 살고 있다.

■ 박동웅(朴東雄 : 조선 중기)

밀양인(密陽人). 공간공 건(恭簡公 健)의 후손으로 자는 운숙(雲淑), 호는 남립(南立)이다. 임진왜란 때 경남 하동에서 화양면 옥적리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옥적에 살고 있다.

■ 박득환(朴得煥 : 조선 중기)

밀양인. 요정공 현(料正公 鉉)의 후손으로 종양(宗陽)의 아들이다. 자는 흥여(興汝)다. 군자감에서 벼슬을 지냈고 통훈(通訓)의 품계에 이르렀다.

임진왜란 때 경북 목천에서 화양면 이목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여수, 광양 등지에 살고 있다.

■ 박만칠(朴萬七 : 조선 중기)

진원인(珍原人). 문강공 광전(文康公 光前)의 후손으로, 진사 춘장의 손자이며 세형(世亨)의 아들이다.

자는 사원(士源), 호는 구암(龜岩)으로 효종 때 보성에서 율촌면 내리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율촌면 신대, 연화, 조화리 등지에 살고 있다.

■ 박사례(朴思禮 : 조선 중기)

상주인. 남포공 대봉(南浦公 大鵬)의 후손으로 장춘(長春)의 아들이다. 자는 화포(和浦)다. 종사랑(從仕郎)을 지냈다.

영조 때 순천에서 소라면 달천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달천 및 순천시 상사면 등지에 살고 있다.

■ 박안인(朴安仁 : 조선 중기)

밀양인. 요정공 현(料正公 鉉)의 후손으로 진사 응현(應賢)의 아들이다. 자는 이인(以仁), 호는 국현(菊軒)이다.

통정(通政)의 품계(品階)까지 올랐고, 선조 때 고양에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율촌면 반월에 살고 있다.

■ 박언수(朴彦秀 : 조선 중기)

밀양인. 공간공 건(恭簡公 健)의 후손으로 자는 성삼(成三)이다. 현종 때 무과에 급제하여 종6품의 훈련원주부(訓練院主簿)를 지냈다. 현종 때 쌍봉면 사벽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쌍봉과 돌산 등지에 살고 있다.

■ 박자운(朴自雲 : 조선 중기)

밀양인. 낙촌 충원(駱村 忠元)의 후손으로 주부 승진(主簿 承鎭)의 아들이다. 자는 춘경(春卿)이다. 인조 때 순천에서 여수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삼일동에 살고 있다.

■ 박준현(朴俊賢 : 조선 중기)

밀양인. 밀평 부원군 난(密平 府院君 蘭)의 후손으로 인원(仁元)의 아들이다. 자는 윤경(允卿), 호는 정재(靜齋)다. 선조 때 사마(司馬)의 벼슬을 지내다가 고양에서 율촌면 봉전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봉전에 살고 있다.

■ 박지정(朴之廷 : 조선 중기)

밀양인. 공간공 건(恭簡公 健)의 후손으로 예사(禮思)의 아들이다. 정2품의 자헌(資憲)에 올랐다. 인조 때 승주에서 율촌면 삼산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율촌면에 살고 있다.

■ 박진현(朴振賢 : 조선 중기)

밀양인. 요정공 현(料正公 鉉)의 후손으로 전한 인원(典翰 仁元)의 아들이다. 자는 진남(振南), 호는 송정(松亭)이다. 선조 입신에 경기도 고양군에서 화양면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화양면 옥적에 살고 있다.

■ 박찬규(朴燦圭 : 조선 중기)

밀성인(密城人). 밀성대군 척(密城大君 陟)의 후손으로 사마 시영(司馬 時榮)의 아들이다. 자는 문백(文伯), 호는 청현(淸軒)이다. 효종 조에 나주에서 낙포동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학동에 살고 있다.

■ 박춘렬(朴春烈 : 조선 중기)

상주인. 남포 대봉(南浦 大鵬)의 후손으로 통정 동보(通政 東輔)의 아들이다. 자(字)는 명약(明若)이다. 가선(嘉善)을 지냈고, 영조 때 순천에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문수동에 살고 있다.

■ 배세국(裵世國 : 조선 중기)

성주인(星州人). 무열공 현경(武烈公 玄慶)의 후손으로 송암 영담(松菴 齡聊)의 아들이다. 자는 국보(國甫)다. 선무(宣武) 2등 공신으로 알려져 있다. 선조 때 순천에서 월내동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학동에 살고 있다.

■ 백문익(白文益 : 조선 중기)

수원인(水原人). 정해군 수장(貞海君 壽長)의 후손으로 자는 남표(南杓), 호는 석담(石潭)이다. 부사(府使)를 하였으며, 임란에 왜군을 토벌하는데 공을 세웠다. 장흥에서 화양면 옥적리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화양면 옥적에 살고 있다.

■ 백이복(白而復 : 조선 중기)

수원인. 정해군 수장(貞海君 壽長)의 후손으로 주부 호(主簿 瑚)의 아들이

다. 호는 응찬(應贊)이다. 통정(通政)에 증직되었고, 현종 때 장흥에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울촌면 연소에 살고 있다.

■ 서명선(徐命善 : 조선 중기)

달성인(達城人), 약봉 성(藥峯 滄)의 후손으로 종관(宗觀)의 아들이다. 자는 창선(昌宣), 호는 해은(海隱)이다. 영조 때 순천에서 소라면 북촌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북촌에 살고 있다

■ 서사룡(徐思龍 : 조선 중기)

달성인, 판도공 진(版圖公 晉)의 후손으로 첨지중추 함(僉知中樞 涵)의 아들이다. 자는 재원(在源), 호는 호은(湖隱)이다. 인조반정 때 대구에서 상암동 진례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진례에 살고 있다.

■ 서산문(徐山汶 : 조선 중기)

이천인(利川人), 아천 신일(阿千 神逸)의 후손으로 대사성 혼(大司成 混)의 아들이다. 자는 중기(重器), 호는 암연정(岩淵亭)이다. 진사와 절충장군을 지냈고, 선조 때 능주에서 여수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화장동에 살고 있다.

■ 서세남(徐世南 : 조선 중기)

달성인, 판서 섭(判書 涉)의 후손으로 충기(忠基)의 아들이다. 자는 내임(乃任)이다.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올랐고, 인조 때 대구에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여수시내와 삼일동 일대에 살고 있다.

■ 서윤오(徐潤五 : 조선 중기)

달성인, 판서 섭(判書 涉)의 후손으로 충기(忠基)의 아들이다. 자는 치운(致允)이다. 인조 때 형 세남(世南)과 함께 대구에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화양면 창무에 살고 있다.

■ 서음(徐峯 : 조선 중기)

이천인, 문익공 강(文翼公 岡)의 후손(玄孫)으로 판윤 상(判尹 詳)의 아들이다. 자는 익지(益之)다. 주부(主簿)의 벼슬을 지냈고, 선조 때 화순에서 시전동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시전동에 살고 있다.

■ 서의상(徐儀尙 : 조선 중기)

달성인. 구계 심(龜溪 沈)의 후손으로 신감(信鑑)의 아들이다. 자는 광부(光復), 호는 가장(佳藏)이다. 효종 때 대구에서 화장동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화장동과 소라면 죽림 등지에 살고 있다.

■ 서익성(徐翊省 : 조선 중기)

달성인. 낙재 사원(樂齋 思遠)의 현손으로 정(程)의 아들이다. 자는 사연(士宴), 호는 국포(菊圃)다. 효종 때 대구에서 울촌면 조화리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조화리에 살고 있다.

■ 서필문(徐必文 : 조선 중기)

이천인. 아간 신일(阿干 神逸)의 후손으로 수장(壽章)의 아들이다. 자는 경오(敬午), 호는 송천(松川)이다. 영조 때 능주에서 울촌면 구암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구암에 살고 있다.

■ 서하남(徐厦南 : 조선 중기)

이천인. 양경공 유(良景公 愈)의 후손으로 목사(牧使) 대웅의 아들이다. 자는 호은(浩殷)이다. 선조 때 순천에서 여수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오림동에 살고 있다.

■ 서후기(徐後耆 : 조선 중기)

달성인. 정평공(貞平公) 구형(鉤衡)의 후손으로 정랑(正郎) 계립(繼立)의 아들이다. 자는 영년(永年), 호는 추담(秋潭)이다. 중추원에서 임금을 오래 모셨고, 여수로 이주하여 후손들이 용천동과 시전동 등지에 살고 있다.

■ 성취백(成就伯 : 조선 중기)

창녕인(昌寧人). 동고 준득(東阜 准得)의 후손으로 철해(哲諧)의 아들이다. 자는 영박(榮博)이다. 현종 때 창녕에서 소라면 조산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소라면 조산과 부산 등지에 살고 있다.

■ 손상(孫湘 : 조선 중기)

밀양인. 판서 공광(判書 公光)의 후손으로 경수(景守)의 아들이다. 임진왜란

때 진주에서 화양면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화양면 화동리에 살고 있다.

■ 손연(孫璉 : 조선 중기)

밀양인. 오곡 수영(梧谷 壽齡)의 후손으로 훈련원주부 중춘(訓練院主簿 仲春)의 아들이다. 훈련원(訓練院)에서 벼슬을 했다. 현종 때 진주에서 여수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울촌면에 살고 있다.

■ 송길로(宋吉老 : 조선 중기)

은진인(恩津人). 동춘당 준길(同春堂 浚吉)의 후손으로 의희(義熙)의 아들이다. 자는 문거(文巨), 호는 화암(華庵)이다. 영조 때 광양에서 여수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화양면 이천에 살고 있다.

■ 신헌(申榘 : 조선 중기)

고령인(高靈人). 문충공 숙주(文忠公 叔舟)의 후손으로 감목 경심(監牧 景沈)의 아들이다. 자는 자문(子文), 호는 월암(月岩)이다. 현종 때 청주에서 쌍봉 해산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해산동에 살고 있다.

■ 심응해(沈應海 : 조선 중기)

청송인(靑松人). 청성원 덕부(靑城員 德符)의 후손으로 사수(嗣洙)의 아들이다. 통정(通政)을 지냈다. 임진왜란 때 보성에서 화양면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화양면과 둔덕동 등지에 살고 있다.

■ 심현(沈峴 : 조선 중기)

청송인(靑松人). 영의정 온(溫)의 후손으로 호(號)는 송곡(松谷)이다.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참의(吏曹參議)의 자리에 올랐다. 숙종 때 경성에서 쌍봉 기전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신기동에 살고 있다.

■ 양성호(梁聖浩 : 조선 중기)

남원인(南原人). 대사간 사귀(大司諫 思貴)의 후손으로 통정 덕명(通政 德明)의 아들이다. 자는 윤범(允範)이다. 영조 때 진주에서 삼일면 낙포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여수에 살고 있다.

■ 양하용(梁河容 : 조선 중기)

제주인(濟州人). 사복사 정담(司僕寺 正澗)의 후손으로 병사 산숙(兵使 山淑)의 아들이다. 임진왜란 때 진주에서 여수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둔덕동에 살고 있다.

■ 엄신(嚴紳 : 조선 중기)

영월인(寧越人). 승지 덕록(承旨 德祿)의 후손으로 한로(漢老)의 아들이다. 자는 행선(行善). 호는 호정(湖亭)이다. 숙종 때 광주에서 여수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화양면 용주에 살고 있다.

■ 오승주(吳承周 : 조선 중기)

해주인. 완월당 응정(海州人 翫月堂 應鼎)의 후손으로 계창(季昌)의 아들이다. 자는 내한(來翰). 호는 근재(謹齋)다.

경종 때 용안에서 울촌면 후산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울촌면 후산과 광양 기두 등지에 살고 있다.

■ 오시창(吳時昌 : 조선 중기)

해주인(海州人). 완월당 응정(翫月堂 應鼎)의 증손으로 방언(邦彦)의 아들이다. 자는 희로(希老). 호는 청은(淸隱)이다. 충무위 부사정(忠武衛 副司正)을 지냈다.

효종 때 용안(龍安)에서 소라면 마산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소라면 마산, 돌산, 고흥, 광양, 순천 등지에 살고 있다.

■ 위효징(魏孝徵 : 조선 중기)

장흥인(長興人). 충렬공 계정(忠烈公 繼廷)의 후손으로 관관 대경(判官 大經)의 아들이다. 자는 무정(武亭). 호는 남은(南隱)이다. 선조 때 장흥에서 울촌면 봉두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봉두에 살고 있다.

■ 유섭(俞燮 : 조선 중기)

기계인(杞溪人). 경안공 여림(景安公 汝霖)의 후손으로 진사 질(軼)의 아들이다. 임진왜란 당시의 전공으로 병조판서의 자리에 올랐다. 경기도에서 순천으로, 순천에서 여수로 이주하여 후손들이 여수에 살고 있다.

■ 유세리(劉世履 : 조선 중기)

강릉인(江陵人). 문희공 창(文僖公 敞)의 후손으로 진사 용하(用何)의 아들이다. 자는 인현(仁賢), 호는 송림(松林)이다. 중종 때 사화(士禍)를 피하여 울춘면 산수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울춘면 산곡에 살고 있다.

■ 류철신(柳哲臣 : 조선 중기)

문화인(文化人). 청계 몽정(淸溪 夢井)의 현손으로 첨정 정(楨)의 아들이다. 자는 신경(信卿), 호는 둔암(遯庵)이다. 호조참의(戶曹參議)를 지냈고, 효종 때 나누에서 울춘면 평촌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울춘면과 순천 별량면 등지에 살고 있다.

■ 윤경인(尹敬仁 : 조선 중기)

파평인(坡平人). 소정공 곤(邵靖公 坤)의 후손으로 성고(誠考)의 아들이다. 숙종 때 순천에서 화양면 용주리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용주리에 살고 있다.

■ 윤명우(尹明祐 : 조선 중기)

파평인. 태사공 신달(太史公 莘達)의 후손으로 연경(延卿)의 아들이다. 자는 진석(振碩)이다.

숙종 때 경기 포천에서 여수 오천동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오천동에 살고 있다.

■ 윤창이(尹昌嵩 : 조선 중기)

파평인. 영상 필상(領相 弼商)의 후손으로 승지 평(承旨 珩)의 아들이다. 자는 휘길(輝吉), 호는 송파(松坡)다. 문과에 급제하여 군수를 지냈다. 현종 때 경기 고양에서 삼일동 평어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삼일동과 화양면 등지에 살고 있다.

■ 이경서(李慶瑞 : 조선 중기)

경주인. 병조판서 석(兵曹判書 碩)의 후손으로 월곤 운성(月谷 雲城)의 아들이다. 자는 경화(敬和), 호는 송곡(松谷)이다. 인종 조에 나누에서 적량동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여수에 살고 있다.

■ 이동고(李東考 : 조선 중기)

광주인(廣州人). 둔촌 집(遁村 集)의 후손으로 참봉 인상(麟祥)의 아들이다. 창릉 참봉(昌陵 參奉)을 지냈다. 효종 때 경기도 광주(廣州)에서 소라면 풍류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풍류에 살고 있다.

■ 이명민(李命敏 : 조선 중기)

전주인(全州人). 익안대군 방의(益安大君 芳毅)의 후손으로 자헌 분(資憲 賁)의 아들이다. 자는 예경(禮慶), 호는 필재(必齋)이다. 숙종 때 양주에서 신월동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쌍봉동 등지에 살고 있다.

■ 이상하(李相夏 : 조선 중기)

전주인. 덕흥 대원군 초(德興 大院君 岾)의 후손으로 태망(泰望)의 아들이다. 효종 때 광주에서 여수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소라면 대포에 살고 있다.

■ 이성우(李聖愚 : 조선 중기)

전주인. 효령대군 보(孝寧大君 補)의 후손으로 문제(文載)의 아들이다. 영조 때 완산(完山)에서 여수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소라면 조산에 살고 있다.

■ 이원인(李元仁 : 조선 중기)

전주인. 양녕대군 제(禔)의 후손으로 어모장군 유(禦侮將軍 瑜)의 아들이다. 자는 매현(梅軒), 호는 춘포(春圃)다. 담양에서 율촌 삼산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삼산에 살고 있다.

■ 이재진(李載震 : 조선 중기)

전주인. 광평대군 여(廣平大君 瑀)의 후손으로 천우(天佑)의 아들이다. 자는 인현(仁賢), 호는 송림(松林)이다.

영조 때 경기도 광주(廣州)에서 여수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율촌면 취적에 살고 있다.

■ 이지성(李枝盛 : 조선 중기)

함평인(咸平人). 함풍군 언(咸 君 彦)의 후손으로 승민(承閔)의 아들이다.

자는 창익(昌益). 호는 금곡(琴谷)이다. 현종 때 순천에서 여수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여수에 살고 있다.

■ 이징(李澄 : 조선 중기)

전주인. 성녕대군(誠寧大君)의 후손으로 존신(存信)의 아들이다. 자는 천수(天秀), 호는 남호(南湖)다. 현감을 지냈으며 임란 때 남하하여 순천에 살다가 화양면 이천리로 이주하였다. 후손들이 여수 시내, 화양면 이천리, 상암동 호명, 순천 등지에 살고 있다.

■ 이호(李浩 : 조선 중기)

경주인. 정순공 성중(靖順公 誠中)의 후손으로 호(號)는 송은(松隱)이다. 조상 덕에 참봉벼슬을 부여받았으나 광해정변(1608) 때 벼슬을 버리고 남하하여 화양면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화양면 용주리에 살고 있다.

■ 이희부(李希富 : 조선 중기)

전주인. 양도공 천우(襄度公 天佑)의 후손으로 교위(校尉) 세훈의 아들이다. 가선(嘉善),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를 지냈다. 광해정변(1608) 때 담양에서 둔덕동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여수, 순천 등지에 살고 있다.

■ 임기(林棋 : 조선 중기)

나주인(羅州人). 정자공 복(正字公 復)의 후손으로 원호(源浩)의 아들이다. 자는 기철(棋喆)이다. 자손들은 화정면 백야리에 살고 있다.

■ 임토(林堧 : 조선 중기)

나주인 정자공 부(羅州人 正字公 復)의 후손으로 목(沐)의 아들이다. 자는 자화(子化)다. 정조 때 나주에서 소라면 복촌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복촌에 살고 있다.

■ 임훈(林煥 : 조선 중기)

나주인. 백호(白湖) 제(梯)의 현손(玄孫)으로 부사 옥(府使 燧)의 아들이다. 자는 상진(尙進), 호는 남은(南隱)이다. 숙종 때 나주에서 쌍봉 무선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쌍봉지역과 화양면 등지에 살고 있다.

■ 장만홍(張萬弘 : 조선 중기)

인동인(仁同人), 월포 현도(月浦 顯道)의 후손으로 묘(鎬)의 아들이다. 호는 회암(梅菴)이다. 인조 때 인동에서 소라면 궁항리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소라면과 순천 등지에 살고 있다.

■ 장영손(張靈遜 : 조선 중기)

인동인(仁同人), 충정공 안세(忠貞公 安世)의 후손으로 계임(繼任)의 아들이다. 자는 사척(士則), 호는 인산(仁山)이다. 임진왜란 때 인동에서 여수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화양면, 삼일면, 오천동, 여수 시내 등지에 살고 있다.

■ 장윤하(張胤河 : 조선 중기)

인동인, 문강공 현광(仁同人 文康公 顯光)의 후손으로 수승(壽承)의 아들이다. 자는 치하(致河), 호는 덕현(德軒)이다. 영조 때 순천에서 소라면 북촌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여수, 순천 등지에 살고 있다.

■ 전계의(全啓儀 : 조선 중기)

천안인(天安人), 가재 동흙(嘉齋 東屹)의 후손으로 상만의 아들이다. 자는 인호(仁浩), 호는 울담(栗潭)이다. 숙종 때 보성에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화양면 이목에 살고 있다.

■ 전식(全湜 : 조선 중기)

천안인, 문효공 세주(文孝公 世柱)의 후손으로 충립(忠立)의 아들이다. 호는 해은(海隱)이다.

인종 조에 충남 온양에서 월내동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학동에 살고 있다.

■ 정계생(丁戒生 : 조선 중기)

창원인(昌原人), 상호군 연방(上護軍 衍邦)의 후손으로 진사 자린(進士 自麟)의 아들이다. 자는 덕혜(德惠), 호는 월천(月川)이다. 이조좌랑(吏曹佐郎)을 지냈다. 남원에서 웅천동 송현 마을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여수시, 순천시, 고성군, 사천시 등지에 살고 있다.

■ 정복련(鄭福璉 : 조선 중기)

경주인. 노송정공 지년(老松亭公 知年)의 후손으로 수문장 규두(守門將 奎斗)의 아들이다. 자는 광옥(光玉)이다. 선조 때 경기도에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오림동, 순천시 등지에 살고 있다.

■ 정시린(鄭時麟 : 조선 중기)

경주인. 노송정공 지년(老松亭公 知年)의 후손으로 환충(煥忠)의 아들이다. 자는 내흥(乃興)이다. 영조 때 순천에서 소라면 사곡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사곡에 살고 있다.

■ 정진화(鄭鎭華 : 조선 후기)

경주인. 노송정공 지년(老松亭公 知年)의 후손이자 석후(錫堧)의 아들로 자는 사극(士極)이다. 좌승지 경연참찬관과 정3품 진주영장을 지낸 동열의 조부로 영조 때 순천에서 소라면 현천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현천 등지에 살고 있다.

■ 정준형(鄭俊亨 : 조선 중기)

경주인. 노송정공 지년(老松亭公 知年)의 후손으로 지원(之援)의 아들이다. 자는 관태(官泰), 호는 화포(花圃)이다. 숙종 때 순천에서 소라면 복산리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여천동 반월, 소라면 봉두, 복산에 살고 있다.

■ 정태주(鄭台胄 : 조선 중기)

경주인. 노송정공 지년(老松亭公 知年)의 후손으로 충신 정빈(鄭賓)의 증손이며 가선 광형(嘉善 光亨)의 아들이다. 자는 숙명(淑明)이다. 명종 때 순천에서 살다가 여수로 이주하여 호조참판의 증직을 받았다. 여수시, 순천시 등지에 살고 있다.

■ 조광겸(趙光謙 : 조선 중기)

영조 때 순천에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울촌면 광암에 살고 있다.

■ 조윤구(趙潤球 : 조선 중기)

옥천인(玉川人). 절민공 승문(節愍公 崇文)의 5대손으로 휴(休)의 아들이다.

자는 태선(太善)이다. 참봉을 지냈고, 선조 때 순천에서 여수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미평동에 살고 있다.

■ 조중선(趙重先 : 조선 중기)

함안인. 어계 여(漁溪 旅)의 후손으로 통정 영민(通政 榮敏)의 아들이다. 자는 백여(白汝)다. 영조 때 함안에서 화양면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화양면 이목에 살고 있다.

■ 주무명(朱武鳴 : 조선 중기)

신안인(新安人). 무열공 몽룡(武烈公 夢龍)의 후손으로 인달(仁達)의 아들이다. 자는 승지(承之)다. 선조 때 진주에서 울촌면 청대리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울촌면 월산리와 진양 등지에 살고 있다.

■ 주법명(朱法鳴 : 조선 중기)

신안인. 무열공 몽룡(武烈公 夢龍)의 후손으로 인달(仁達)의 아들이다. 자(字)는 사집(士集)이다. 선조 때 진주에서 화치동으로 이주하였으며, 그 후손들이 선원동, 화장동, 흥성 등지에 살고 있다.

■ 주사명(朱仕鳴 : 조선 중기)

신안인 무열공 몽룡(新安人 武烈公 夢龍)의 후손으로 익달(益達)의 아들이다. 동덕랑(通德郎)을 지냈다. 효종 조에 진주에서 문수동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문수동, 미평동 등지에 살고 있다.

■ 주의발(朱儀發 : 조선 중기)

신안인. 부용(芙蓉)의 아들로 자는 성순(性珣), 호는 일부(逸夫)다. 영조 때 이인좌의 난을 피하여 고흥군 점암에서 돌산을 성두리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돌산읍과 여수에 살고 있다.

■ 지달사(池達四 : 조선 중기)

충주인(忠州人). 자는 도원(道源), 호는 둔재(澗齋)다. 명종 때 진주에서 여수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울촌면 중산에 살고 있다.

■ 차경복(車敬輓 : 조선 중기)

연안인(延安人). 문절공 원부(文節公 原輔)의 현손(玄孫)으로 진사 계생(繼生)의 아들이다. 자는 제옥(題玉), 호는 송운(松雲)이다. 인종 조에 영풍군 순흥면에서 율촌면 구암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구암에서 살고 있다.

■ 천세광(千世光 : 조선 중기)

중국 영양인(中國 襄陽人). 화산군 만리(花山君 萬里)의 후손으로 가선 길룡(嘉善 吉龍)의 아들이다. 자는 후선(厚先), 호는 송암(松庵)이다. 숙종 때 해남에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율촌면 광암에 살고 있다.

■ 최기(崔琦 : 조선 중기)

삭녕인(朔寧人). 문정공 항(文靖公 恒)의 후손으로 임현의 아들이다. 자는 완호(完浩), 호는 남천(南川)이다. 경종 때 남원에서 적량동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선원동 등지에 살고 있다.

■ 최상영(崔尙榮 : 조선 중기)

초계인(草溪人). 사인 산두(舍人 山斗)의 후손으로 재중(載重)의 아들이고, 자는 공명(公明)이다. 판관을 지냈고, 숙종 때 순창에서 화양면 용주리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화양면 용주리 등지에 살고 있다.

■ 최승달(崔昇達 : 조선 중기)

경주인. 치원(致遠)의 후손으로 충신 대성(忠臣 大晟)의 증손이다. 자는 승철(承哲), 호는 사곡(沙谷)이다. 숙종 때 보성에서 오천동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오천동 등지에 살고 있다.

■ 최여흥(崔麗興 : 조선 중기)

경주인. 충신 대성(忠臣 大晟)의 현손으로 인달(仁達)의 아들이다. 자는 자신(子信)이다.

경종 때에 보성에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여수 일대에 살고 있다.

■ 최완(崔浣 : 조선 중기)

전주인(全州人). 평도공 유경(平度公 有慶)의 후손으로 사과 영순(司果 永

洵)의 아들이다. 자는 사두(思杜), 호는 죽산(竹山)이다. 병절교위(秉節校尉)를 지내다가 명종 때 곡성에서 울촌면 죽현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울촌면, 쌍봉지역 등지에 살고 있다.

■ 최치남(崔致南 : 조선 중기)

해주인(海州人). 문헌공 충(文憲公 冲)의 후손(後孫)으로 경(景)의 아들이다. 자는 토강(土剛), 호는 만호당(晩湖堂)이다. 숙종 때 화순에서 화양면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도 화양면, 구례 등지에 살고 있다.

■ 최홍기(崔弘器 : 조선 중기)

전주인. 대제학 양(大提學 滂)의 후손으로 경근(景鯤)의 아들이다. 호는 안남(雁南)이다. 명종 때 남원에서 여수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신기동, 돌산읍 등지에 살고 있다.

■ 허진(許珍 : 조선 중기)

양천인(陽川人). 미수 목(眉叟 穆)의 후손으로 유(侑)의 아들이다. 자는 만영(萬榮), 호는 화은(華隱)이다. 영조 때 순천에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봉계동에 살고 있다.

■ 홍유창(洪有昌 : 조선 중기)

남양인(南陽人). 문정공 언박(文正公 彦博)의 후손(後孫)으로 중려(重麗)의 아들이다.

자는 윤포(允浦), 호는 난계(蘭溪)이다. 영조 때 나주에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울촌면 합동에 살고 있다.

■ 홍일승(洪逸承 : 조선 중기)

남양인. 문정공 언박(文正公 彦博)의 후손으로 이오(以五)의 아들이다. 자는 윤겸(允謙), 호는 월봉(月峯)이다. 효종 때 순창에서 상암동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호명동에 살고 있다.

■ 황귀중(黃貴重 : 조선 중기)

장수인(長水人). 익성공 희(翼成公 喜)의 후손으로 통정 필대(通政 弼大)의

아들이다. 자는 후지(厚之)다. 숙종 때 순천에서 봉강동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여수 등지에 살고 있다.

■ 황수청(黃水淸 : 조선 중기)

장수인. 방촌 희(尙村 喜)의 후손으로 언복(彦福)의 아들이다. 인조 때 상주에서 순천으로, 순천에서 다시 여수로 이주하였으며 후손들이 미평동과 쌍봉동 등지에 살고 있다.

제2절 충신·충절

■ 공은(孔隱 : 고려 후기)

곡부인(曲阜人). 창원 백소의 손으로 자는 백양, 호는 고산이다. 고려 때 평장사(平章事)로 재직시 불교의 타락상을 개탄하여 송유를 주장하다가 귀양와 삼일 낙포동에서 살았다 한다. 그러나 설화에는 조선 태종이 조정에 나와 벼슬을 하도록 권유했으나 그는 두 임금을 섬길 수는 없다고 하며 이를 거절하였고 낙포동으로 유배되었다가 이곳에서 타계하였다고 한다. 상암동 고산서원에 배향되었다.

■ 김난숙(金蘭叔 : 조선 중기)

경주인(慶州人). 이름은 숙량(叔朗)이다. 아버지는 문정공 김기(金璣)이고, 아들은 김두일(金斗勳)과 김억령(金億齡)이다. 울촌면 청대에서 태어나 1592년 8월 금산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고 순절하였다. 선무원종훈(宣武原從勳)에 책록되었고 호조참의에 증직되었다.

■ 김대인(金大仁 : 조선 중기)

김해인. 자는 원중, 시호는 충숙, 절효공(節孝公) 극일의 증손이며 통덕랑 유손(繡孫)의 아들이다. 이순신 장군의 청으로 부장이 되어 노량, 벽파진, 장도, 한산 등의 해전에서 수많은 왜적을 무찔렀다. 좌수사 이유직의 부정을 직언하여 괘씸죄로 옥에 갇혔으나, 옥중에서도 깨끗함을 보이다가 죽음을 택했다.

■ 김두일(金斗弼: 조선 중기)

경주인(慶州人). 자는 광서(光瑞)이다. 조부는 문정공 김기(金璣)이고, 아버지는 선무원종공신 김난숙(金蘭叔)이다. 김억령(金億齡)과 형제로 율촌면 청대에서 태어났다. 1582년 무과에 급제하여 이순신 장군 휘하로 들어가 옥포해전에서 돌격장으로 참전하여 전공을 올리고 순절하였다.

■ 김설(金泄: 조선 중기)

김해인(金海人). 자는 세종(世中), 호는 서헌(西軒)이다. 김해 김씨 여수 입향조 서산(西山) 김은대(金銀戴)의 아들이다. 그는 여수 상암동에서 출생했다. 1588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정유재란 중전인 1598년 11월 18일 묘도 앞 바다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였다.

■ 김시추(金時秋: 조선 중기)

김해인(金海人). 자는 이숙(而叔), 호는 풍산(豐山)이다. 축은(築隱) 김방려(金方礪)의 후손으로 율촌면에서 출생하였다.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이순신 장군 휘하에서 큰 공을 세우고 노량해전에서 순절했다. 김시추의 7세손 김치정(金致鼎)이 천금으로 논 40두락을 사서 충민사의 춘추제사에 보냈다.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녹훈되었다.

■ 김억령(金億齡: 조선 중기)

경주인(慶州人). 초기 이름은 자(磁), 조부는 문정공 김기(金璣), 아버지는 김난숙(金蘭叔)이며 김두일과 형제간이다. 1582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가재(家財)를 털어 광재우 의병장에게 기탁하였다. 청도 대왕산성 싸움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던 중 순절하였다.

■ 김총(金摠: 후삼국시대)

자는 원령(元領)이며, 대보공 알지의 후손이다. 통일신라 헌안왕(憲安王) 때 진례산 아래 적량에 치소를 두고 기거하며 남해안에서 적들을 징벌하고 선정을 베풀었다. 이후 순천의 호족 박영규와 함께 견훤을 도왔다. 그 공으로 순천 지역을 다스리는 평양군(平陽君)의 직위에 올랐다. 묘소는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오성산에 있다. 진례산의 성황신으로 추앙받고 있으며, 순천 김씨의 시조가 된다.

■ 나대용(羅大用 : 1556년~1612)

금성인(錦城人). 나주 문평면 오룡리 출신으로 28세 때 무과에 급제하였다. 이순신 장군으로부터 전라좌수영 수군의 전선을 건조하는 감조군관으로 임명을 받고 선소에서 조선 수군의 주력 전함인 판옥선과 함께 거북선을 제작하였다. 1594년 임진왜란 때 활약한 공이 인정되어 강진 현감, 금구, 능성, 고성 등의 현감을 역임하였다. 1610년 남해 현령에 제수되어 성능이 우수하고 쾌속선인 해추선(海鞦船)을 만들었다.

■ 박대복(朴大福 : ?~1592)

밀양인. 자는 선부(善夫), 호는 호암(浩庵)으로 여수 출신의 무신이다. 1588년 무과에 급제하여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 장군 휘하에 들어가 1592년 7월 한산대첩 때 순절했다. 임진왜란 때 전공을 세운 큰아들 박홍주(朴弘胄), 병자호란 때 국치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임금이 있는 북쪽을 향해 통곡한 뒤 바다에 몸을 던져 순절한 작은 아들 박신충(朴愼忠)과 함께 삼부자를 가리켜 일문삼충(一門三忠)이라 하였다.

■ 박성무(朴成茂 : 1563~1597)

밀양인. 자는 항덕(恒德) 호는 죽포당(竹圃堂)이다. 충주에서 태어나 남명 조식의 문하에서 수학했으며, 임진왜란 직전에 울촌면 봉전마을로 이주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 때 남원에 사는 최여운(崔汝雲)·최여근(崔汝謹) 형제와 협력하여 숙성치(宿星峙) 싸움에서 얻은 적의 수급을 명나라 장수 양원(楊元)에게 보내고 밤에 왜적의 진지에 잠입하여 수많은 왜적을 살상하였으나 적에게 발각되어 순절하였다.

■ 박신충(朴愼忠 : 조선 중기)

밀양인. 박대복(朴大福)의 아들로 임진왜란 후 고돌산진장(古突山鎭將)으로서 선정을 베풀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임금이 파천 소식을 듣고 병졸을 이끌고 여산(礪山)까지 진격했으나 조정의 굴욕적인 항복을 접한 뒤 진으로 되돌아 왔다.

그는 국치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임금이 계시는 북쪽을 향해 통곡한 뒤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져 순절했다. 1678년 고돌산진이었던 용주리 고내마을에

‘어모장군행별장박공신충선정비(禦侮將軍行別將朴公蓋忠善政碑)’라고 비를 세웠다.

■ 박자방(朴自芳 : 조선 중기)

밀양인. 자는 평중(平仲), 호는 죽파(竹坡)다. 밀양 박씨 여수 입향조인 박진현(朴振賢)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무과에 올라 훈련원첨정(訓練院僉正)으로 있을 때 박자방을 대동하고 화양면에 입향하였다.

정유재란 때 이순신을 찾아가 참전하겠다는 뜻을 전하여 그 길로 조방장이 되었다. 명량해전에 참전하여 큰 공을 세우고, 순천 왜교전투에 참전했으나 순절했다.

■ 배흥립(裵興立 : 1546~1608)

성산인(星山人). 자는 백기(伯起), 호는 동포(東圃)이다. 대사간 배규(裵規), 좌사간 배한(裵閑) 등의 후손으로 영산현감을 지낸 배인범(裵仁範)의 아들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홍양현감으로 이순신 장군 휘하에서 옥포, 당항포, 한산도 해전에서 공을 세웠으며 1601년(선조 34) 전라좌수사에 올라 여수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 서명무(徐明武 : 조선 중기)

이천인(利川人). 호(號)는 은호(銀湖)로 문익공(文翼公 圃)의 후손이자 주부음(主簿 崙)의 아들이다. 임진왜란 때 임금이 의주로 파천했다는 비보를 접하자 비분강개하여 충무공 막하로 들어가 옥포, 당항포해전에서 큰 공을 세웠고, 노량해전에 참전했다가 순절하였다.

■ 서춘무(徐春武 : 조선 중기)

이천인(利川人). 호는 금호(錦湖)다. 문익공(文翼公) 서강(徐岡)의 후손이며, 이천 서씨 여수 입향조 서진(徐晉)의 7세손인 서음(徐崙)의 아들이다. 1585년 무과에 급제하여 이순신 장군의 휘하에 들어가 우위장으로 참전해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웠으나 노량해전에서 순절하였다.

■ 송희립(宋希立 : 조선 중기)

여산인(礪山人). 자는 신중(信中), 호는 삼규당(三規堂)이다. 현감을 지낸

송관(宋寬)의 둘째 아들로 1553년(명종 8) 고흥군 동강면 마륜리에서 출생하였다.

1583년(선조 16)에 무과에 급제하여 1591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직속군관이 되어 임진왜란 때 노량해전(露梁海戰)에서 적에게 포위된 명나라 제독 진린(陳璘)을 구출하는 등 큰 공을 세워 선무원종일등공신에 올랐다. 1611년 4월 전라좌도수군절도사로 여수에서 활동하였다.

■ 오흔인(吳欣仁 : 고려 후기)

해주인(海州人). 개성소윤을 지냈던 오성만(吳成萬)의 장자이다. 그는 고려 말 여수 현령으로 지조와 절개가 굳었는데 조선이 건국되자 두 임금 섬기기를 거절했다. 이성계는 이에 격분하여, 여수(麗水)를 여수(呂水)로 부르고, 반역항이라 하여 현을 면으로 격하시켜 순천에 복속시켰다.

■ 유탁(柳濯 : 고려 후기)

고흥인(高興人). 자는 춘경(春卿), 호는 성재(誠齋)로, 고려 후기 여수 지역 장생포구 연안에서 활동한 무신이다.

1311년(충선왕 3)에 출생하여 1352년(공민왕 원년)에 전라만호가 되었는데 장생포구(장성마을)에 왜구들이 출현하자 그들을 격퇴하였다. 문헌 사료이외에도 장성 마을, 선소, 망마경기장 위 동동골 등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 위대경(魏大經 : 조선 중기)

장흥인(長興人). 자는 경신(景伸), 충렬공 계정(忠烈公 繼廷)의 후손이며, 주부 억장(主簿 億章)의 아들로서 원주판관을 지냈다. 임진왜란 때 옥포, 당항포전에서 공적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상주싸움에서도 황진병사와 함께 많은 공을 세워 상주영장이 되었다. 장흥 석순동에 배향되었으나 후손들은 울촌면 봉두에 살고 있다.

■ 위옹(魏庸 : 조선 초기)

장흥인. 충렬공 계정(忠烈公 繼廷)의 후손이자 종사랑(從仕浪) 종노(宗魯)의 아들이다. 단종 때 진사를 지내다가 세조가 왕권을 찬탈하자 울촌면 울동에서 은거생활로 생애를 마쳤다. 그 자손들이 울촌 신대에 살고 있다.

■ 이대립(李大立 : 1545~1598)

경주인. 자는 영보(永甫), 호는 청현(淸軒)이다. 병조판서 이석(李碩)의 후손이며 조부는 1567년 적량동 입학조 이경서(李慶瑞)다. 1545년 삼일동 군장에서 태어나 1585년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주부가 되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휘하에서 영호남을 넘나들며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웠다.

■ 이대원(李大源 : 1566~1587)

함평인(咸平人). 자는 호연(浩然)이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내기리에서 출생하였으며, 1583년 18세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1586년 녹도만호가 되어 왜구와 손죽도 해전에서 싸우다 왜구에게 사로잡혔으며, 절명시를 써 가슴에 품고 항복을 거부하다가 살해되었다.

이대원 장군 순국 후 섬의 이름을 큰 인물을 잃었다는 뜻으로 손대도라 부르기도 했다. 이대원 사당인 충렬사에서는 매년 3월 삼짱날에 송모제를 지내고 있으며, 여수 영당과 고흥 쌍충사에도 배향되었다.

■ 이순신(李舜臣 : 1545~1598)

덕수인(德水人). 자는 여해(汝海) 시호 충무(忠武)로 서울 건천동(인현동)에서 1545년(인종1) 4월 28일(음3월8일) 출생했다. 1576년 32세에 식년무과에서 병과로 급제하였고 1591년 전라좌도수군절도사로 전라좌수영에 부임하여 거북선을 건조하는 등 주민들과 힘을 합해 왜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장군은 오관 오포의 좌수영 수군들로 함대를 편성하여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사천, 당포, 당항포, 한산도, 안골포, 부산포에서 일본군에 대승을 거두었다.

1593년 삼도수군통제사 겸 전라좌수사로 임명을 받은 후 남해안 일대의 왜적 수군을 격파하고 재해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1598년(선조31) 12월 16일(음11월19일) 노량 관음포에서 퇴각하는 왜적과 혼전을 벌이다가 유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1604년 선무일등공신이 되고 덕풍부원군(德豊府院君), 좌의정에 이어 다시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여수 충민사, 통영 충렬사, 아산 현충사 등에 배향되었다.

■ 이순신(李純信 : 1554~1611)

전주인(全州人). 자는 입부(立夫)다. 태종(太宗)의 아들 양녕대군(讓寧大君)

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이진(李眞)이고, 어머니는 복주 김씨(福州金氏)다. 1578년(선조11)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의주판관을 거쳐 1592년 방담진 첨절제사가 되었고,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중위장(中衛將)이 되어 옥포, 당포, 당항포, 안골포 등지에서도 큰 공을 세워 전주부윤을 거쳐 1598년 경상우도수군절도사가 되었다.

1598년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자 곧바로 군사를 수습하여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이로 인해 효충장의선무공신(效忠仗義宣武功臣)의 호를 받고 자헌대부에 올라 완천군(完川君)으로 봉해졌으며 시호는 무의(武毅)이다. 1600년(선조33)에 충청수군절도사가 되었고, 1606년 수원부사를 거쳐 1611년 전라도병마절도사가 되었다가 그곳에서 병사했다.

■ 이억기(李億祺 : 1561~1597)

전주인(全州人). 자는 경수(景受), 아버지는 필주군(泌洲君) 연손(連孫)이다. 1561년 태어나 17세에 사복시내승이 되고, 그 뒤 무과에 급제하여 경흥부사·온성부사 등을 거쳤다.

임진왜란 때, 전라우도수군절도사가 되어 이순신 장군을 도와 당포, 당항포, 한산도, 부산포 등의 해전에서 왜적을 크게 격파했다. 1597년 2월 이순신 장군이 무고로 투옥되자 이항복(李恒福), 김명원(金命元) 등과 함께 이순신 장군의 무죄를 주장했으며, 정유재란 때 통제사 원균(元均)의 휘하에서 부산포에 있던 왜적을 공격하다가 기습을 받아 칠천량해전에서 전사했다.

시호는 의민(毅愍)으로 선무원종이등공신(宣武原從二等功臣)으로 완흥군(完興君)에 추봉되고 병조판서에 증직되었다. 신위는 충민사에 배향되었다.

■ 정규두(鄭奎斗 : 조선 중기)

경주인. 노송정 지년(老松亭 知年)의 후손이며, 소라면 운암동 입향조인 정복련의 아버지다. 자는 성정(星精), 임진왜란에 수문장(守門將)으로 전공(戰功)을 세웠으나 순절했다.

■ 정대수(丁大水 : 조선 중기)

창원인(昌原人). 자는 여숙(余淑), 호는 용서(龍西)다. 사성공(司成公) 정득우(丁得雨)의 8세손이다.

증조부는 정계생, 조부는 통사랑 정순종(丁舜鍾), 아버지는 군수를 역임한 정호인(丁灝仁)이다. 임진왜란 때 참전했던 정철(丁哲)·정린(丁麟)·정춘(丁春)의 종질(從姪)이다.

1593년 순초장(巡哨將)으로 명량해전에서 부상을 당하면서도 큰 공을 세웠다. 1597년 수군좌익장으로 참전하였고, 1598년 노량해전에서 적탄에 맞아 그 이듬해 순절하였다. 선무원종훈일등공신에 책록되었으며, 1847년에 사충사를 세워 향사하였다. 이순신과 정씨 사충(四忠)을 병사(併祀)하여 오충사를 건립하였다.

■ 정린(丁麟 : 조선 중기)

창원인(昌原人). 자는 사박(史博), 호는 묵암(默庵)이다. 성균관사성 정득우(丁得雨)의 7세손으로, 조부는 월천공 정계생(丁戒生)이고, 아버지는 통사랑 정순원(丁舜元)이다.

1588년 정 춘, 정대수와 함께 무과에 급제하였다. 1595년 이순신의 전구장(前驅將)으로 형 정 철, 아들 정언신과 함께 칠천량전투에서 왜적 수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같은 날 순국하였다. 선무원종훈일등공신에 책록되었으며, 1847년(헌종 13)에 사충사를 세워 향사하였다. 이순신과 정씨 사충(四忠)을 병사(併祀)하여 오충사를 건립하였다.

■ 정빈(鄭賓 : 조선 중기)

경주인. 자는 공백(恭伯), 호는 곡구(谷口)다. 좌찬성(左贊成) 노송정(老松亭) 지년(知年)의 후손이다. 임진왜란 때 작은아버지 정사준(鄭思竣), 정사굉(鄭思宏)와 더불어 집안의 총 300명을 이끌고 의곡(義穀) 1,000석을 임금이 파천해 있던 의주로 운반하는 일을 맡았다.

이항복이 정빈의 공을 조정에 알려 사온서봉사(司 署奉事)에 제수되었다. 1593년 사헌부감찰을 거쳐 낭천, 직산, 전의, 아산 등지의 원(員)을 역임하면서 치적을 쌓았다. 후손들이 소라 현천 등지에 살고 있다.

■ 정상명(鄭翔溟 : 1545~?)

연일인(延日人). 자는 사순(士淳)이다. 문정공(文貞公) 정사도(鄭思道)의 후손으로 조부는 승의랑(承議郎) 정유침(鄭維沈)이고, 청사(菁莎) 정소(鄭沼)의 아들이다. 형은 정원명(鄭元溟)이고, 송강 정철(鄭哲)의 조카이다.

1545년 소라면 관기리에서 태어나 1588년 무과에 급제하여 군자감주부(軍資監主簿)를 지냈다. 임진왜란 때 정원명과 함께 이순신 장군 휘하로 들어가 한산도대첩에 참전하는 등 여러 차례 큰 전공을 세웠다. 이순신 장군이 조정에 알려 훈련판관(訓練判官)에 특제되었다.

■ 정운(鄭運 : 1543 1592)

하동인(河東人). 자는 창진(昌辰), 훈련참군 응정(應禎)의 아들로 영암 출신이다. 어려서부터 성품이 강직하고, 경서(經書)를 가까이 하였다. 1570년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봉사·웅천현감·제주판관 등을 지내면서 부당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았다. 임진왜란 때 녹도만호로 이순신 장군 휘하에서 옥포해전과 당포해전, 한산도해전에 출전하여 큰 공을 세웠으나 1592년 9월 부산포해전에서 전사하였다.

■ 정이오(鄭以吾 : 조선 초기)

진주인. 자는 수가(粹可), 호는 교은(郊隱)·우곡(愚谷), 찬성사 정신중(鄭臣重)의 아들이다. 1374년(공민왕 23) 문과에 급제하고 공조정랑, 예조정랑, 전교부령 등을 지냈다.

조선 건국 후 조준(趙浚)·하륜(河崙) 등과 함께『사서절요(四書節要)』를 편찬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묘도에서 잠시 머물면서 쓴 시 한 수가 전한다.

■ 정원명(鄭元溟 : 조선 중기)

연일인(延日人). 자는 사호(士浩), 문정공(文貞公) 정사도(鄭思道)의 후손이고, 청사(菁莎) 정소(鄭沼)의 아들이며 송강 정철(鄭哲)의 조카다.

정원명은 소라면 관기리에서 태어났다. 임진왜란 때 훈련판관으로 형 정상명과 함께 이순신 장군 휘하에서 한산대첩 등에 참전하여 큰 공을 세웠다. 충무공대첩비를 건립할 때도 많은 애를 썼다.

■ 정철(丁哲 : 1554~1595)

창원인. 자는 사명(士明), 호는 청은(靑隱)이다. 성균관사성 정득우(丁得雨)의 7세손으로, 조부는 월천공 정계생(丁戒生), 아버지는 통사랑 정순원(丁舜元)이다.

임진왜란 당시 함께 참여했던 정린(丁麟)은 아우요, 정춘(丁春)은 종제(從弟), 정대수(丁大水)는 종질(從姪)이다.

1585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수문장으로 재임 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즉시 정린·정춘·정대수 등과 만금(萬金)의 재산을 내놓아 의병을 모집하여 좌수영에 투탁하므로 이순신(李舜臣)은 “공의 일문에 의사가 어찌 그렇게 많은가!” 하며 삼군에 자랑하고 쾌거를 격려하였다.

1597년 칠천량전투에서 왜적수군의 기습공격을 받았고, 정씨 사충(四忠)을 병사(併祀)하여 오충사를 건립하고 추모하고 있다.

■ 정춘(丁春 : 1555~1594)

창원인. 자는 사화(士華), 호는 송암(松巖)이다. 성균관사성 정득우(丁得雨)의 7세손으로, 조부는 월천공 정계생(丁戒生)이고, 아버지는 통사랑 정순반(丁舜班)이다. 임진왜란 때 함께 참여했던 정철(丁哲), 정린(丁麟)은 종형이고, 정대수(丁大水)는 종질이다. 1588년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이 되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정철과 의병을 일으켜 이순신의 막하에서 유격장(遊擊將)이 되었다.

1594년 통제사 이순신 장군의 조방장(助防將)으로 제2차 당항포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하였다. 정씨 4충을 병사(併祀)하여 오충사를 건립하고 추모하고 있다.

■ 조노준(趙老俊 : 조선 중기)

함안인(咸安人). 어계(漁溪) 조려(趙旅)의 후손이다. 임진왜란 때 돌산에서 수백 명의 의병을 일으켜 왜구에 항전했다. 궁여지책으로 돌을 긁어모아 무기로 삼고, 야간에 적진에 돌격하여 많은 적을 살상하거나 사로잡는 전과를 올렸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돌산장사라 일컬었다.

■ 최대원(崔大元 : ?~1592)

전주인. 자는 동주(東胄), 호는 학전(鶴田)으로 아버지는 전주 최씨 여수 임향조 최홍기(崔弘器)이다. 1590년 아버지와 함께 신기동에 자리 잡았다. 1592년 사복시정(司僕寺正) 재임시 이순신 장군의 우부장으로 당포해전과 한산도대첩에 참전하여 큰 공을 세웠으나 부산포해전에서 적탄에 맞아 순절하였다.

■ 차원부(車原頌 : 1320~1398)

연안인(延安人). 자는 사평(思平), 호는 운암(雲巖), 시호는 문절(文節), 월파(月波) 차종로(車宗老)의 셋째 아들로 고려시대의 문신, 유학자이자이다. 고려에 충성하던 두문동(杜門洞) 72인의 한 사람이며 성리학(性理學) 연구에서 정몽주 등과 나란히 명성을 떨쳤다.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으나 부름에 응하지 않고 구암 마을로 내려와 한가로운 생활을 하다가 하륜 등에 의해 살해되었다. 『차문절공유사(車文節公遺事)』는 차원부의 글과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

■ 황득중(黃得中 : 1551~1598)

창원인. 자는 서중(瑞中), 호는 회엄(檜嚴)이다. 회산군(檜山君) 황석기(黃石奇)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증가선대부 황용(黃鏞)이다. 1588년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판관을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 장군 막하로 들어가 조방장(助防將)으로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웠으나 1598년 7월 19일 절이도해전 때 순절하였다. 그는 소라면 장전에서 출생하였고, 묘지는 구봉산 남쪽에 있다.

■ 황상중(黃祥中 : 1570~1598)

창원인. 자는 응지(應址), 의원군 거정(義原君 居正)의 후손이다. 아버지 진(鎭)은 임란 때 의주목사로 선조를 모셨고, 공조·예조·형조판서를 지냈다. 선무종훈(宣武從勳)에 책록(冊錄)되었고, 정조 때 호조참판에 증직되었다. 1598년 11월 17일 밤 왜교성과 신성포간 교량 파괴를 위한 유격전을 전개하다 왜적의 흉탄에 맞아 18일 새벽녘에 순국했다. 모든 가족이 묘소가 있는 양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수 선원동 반월마을 토미산에 안장함에 따라 황상중의 세 아들이 반월마을의 입향조가 되었다.

제3절 절의

■ 정소(鄭沼 : 조선 중기)

연일인. 호는 청사(靑莎)다. 송강 정철의 둘째 형이며, 큰누이는 인종의 귀

인(貴人)이며, 둘째누이는 계림군(桂林君) 이유(李瑠)의 부인이다.

1545년 을사사화에 계림군이 관련되어 그 일족으로서 아버지가 유배당할 때 여수 소라포(召羅浦) 달래도(達來島-섬달천)에 숨어 살면서 밭을 일구어 마늘을 심고 낚시를 하며 세상을 등지고 살았다.

『강남악부』에는 정소의 시「종산포(種菘圃)」한 편이 전해지고 있으며, 세상을 뜬 뒤 그가 지쳐했던 곳에다 청사서원(靑莎書院)을 건립했다. 율곡 이이(李珣)는 정소의 묘비에다 '참으로 모범이 될 만하다' 라고 썼다.

제4절 명관

■ 김영수(金永綬 : 조선 후기)

안동인(安東人). 一名 金等 1744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김해부사(金海府使)로 있다가 1773년 전라좌도수군절도사로 임명을 받아 여수로 왔다. 이 때 좌수영성을 개축하고 전함을 보수하는 등 진력을 다하였다.

1785년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었으며, 여수호좌수영수성창설사적비(麗水湖左水營守城棚設事蹟碑)에 김영수의 공적이 남아 있다.

■ 이도빈(李道彬 : 조선 후기)

광주인(廣州人). 자는 도재(都載)다. 봉창수(蓬昌守) 이형엄(李炯儼)의 딸이 부인이며, 아들 이우항(李宇恒, 1648~1722)은 삼도수군통제사를 역임하였다.

1664년 1월 전라좌도수군절도사로 부임하였으나 기근과 질병 등으로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았다. 그래도 좌수사는 법을 어기지 않고 좌수영의 주민과 군병에게 쌀과 포목을 넉넉히 지급하는 등 주민을 따뜻하게 보살폈다.

헨드릭 하멜(Hendrick Hamel) 등 12명의 네덜란드 선원들에게 모든 사역을 면제해 주었고, 가끔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대접도 했다.

『서암유고(西巖遺稿)』에는 허물어져 내린 진남관(鎭南館)을 중수하면서 손수 상량문까지 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수 지역을 떠나 전라병사와 평안병사 등을 거친 후 1668년 삼도수군통제사를 지냈다.

■ 이량(李良 : 1446~1511)

함평인(咸平人). 자는 자방(子房), 함성군(咸城君) 이종생의 후예이다. 1479년 여진족을 상대로 건주싸움에 출전하여 큰 공을 세웠고, 1480년 무과에 급제하여 삭주부사·회령부사·의주목사를 지냈다.

1497년 고흥에 왜변(倭變)이 일어났을 때 녹도(鹿島)만호로 적을 대파하였다. 그 공으로 전라좌도수군절도사가 되어 왜구들을 막기 위해 장군도와 돌산 사이에 수증성을 쌓았다.

■ 이수광(李睟光 : 1563~1628)

전주인. 자는 윤경(潤卿), 호는 지봉(芝峰)이다. 이수광은 태종의 7세손으로, 아버지는 병조판서를 지낸 이희검(李希儉)이다. 1563년 2월 경기도 장단(長湍)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려서부터 울곡 이이의 칭송을 받을 정도로 문장이 뛰어났다. 순천부사로 부임해 선정을 베풀었다.

특히, 임진왜란의 참화가 그대로 남아 있던 전라좌수영과 충민사 등의 재건에 힘을 쏟았다. 순천부사로 근무하면서 『승평지(昇平志)』를 편찬하였는데, 여수 지역에 관한 내용도 많이 남겼으며, 여러 편의 시 가운데 「영당」이 주목할 만하다.

■ 이시언(李時言 : ? ~ 1624)

전주인. 1594년 전라병마절도사가 되어 이순신 장군과 함께 전라도를 지키며 큰 공을 세웠다. 1598년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뒤, 장군의 뒤를 이어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되었다.

1599년 객사인 진남관과 충민사를 건립했다. 1600년 삼도수군통제영을 가배량(加背梁, 현 거제도)으로 옮겨야 한다는 장계를 올려 1601년(선조 34) 삼도수군통제영은 가배량으로 옮겨지고 여수는 다시 전라좌도수군절도영으로 남게 되었다.

■ 안숙(安楡 : 조선 후기)

1809년 전라좌도수군절도사로 부임하여 학문과 무예를 권장했고, 군기(軍器)를 보수하고 공청(公廳) 등을 중수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였다. 군졸을 무휼(撫恤)하고 서민의 혼장(婚葬)을 도와 백성의 송덕이 높았으며, 후에 사적비가 세워졌다.

■ 윤선응(尹善應 : 조선 후기)

1865년 삼화부사에서 전라좌도수군절도사로 부임하여 연무(鍊武)와 흥학(興學)에 힘써 좌수영민들의 찬송(讚頌)이 자자하였다. 경상우수사로 전임하자 비를 세워 공의 공덕을 기렸다.

■ 이봉상(李鳳祥 : 1676 ~ 1728)

덕수인(德水人). 자는 의숙(義叔), 시호는 충민(忠愍)으로 이순신 장군의 5세손이다. 1702년 26세로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1709년 전라좌도수군절도사가 되어 부임하였다. 곡창을 설치하여 곤궁한 지역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었고 부역도 면제해주었다. 1720년 경종이 즉위하자마자 포도대장이 되었고, 잠시 삼도수군통제사를 지냈다. 1710년 이봉상이 전임한 후 전라좌수영 경내에 '수사이공봉상선정비(水使李公鳳祥善政碑)'라 새긴 선정비를 건립했다.

■ 이봉징(李鳳徵 : 조선 후기)

연안인(延安人). 자는 명서(鳴瑞), 호는 은봉(隱峯)이다. 1688년 순천부사를 제수 받았다. 율촌에 밤이 많다 하여 세금을 가혹할 정도로 따로 거두어들이다 그는 밤나무를 모두 베어내 세금을 없애주었다. 1691년에는 개성유수로 나갔고, 이듬해에는 전라도관찰사가 되었다.

■ 이용익(李容益 : 조선 후기)

1878년 전라좌도수군절도사로 부임했다. 직무에 충실하고 민폐를 염두에 두어 매사를 신중히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서재에 학문을 권장하는 한편 군졸의 사기를 올시키는 등 문무를 진흥시켰다. 1879년 퇴임 후 백성들은 그의 덕을 못 잊어 불망비를 세웠다.

■ 이용현(李容鉉 : 조선 후기)

1840년에 부임하여 사회폐풍일소에 힘썼다. 백성을 자기 부모 형제처럼 존경하고 사랑하였으므로, 그 은덕을 못 잊어 선정비를 세웠다.

■ 임태순(任泰淳 : 조선 후기)

1837년에 삼화부사(三和府使)에서 전라좌도수군절도사로 전임하였다. 흥학근무(興學勤務)하고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은「어찌 이제야 오셨나이까?」

하며 기뻐하였으며 귀향 후에 거사비를 세웠다.

■ 이형재(李亨在 : ?~1840)

1839년 길주목사(吉州牧使)에서 전임해온 수군절도사로 빈민에게 시혜하여 백성들의 원망이 없어졌다. 다음해 1840년 관사(官舍)를 증축하고 병졸들의 침식을 돌보는 일에 힘썼으므로 영하 군병(營下 軍兵)과 읍 촌민은 이에 감격했다. 동년 8월 현지에서 서거하자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를 건립하여 추모하였다.

■ 조대(趙垓 : 조선 후기)

정랑공 조 승(趙 承)의 후예이다. 1797년 전라좌도수군절도사로 부임하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많은 양곡과 수만금을 지급하여 주민 구호에 주력하고, 학문을 권장하여 선정을 베풀었다. 사적비를 세웠다고하나 유실되고 없다.

■ 조동하(趙東夏 : 조선 후기)

강화 중군을 지내다가 1740년에 전라좌도수군절도사로 부임했다. 부임 후 전함을 비롯한 모든 장비를 재정비하고 군율을 새롭게 하였다. 전임(轉任)하여 떠나자 주민들이 불망비(不忘碑)를 건립하였다.

■ 조문현(趙文顯 : 조선 후기)

풍양인(豊壤人). 갑산부사(甲山府使)와 승지를 역임하였다. 1869년 4월 전라좌도수군절도사로 부임하였다. 이 때 광양에서 민회행(閔晦行)·전찬문(田贊文)·한경삼(韓敬三) 등이 부하 70여 명을 거느리고 난을 일으켜 공당(公堂)을 파괴했으며, 광양현감을 내쫓고 공금(公金)을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절도사 조문현은 광양현감 대임을 맡아 민란을 해결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이후,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선정을 베풀니 백성들은 조문현을 생불(生佛)이라 불렀다.

■ 최완(崔煥 : 조선 후기)

최완은 문치(文治)에 뛰어난 수사(水使)로서 부임 후 동서(東西)에 서당을 만들어 학문을 권장하였다. 제주 목사로 전임하자 송공비(頌功碑)를 세워 덕을 찬양했다.

제5절 학덕

■ 김유(金澗 : 1814~1884)

경주인(慶州人). 호는 곱은(楸隱)이다. 집안이 거문도로 입도한 것은 7대조 김호은(金湖隱)이 난세를 피하여 동도 지역에 거주하면서부터다.

어려서부터 서도(西島)에 살던 만회(晩悔) 김양록과 장흥의 남파(南坡) 이희석(李僖錫), 추려(秋旅) 김대원(金大源) 등과 함께 공부하였다. 서른 나이에 성리학의 대가이며 위정척사론자인 노사(蘆沙) 기정진의 문하로 들어 전법(典法)과 예의의 강령을 터득하였다.

1854년 러시아의 푸자친(E. V. Putiatin, 1803~1883) 해군 중장이 이끈 함대가 거문도를 무단으로 침범한 사건 때, 김유는 조선과 통상교섭을 원한다는 러시아 측의 뜻을 단호히 거절해 버렸다. 김유의 문집에 포함된「해상기문」은 조선과 서양이 최초로 맺은 외교문서로 평가되기도 한다.

낙담재를 짓고 후학들을 가르치며 학문에 전념했다. 거문도 유촌마을 뒤 산록에 김유의 위패를 봉안한 곱은당이 있다.

■ 정종선(丁鐘璿 : 1811~ 1877)

창원인(昌原人). 충정공 대수(大水)의 후손으로 호는 운초(雲樵)다. 율촌면 호산에서 1811년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려서부터 경사에 능통했고 20세에 소과에 합격하였다. 1864년에는 복현 상소문을 지어 삼복삼과 이후 주춧돌던 여수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복현운동의 불씨를 되살렸다. 이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의 추앙을 받은 학자다. 병인양요 때 백의(白衣)로 국란을 당하여 남도의 사표라고 동도종유사에 기록하였다. 율촌면 호산마을 건너편 창원 정씨 묘역입구에 추모비가 있다. 운초유고집에 유묵이 담겨 있다.

■ 하멜(Hendrik Hamel : ?~1692)

네덜란드의 선원으로 조선 1653년 7월 24일(양력 8월 13일) 64명의 선원과 함께 무역선 스페르웨르호를 타고 일본 나가사키를 향해 가던 도중 폭풍을 만나 8월 제주도 부근에서 배가 난파되어 일행 36명이 제주도 산방산 앞 바다에 표착했다. 제주목사 이원진(李元鎭)의 심문을 받은 후 이듬해 5월 서

올로 호송되어 훈련도감에 편입되었다. 1656년 2월 강진의 전라병영에 33명이 도착, 1663년 여수의 전라좌수영에 12명이 배치되어 잡역에 종사했다. 하멜은 동료 11명과 함께 전라좌수영 근처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1666년 9월 5일 7명의 동료와 함께 탈출,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고국으로 돌아갔다. 귀국 후 13년간의 조선 억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멜 표류기[蘭船濟州島難破記]를 저술했다. 이것은 한국을 서양에 소개한 최초의 책으로 당시 유럽인들의 이목을 끌었다.

하멜 등대는 중화동의 하멜수변공원에 북위 34° 44' 11"와 동경 127° 44' 49"의 자리에 2004년 12월 23일에 건립하였다.

제6절 과거급제

■ 문과

성명	출신지	관직	자(字)	호(號)
위천주(魏天柱)	울진 평어	호조판서(戶曹判書)	자직(子直)	
장대범(張大範)	오천		의경(儀京)	이암(怡庵)
위덕광(魏德光)	울진 신대	찰방(察訪)		
정견룡(丁見龍)	쌍봉 웅천	찰방(察訪)	운택(雲宅)	재전(在田)
정계생(丁戒生)	쌍봉 웅천	이조좌랑	덕혜	월천

■ 무과

성명	출신지	관직	자(字)	호(號)
김병혁(金秉赫)	삼일 월래		양숙(良淑)	운파(雲坡)
김성진(金聲振)	오림동	훈련도감(訓練都監)		
김식현(金湜鉉)	여수	호군(護軍)		
김현기(金顯基)	여수	사과(司果)		
김홍노(金洪老)		사과(司果)		
남사원(南士遠)		통정(通政)	자장	죽계
류동호(柳東湖)		가선(嘉善)		

류인봉(柳寅鳳)	울촌 평촌	감찰사(監察史)	경량(敬亮)	춘형(春亨)
박의익(朴儀益)	화양 옥적	청성첨절제사(靑城僉節制使)	채섭(采燮)	송파(松坡)
박자방(朴自芳)	화양 옥적	정유재란 무장	평중	죽파
서상규(徐相奎)	여수	부호군(副護軍)		
유봉의(俞鳳儀)	여수	호군(護軍)		
유진형(俞鎭亨)	고소동	가선대부(嘉善大夫)		
이규완(李圭莞)	삼일 적량	선략장군(宣略將軍)	국준(國俊)	심정(心亭)
이인환(李仁煥)	여수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완(而完)	농은(農隱)
이흥진(李興震)	삼일 적량	절충장군(折衝將軍)	군옥(君玉)	필재(必齋)
장운(張雲)	삼일 상암	절충장군(折衝將軍)	기화(起化)	
장여규				
장이원(張利遠)	여수	가선대부(嘉善大夫)	이표(利杓)	인지(仁智)
정동열(鄭東烈)	소라 현천	진주영장(鎭將)	영언(永彦)	일죽헌
정 사(丁 泗)		가선(嘉善)경병조참판	사호	오산
정유신(丁惟愼)		병조 좌랑	자선	송촌
정의신(丁義愼)		훈려원 판관	자직	송애
정치형(鄭致亨)	오림동	어모장군(禦侮將軍)	순희(舜希)	일심재(一心齋)
정환춘(鄭煥春)	소라 죽림	가감역관(假監役官)	덕지(德知)	
주한동(朱漢東)	삼일 화치	판관(判官)	지원(之元)	
최진익(崔珍翊)	화양 용주	오위장(五衛將)	치윤(致允)	송은(松隱)
황계현(黃啓琰)	여수	통정대부(通政大夫)		
황자(黃梓)		가선첨지중추	민재	남헌

■ 사마시

성명	출신지	관직	자(字)	호(號)
김복일(金覆一)	소라 달천	생진과(生進科)급제	여호(汝號)	옥천(玉川)
김정업(金正燾)		진사(進士)		
박경환(朴景煥)	삼일 평여	진사(進士)		
위백(魏栢)	소라 봉두	진사(進士)	군화(君華)	녹재(錄齋)
이승권(李承權)		생원(生員)		
이종환(李宗翰)	소라 대포	진사(進士)		
지봉익(池鳳翼)	울촌 중산	진사(進士)		
차희인(車希仁)	울촌구암	양산군수(梁山郡守)	경채(慶采)	

제7절 가자(加資)

가자란 조선품계승격제도로 정3품 통정대부이상의 당상관품계를 의미함.

성명	출신지	관직	재(字)	호(號)
김동윤(金東允)	화양 이목	질지(秩至) 통정(通政)부호군(副護軍)	성비(性比)	청계(淸溪)
김조근(金朱根)	화양 이목	질지(秩至) 통훈대부(通訓大夫)	익찬(益贊)	일재(逸齋)
김창관(金昌寬)	화양 원포	통정대부(通政大夫)	관익(寬益)	호정(湖亭)
김창주(金昌柱)	여수	질지(秩至) 가선대부(嘉善大夫)	경수(景壽)	
김창호(金昌浩)	쌍봉 소호	가선대부(嘉善大夫)	영선(永善)	
김태일(金泰日)	쌍봉 도원	가선대부(嘉善大夫)	원거(元舉)	농포(農圃)
박병국(朴炳國)	울촌 내리	가선대부(嘉善大夫)	무겸(武兼)	야은(野隱)
박정래(朴正來)	쌍봉 도원	가선대부(嘉善大夫)	광숙(光叔)	도은(桃隱)
박종현(朴宗鉉)	울촌 내리	질지(秩至) 가선(嘉善)	이겸(以謙)	농해(豐海)
박준달(朴準達)	쌍봉 도원	가선대부(嘉善大夫)	영선(永善)	산정(山亭)
박준호(朴準浩)	쌍봉 도원	가선대부(嘉善大夫)	영중(永仲)	죽헌(竹軒)
박춘호(朴春浩)	삼일 묘도	가선대부(嘉善大夫)	자익(子益)	죽원(竹園)
배인수(裨仁洙)	삼일 월내	가선대부(嘉善大夫)	경익(京益)	
서의달(徐義達)	삼일 평사	가선대부(嘉善大夫)		
손대윤(孫大允)	화양 화동	통정대부(通政大夫)	석현(碩玄)	
심우현(沈祐賢)	쌍봉 시전	질지(秩至) 통훈대부(通訓大夫)	여량(汝良)	송암(松菴)
엄생기(嚴生基)	화양 용주	질지(秩至) 통정(通政)	두환(斗煥)	
옥주현(玉周鉉)	여수	가선대부(嘉善大夫)		
위도묵(魏道默)	울촌 평여	통정대부(通政大夫)	윤담(允膽)	청은(淸隱)
유덕중(劉德重)	울촌 외진	선전관(宣傳官)	증언(贈彦)	
이규봉(李圭鳳)	삼일 적량	질지(秩至) 통정(通政)	문칙(文則)	묵재(默齋)
이규해(李圭荷)	삼일 적량	통정대부(通政大夫)	복요(福堯)	송포(松圃)
이규현(李圭莢)	삼일 적량	질지(秩至) 가선(嘉善)	문요(文堯)	상포(桑圃)
이규화(李圭華)	삼일 적량	가선대부(嘉善大夫)	중여(重汝)	죽헌(竹軒)
이춘영(李春榮)	삼일 적량	질지(秩至) 통정(通政)	경숙(敬淑)	백은(柏隱)
임완묵(林完默)	여수	통정대부(通政大夫)	경욱(京旭)	
장규원(張圭遠)	삼일 상암	질지(秩至) 통정(通政)	문여(文汝)	
장창상(張昌相)	삼일 상암	가선대부(嘉善大夫)	영화(永化)	농곡(農谷)
정극수(丁極洙)	여수	질지(秩至) 가선(嘉善)	내서(乃瑞)	매은(梅隱)
정수수(丁鍊洙)	삼일 작산	통정대부(通政大夫)	정화(正化)	
추기순(秋己順)	화양 이목	통정대부(通政大夫)	성세(性西)	계암(溪庵)
홍종익(洪鍾翼)	삼일 호명	질지(秩至) 통정(通政)	오겸(五謙)	
황진수(黃震秀)	쌍봉 내동	통정대부(通政大夫)	준문(俊文)	봉암(鳳庵)

제8절 증직(贈職)

증직이란 공신, 충신, 효자 및 학덕이 높은 사람들에게 죽은 뒤에 벼슬을 주거나 높여주어 영예를 누리게 하는 제도임.

성명	출신지	관직	자(字)	호(號)
강만주(姜萬周)	울촌 상여	통정대부(通政大夫)	영지(榮之)	송산(松山)
강태회(姜太會)	여수	통정대부(通政大夫) 오위도총부부총관(五衛都總府副總管)	경서(敬瑞)	해은(海隱)
공례동(孔禮東)	미평	통정대부(通政大夫)	사언(士彦)	봉은(鳳隱)
곽사형(郭社衡)	여수	좌승지(左承旨)	경해(敬河)	해은(海隱)
구태현(具台鉉)	소라 봉두	가선대부(嘉善大夫)	응천(應天)	운곡(雲谷)
김귀재(金貴載)	화양 장척	가선대부(嘉善大夫)	귀성(貴星)	
김규원(金圭源)	울촌 봉정	통정대부(通政大夫)	재명(在明)	동곡(桐谷)
김상중(金尙重)	울촌 외진	통정대부(通政大夫)	보익(寶益)	석초(石樵)
김세경(金世慶)	삼일 묘도	통정대부(通政大夫)	사길(士吉)	해은(海隱)
김재관(金再官)	만홍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	의지(義之)	월암(月菴)
김중채(金仲彩)	소라 봉두	통정대부(通政大夫)	명종(名鍾)	묵암(默庵)
김창욱(金昌旭)	삼일 묘도	통정대부(通政大夫)	평욱(平旭)	초은(樵隱)
김호영(金浩英)	만홍	통정대부(通政大夫)	치일(致一)	농산(農山)
박신득(朴信得)	울촌 봉전	가선대부(嘉善大夫)	신수(信叟)	매곡(梅谷)
박중렬(朴重烈)	울촌내리	호조참판(戶曹參判)	대지(大志)	
박헌봉(朴憲奉)	삼일 묘도	통정대부(通政大夫)	경선(敬先)	운경(耘耕)
배응두(裵膺斗)	삼일 월내	공조참의(工曹參議)	익지(翼志)	
배재천(裵在千)	소라 대포	가선대부(嘉善大夫)	민서(珉瑞)	농은(農隱)
백상흥(白尙興)	울촌 연화	통정대부(通政大夫)	광오(光五)	운봉(雲峯)
백이복(白而復)	울촌 연화	통정대부(通政大夫)	응천(應贊)	청천(晴川)
서관순(徐寬淳)	울촌 조화	가선대부(嘉善大夫)	자문(自文)	
서도순(徐道純)	울촌 조화	통훈대부(通訓大夫)	순옥(純玉)	산은(山隱)
서상식(徐相式)	울촌 조화	가선대부(嘉善大夫)	양노(良老)	해산(海山)
서용호(徐龍昊)	미평	가선대부(嘉善大夫)	경집(京軌)	요산(樂山)
서용의(徐瀟義)	울촌 조화	통정대부(通政大夫)	성겸(成謙)	
서희규(徐禧奎)	쌍봉 시전	가선대부(嘉善大夫)	찬홍(贊洪)	추포(秋圃)
오유욱(吳瑜郁)	소라 마산	호조참판(戶曹參判)	내진(乃珍)	굴헌(橘軒)
오정모(吳正模)	소라 마산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태지(泰智)	자운(自耘)
위천정(魏天曄)	울촌 신대	참의(參議)	자성(子成)	
윤상오(尹相午)	삼일 낙포	좌승지(左承旨)	학중(學仲)	죽헌(竹軒)
이경호(李慶祜)	삼일 적량	가선대부(嘉善大夫)	내정(乃亭)	송재(松齋)

이달권(李達權)	삼일 적량	공조참의(工曹參議)	화열(化烈)	성재(省齋)
이상립(李尙立)	울촌 삼산	가선대부(嘉善大夫)	옥현(玉鉉)	농은(農隱)
이재옥(李在玉)	남면 연도	가선(嘉善) 오위장(五衛將)	영옥(永玉)	평해(平海)
이재용(李在容)	울촌 삼산	승지(承旨)	의여(義汝)	둔재(澗齋)
이종부(李琮阜)	삼일 적량	가선대부(嘉善大夫)	자순(子巡)	남봉(南峯)
이진근(李震根)	여수	가선대부(嘉善大夫)	만근(萬根)	매포(梅圃)
임두옥(林斗玉)	남면 유송	가선대부(嘉善大夫) 중추부사(中樞府事)	덕서(德瑞)	야은(野隱)
임문상(林文相)	화정 제도	가선대부(嘉善大夫)	내우(乃又)	
임병무(林炳武)	화정 백야	가선(嘉善) 오위장(五衛將)	광협(光夾)	
임병술(林炳茂)	화정 제도	이판(吏判)	응술(應茂)	해은(海隱)
정립(丁立)	쌍봉 웅천	음(陰) 예빈주부(禮賓主簿) 증(贈) 병참(兵參)	유보(有寶)	운암(雲巖)
정귀련(鄭貴璉)	소라 봉두		재수(載洙)	추파(秋坡)
정안현(丁安鉉)	오천	호조참판(戶曹參判)	지원(之元)	송계(松溪)
정운수(丁運洙)		통정대부(通政大夫)	달윤(達允)	송고(松阜)
차병윤(車炳輪)	울촌 구암	호조참판(戶曹參判)	응일(應一)	가현(可軒)
최상철(崔相澈)	울촌 중흥	통정대부(通政大夫)	익문(益文)	요산(樂山)
최세철(崔世徹)	울촌 중흥	가선대부(嘉善大夫)	익삼(益三)	석강(石岡)
최원식(崔元植)	울촌 중흥	현릉참봉(顯陵參奉) 동몽교관(童蒙敎官)	민선(敏先)	송계(松溪)
최정식(崔鎭植)	울촌 중흥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	정노(正老)	죽파(竹坡)
황이성(黃理性)	쌍봉 내동	통사랑(通仕郎)	찬중(贊仲)	농은(農隱)
황인수(黃仁秀)	쌍봉 반월	가선대부(嘉善大夫)	내언(乃彦)	월암당(月岩堂)
황팔수(黃八秀)	쌍봉 내동	가선대부(嘉善大夫)	윤익(允益)	월파(月坡)

제9절 수직(壽職)

수직은 80세 이상 관원 및 90세 이상의 백성에게 벼슬을 내림을 말함.

성명	출신	관직	자(字)	호(號)
김운룡(金潤龍)	미평	통덕랑(通德郎)	문언(文彦)	
문세찬(文世贊)	쌍봉 웅천		내화(乃華)	지전(芝田)
조기열(趙基悅)	미평	가선대부(嘉善大夫)	사홍(士洪)	
정시학(丁時學)	오천	가선대부(嘉善大夫)	성여(聖汝)	서헌(瑞軒)
박업동(朴業同)	소라 대곡	가선대부(嘉善大夫)	동환(東煥)	추죽(秋竹)
정수인(丁壽仁)	율촌 평촌		성성(聖成)	용정(龍汀)
유문환(柳文煥)	율촌	통정대부(通政大夫)	군실(君實)	
조기홍(趙基弘)	미평	통정대부(通政大夫)	사집(士集)	
장운하(張胤河)	소라 복촌	가선대부(嘉善大夫) 중추부사(中樞府事)	치하(致河)	덕헌(德軒)
김현충(金顯忠)	쌍봉 소호	가선대부(嘉善大夫)	인집(仁集)	안재(安齋)
최권현(崔權顯)	율촌 중흥	통정대부(通政大夫)	경삼(敬三)	유겸(惟兼)
곽필흥(郭弼興)	둔덕	선략장군(宣略將軍) 용양위(龍驤衛) 부사과(副司果)	호량(虎亮)	
박임진(朴林鎭)	여수	절충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수림(秀林)	
김덕홍(金德弘)	삼일 월내	가선대부(嘉善大夫)		
오신언(吳愼言)	율촌 신산	통정대부(通政大夫)	맹인(孟仁)	송보(宋寶)
서훈일(徐訓日)	쌍봉 웅천	가선대부(嘉善大夫)		
김운형(金潤亨)	만흥	가선대부(嘉善大夫)	준백(俊伯)	송암(松庵)
박익환(朴翼煥)	율촌 내리	통정대부(通政大夫)	여삼(汝三)	
도필한(都弼漢)	화양 원모	통정대부(通政大夫)	충오(忠五)	월정(月汀)
주응량(朱應良)	삼일 화치	가선대부(嘉善大夫)	성언(聖彦)	화산(華山)
최진만(崔鎭萬)	율촌 중흥	통정대부(通政大夫)	화집(化集)	석암(石庵)
배정두(裨定斗)	삼일	가선대부(嘉善大夫)	성약(聖若)	
유동신(柳東新)	율촌 평촌	통정대부(通政大夫)	명여(明汝)	
최형록(崔衡祿)	여수	가선대부(嘉善大夫)	득형(得衡)	
장명권(張孟權)	소라 당촌	통정대부(通政大夫)		
김창호(金昌昊)	삼일 신덕	통정대부(通政大夫)		
문운필(文潤弼)	쌍봉 웅천	통정대부(通政大夫) 절충장군(折衝將軍)	인섭(仁燮)	근재(近齋)

문복련(文福連)	삼일 화치	가선대부(嘉善大夫)		
주장옥(朱章玉)	삼일 화치	통정대부(通政大夫)	사홍(士洪)	
정돈규(丁墩圭)	쌍봉 응천	통정대부(通政大夫)		
김영화(金永華)	소라 달천	가선(嘉善)겸 오위장(五衛將)	사유(士儒)	죽산(竹山)
최진현(崔鎭玟)	문수	통정대부(通政大夫)	상형(象衡)	
장국원(張國遠)	오천	통정(通政)부호군(副護軍)	경권(敬權)	
차병옥(車炳玉)	울촌 학서	통정대부(通政大夫)	윤백(允伯)	송정(松亭)
김재박(金再璞)	쌍봉 소호	가선대부(嘉善大夫)	여량(汝良)	백은(柏隱)
김영간(金永干)	소라 달천	가선대부(嘉善大夫)	여행(汝行)	사은(沙隱)
박찬익(朴贊益)	삼일 낙포	통정대부(通政大夫)	지중(志中)	청계(淸溪)
심유지(沈裕之)	쌍봉 시전	통정(通政)부호군(副護軍)	이정(利貞)	규현(葵軒)
황택연(黃宅淵)	쌍봉 내동	통정대부(通政大夫)	화집(化集)	송재(松齋)
최정철(崔正澈)	울촌 중흥	통정대부(通政大夫)	국명(國明)	송산(松山)
황기연(黃奇淵)	쌍봉 내동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언(以彦)	
남현중(南鉉宗)	오림	가의대부(嘉義大夫)	응지(應志)	
최실현(崔實賢)	울촌 중흥	가선대부(嘉善大夫)	여경(汝敬)	봉암(鳳庵)
정종양(丁鍾陽)	오림	가선대부(嘉善大夫)	경백(京伯)	
남치환(南致煥)	소라 대포	통정대부(通政大夫)	윤길(允吉)	매정(梅亭)
최시갑(崔始甲)	울촌 중흥	통정대부(通政大夫)	익수(益壽)	
노사헌(魯士憲)	여수	가선대부(嘉善大夫)	여장(汝章)	인천(仁泉)
정중서(丁鍾序)	쌍봉 응천	통정대부(通政大夫)	지곤(志坤)	송현(松峴)

제10절 음직(蔭職)

음직이란 과거를 거치지 않고 다만 조상의 혜택으로 얻은 관직을 말함.

성명	출신	관직	자(字)	호(號)
박의현(朴義鉉)	울촌 내리	가선대부(嘉善大夫)	민오(珉五)	초은(樵隱)
최경추(崔擎樞)	쌍봉 봉계	통정대부(通政大夫)		죽포(竹圃)
정원영(鄭琿榮)	소라 현천	통사랑(通仕郎)으로 가감역관(假監役官)	낙현(樂賢)	
장지상(張址相)	화양 옥적	충훈부(忠勳府)의 도사(都事)	성묵(性默)	란재(蘭齋)
정창현(鄭昌鉉)	소라 현천	장례원(掌禮院)의 전사(典祀)	윤백(倫伯)	현곡(玄谷)

이민홍(李敏洪)	여수	통정(通政)부호군(副護軍)	윤경(允敬)	봉암(鳳庵)
장병삼(張炳三)	화양 옥적	통덕랑(通德郎)	기환(基奘)	옥천(玉川)
정유신(丁惟慎)	쌍봉 웅천	병조정랑(兵曹正郎)(정5품)	자성(子誠)	송촌(松村)
황재(黃梓)	쌍봉 내동	가선(嘉善) 첨지(僉知)	민재(敏哉)	
류동호(柳東瑚)	울촌 평촌	가선대부(嘉善大夫)		
정의신(丁義慎)	쌍봉 웅천	형조참의(刑曹參議)(贈職)	자직(子直)	송애(松崖)
남사원(南士遠)	소라 대포	통정대부(通政大夫)	자장(子章)	죽계(竹溪)
정사(丁泗)	쌍봉 웅천	가선(嘉善)겸 병조참판(兵曹參判)		

제1절 사환(仕宦)

사환이란 벼슬한 사람들을 말함.

성명	출신	관직	자(字)	호(號)
유서교(劉瑞巧)	울촌 외진	안음현감(安陰縣監)	중백(仲伯)	
방환진(房煥震)	삼일 묘도	감찰(監察)	명선(明先)	
이인후(李仁厚)	화정 달천	평산부사(平山府使)	민발(敏發)	
박수립(朴杼立)	울촌 봉전	가선대부(嘉善大夫) 중추부사(中樞府使)	명중(明重)	둔재(遜齋)
김성흠(金聲翕)	미평	절충장군(折衝將軍)	성옥(成玉)	
심두원(沈斗元)	둔덕	선략장군(宣略將軍)	인보(仁甫)	
정원(鄭瑗)	쌍봉 웅천	가선대부(嘉善大夫), 중추부사(中樞府使)	경백(敬伯)	
홍신(洪愼)	삼일 호명	통정(通政) 부호군 副護軍	대근(大謹)	
정석량(丁碩良)	쌍봉 웅천	통정(通政) 부호군 副護軍	인중(仁中)	
위경만(魏景萬)	울촌 봉두	가선대부(嘉善大夫), 중추부사(中樞府使)	여숙(汝淑)	운곡(雲谷)
정수정(丁壽貞)	오천	통정(通政) 부호군 副護軍	응인(應人)	인재(忍齋)
윤표(尹杓)	오천	오위장(五衛將)	희배(喜培)	석천(石泉)
서준영(徐宗允)	울촌 학서	통정(通政) 호군(護軍)	덕흥(德興)	초산(草山)
박천좌(朴天佐)	여수	적포별장(積浦別將)		
위산보(魏山寶)	울촌 신대	현령(縣令)		
오필영(吳弼英)	울촌 후산	공조참의(工曹參議)	원장(元章)	

정우규(丁宇圭)	쌍봉 웅천	중추(中樞)	우채(宇采)	
김재해(金在海)	삼일 월내	가선(嘉善)중추(中樞)	대연(大淵)	
이응연(李應淵)	울촌 취적	승지(承旨)	윤문(允文)	만산(晩山)
장응원(張應遠)	오천	가선(嘉善)중추(中樞)	응칠(應七)	일재(逸齋)
최인철(崔仁喆)	소라 관기	활인서별제(活人署別提)		
서운학(徐潤學)	쌍봉 시전	동지중추(同知中樞)	명언(明彦)	이림(履臨)
주재양(朱再陽)	울촌 월평	통정(通政)부호군(副護軍)	윤보(允甫)	윤암(允庵)
장석지(張錫智)	여수	가선(嘉善)중추(中樞)	지현(智賢)	
곽창기(郭昌基)	여수	참의(參議)	사길(士吉)	지암(芝菴)
김지옥(金之玉)	울촌 봉정	통정대부(通政大夫)	인백(仁伯)	옥봉(玉峯)
박기순(朴基舜)	쌍봉 화산	부호군(副護軍)	여현(汝賢)	
김기수(金基洙)	쌍봉 시전	동중추(同中樞)	화인(化仁)	
최치신(崔致愼)	여수	사과(司果)		신재(愼齋)
주봉휴(朱鳳休)	울촌 월평	가선(嘉善)중추(中樞)	성신(聖信)	농은(農隱)
오달모(吳達模)	울촌 신산	좌부승지(左副承旨)		농포(農圃)
서익표(徐益表)	삼일 평사	가선대부(嘉善大夫)	문옥(文玉)	매포(梅圃)
최도숙(崔度淑)	삼일 월내	참사(參事)	문호(文浩)	후송(後松)
주동옥(朱東玉)	삼일 화치	통정(通政)호군(護軍)	사유(士有)	
김국영(金國永)	여수	가선(嘉善)중추(中樞)	급경(及敬)	야천(野川)
김시채(金時采)	삼일 작산	통정(通政) 부호군(副護軍)	경숙(敬淑)	공호(拱湖)
서복순(徐福淳)	쌍봉 화산	가선(嘉善) 오위장(五衛將)	치백(致伯)	울산(栗山)
장달원(張達遠)	화양 옥적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서운모(徐潤模)	쌍봉 시전	가선(嘉善)첨추(僉樞)	성언(聖彦)	가정(稼亭)
유진채(劉震彩)	울촌 산곡	가선대부(嘉善大夫), 중추부사(中樞府使)	중보(重甫)	
공혁동(孔赫東)	소라 차동	통정(通政), 군자감정(軍資監正)	명섭(明攝)	신계(新溪)
서대순(徐大淳)	삼일 월하	장릉참봉(長陵參奉)	경직(京直)	운암(耘庵)
정형규(丁珩圭)	만성	동중추(同中樞)	달인(達仁)	남파(南坡)
천기완(千奇玩)	삼일 월하	도정(都政)	화지(化之)	영포(靈圃)
박봉래(朴鳳來)	문수	가선대부(嘉善大夫)	내익(乃益)	
서상욱(徐相旭)	쌍봉 화산	돈령부(敦寧府) 도정(都正)	경언(景彦)	농묵(農默)
황의연(黃義淵)	여수	사과(司果)	중숙(重淑)	
심태현(沈太鉉)	삼일 모도	도승지(都承旨)	진옥(進玉)	호은(湖隱)
홍성천(洪性天)	삼일 호명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경보(敬甫)	초정(樵亭)
곽덕준(郭德俊)	여수	절충장군(折衝將軍)	내경(乃慶)	
김천혁(金天赫)	만성	선공가감역(繕工假監役)	평숙(平淑)	죽현(竹軒)

장익상(張益相)	오천	교관(敎官)	익삼(益三)	운암(雲岩)
서윤관(徐潤寬)	쌍봉 시전	통정(通政 부호군(副護軍))	치언(致彦)	아은(野隱)
배봉성(裨鳳成)	삼일 월내	가선(嘉善)중추(中樞)	봉여(奉汝)	
정겸수(丁兼洙)	쌍봉 웅천	종사랑(從仕郎)	의섭(義燮)	남계(南溪)
서영복(徐永福)	쌍봉 웅천	가선(嘉善)첨추(僉樞)	달서(達瑞)	농암(農巖)
김상희(金尙禧)	만홍	가선(嘉善) 오위장(五衛將)	극서(極瑞)	계강(桂岡)
주윤석(朱允錫)	삼일 화치	동몽교관(童蒙敎官)	백여(伯汝)	회정(晦亭)
정영규(丁瑛圭)	오천	충훈부도사(忠勳府都事)	명인(明仁)	남파(南坡)
김창혁(金昌赫)	삼일 적량	통정(通政)호군(護軍)	죽암(竹庵)	
김영일(金英逸)	화양 장척	가선(嘉善) 오위장(五衛將)	문오(文五)	일재(逸齋)
박영래(朴英來)	쌍봉 사벽	가선(嘉善) 오위장(五衛將)	국서(國瑞)	남은(南隱)
김국문(金國文)	쌍봉 소호	통정(通政) 부호군(副護軍)	인지(仁之)	춘포(春圃)
이운석(李潤錫)	둔덕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중화(仲化)	죽파(竹坡)
박래성(朴來晟)	문수	가선(嘉善)첨추(僉樞)	영여(永汝)	어은(鰲隱)
서민규(徐玟奎)	쌍봉 웅천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윤직(允直)	추강(秋江)
문용규(文龍奎)	쌍봉 웅천	통정(通政) 호군(護軍)	명서(明瑞)	농은(農隱)
정종봉(丁鍾奉)	삼일 낙포	도정(都政)	군일(君一)	포은(浦隱)
배봉현(裨鳳憲)	삼일 월내	통정(通政) 비서승(秘書丞)	정오(正午)	월초(月樵)
황이성(黃理性)	쌍봉 내동	통사랑(通仕郎)		농은(農隱)
김완두(金完斗)	화양 옥적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인협(仁俠)	옥계(玉溪)
김현근(金顯根)	여수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원섭(元涉)	소산(小山)
이흥옥(李興玉)	삼일 남수	동중추(同中樞)	원서(元瑞)	남암(南岩)
서준흠(徐準欽)	삼일 남수	동지중추(同知中樞)	내숙(乃淑)	운파(雲坡)
박준식(朴準植)	쌍봉 도원	오위장(五衛將)	채규(彩圭)	낙포(樂圃)
배상복(裨尙復)	화양 서촌	통정(通政) 좌승지(左承旨)	문익(文益)	약산(葯山)
김상윤(金尙允)	화양 장수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상집(祥執)	남파(南坡)
주봉황(朱鳳黃)	울촌 청대	가선(嘉善) 오위장(五衛將)	덕인(德仁)	
김기묵(金基默)	울촌 봉정	가선(嘉善) 오위장(五衛將)	내성(乃成)	수헌(水軒)
서병인(徐丙仁)	삼일 진례	참봉(參奉)	선경(善敬)	농은(農隱)
최창모(崔昌模)	여수	장사랑(將士郎), 충훈부도사(忠勳府都事)	자선(子宣)	난재(蘭齋)
이우배(李遇培)	소라 대포	중추부사(中樞府使)	필윤(必允)	춘당(春塘)
서민순(徐珉淳)	소라 대곡	오위장(五衛將)兼동지(同知)	행옥(幸玉)	송파(松坡)
김문현(金汶鉉)	삼일 화치	가선(嘉善) 첨추(僉樞)	한서(漢瑞)	
임영규(林英圭)	화양 원포	가감역(假監役)	규조(圭杵)	석봉(石峯)
장지형(張志炯)	오천	통정대부(通政大夫)	화숙(化淑)	농암(農庵)

김관현(金寬玄)	소라 진목	통정(通政) 호군(護軍)	윤언(允彦)	
공도영(孔道榮)	삼일 상암	교관(敎官)	치범(致範)	청호(淸湖)
최진옥(崔鎭鈺)	만홍	오위장(五衛將)	달지(達志)	선암(宣菴)
김경도(金敬道)	삼일 화치	통정대부(通政大夫)	순홍(巡洪)	중은(中隱)
장필원(張必遠)	삼일 상암	가선대부(嘉善大夫)	선오(善吾)	
문주태(文柱泰)	삼일 월하	통훈대부(通訓大夫)	성화(聖和)	
황진성(黃振性)	쌍봉 반월	동몽교관(童蒙敎官)	중문(仲文)	죽헌(竹軒)
정지환(丁志煥)	미평	오위장(五衛將)	국서(國瑞)	
심연택(沈延澤)	삼일 묘도	도사(都事)	경언(敬彦)	농암(聾菴)
이기용(李起鎔)	소라 복산	건원릉참봉(建元陵參奉)	현일(賢日)	일심(一心)
이만렬(李萬烈)	삼일 낙포	도사(都事)	춘용(春容)	
김길현(金吉鉉)	울촌 봉두	내부주사(內部主事)	명오(明五)	송재(松齋)
서병철(徐丙澈)	여수	의관(議官)	현오(炫午)	매은(梅隱)
김용필(金容弼)	삼일 상암	혜릉참봉(惠陵參奉)	사숙(仕叔)	송천(松川)
차병순(車炳璠)	울촌 구암	장릉참봉(長陵參奉)	경오(景五)	
곽경환(郭景煥)	여수	오위장(五衛將)	경은(敬殷)	
이운필(李潤勳)	화양 소장	통정(通政) 호군(護軍)	성실(成實)	구은(龜隱)
김용찬(金容贊)	삼일 토산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광섭(光燮)	초은(樵隱)
심인택(沈璘澤)	삼일 묘도	중추부사(中樞府使)	채수(彩洙)	농암(聾岩)
장지순(張志璠)	오천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영환(永煥)	송암(松菴)
최상렬(崔相烈)	소라 덕곡	통정(通政) 호군(護軍)	내익(乃益)	국헌(菊軒)
김규현(金圭鉉)	삼일 화치	교관(敎官)	내준(乃俊)	석천(石川)
정임수(丁任洙)	쌍봉 웅천	부호군(副護軍)	치서(致瑞)	노포(老圃)
강영준(姜永俊)	여수	영릉참봉(英陵參奉)	선유(善有)	
문영안(文永安)	쌍봉 웅천	통정대부(通政大夫)	홍언(弘彦)	우헌(愚軒)
심찬택(沈瓚澤)	삼일 묘도	동몽교관(童蒙敎官)	치언(致彦)	효당(孝堂)
서한갑(徐漢甲)	삼일 두암	돈령부도정(敦寧府都政)	형순(炯順)	
장종원(張宗遠)	만홍	통정대부(通政大夫) 군자감정(軍資監正)	형오(亨五)	농은(農隱)
배관호(裵管濠)	삼일 월내	도정(都正)	화열(和烈)	월계(月溪)
장지병(張志炳)	오천	영릉참봉(英陵參奉)	성운(性云)	매헌(梅軒)
이규수(李圭洙)	삼일 적량	비서승(秘書丞)	경하(敬河)	죽포(竹圃)
김창현(金昌鉉)	삼일 묘도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서준(瑞俊)	초은(樵隱)
주형순(朱衡淳)	울촌 청대	돈령(敦寧)	영환(永煥)	
김경정(金敬正)	삼일 화치	가선(嘉善) 중추(中樞)	우홍(佑洪)	화봉(華峯)
안석태(安錫台)	삼일 당산	참봉(參奉)		송암(松岩)
황례수(黃禮秀)	삼일 화치	참봉(參奉)	태홍(泰弘)	

강채수(姜彩秀)	삼일 평어	통정(通政) 호군(護軍)	계문(啓文)	해산(海山)
최신호(崔信湖)	삼일 낙포	돈령(敦寧)	영매(永玫)	
박근중(朴瑾鍾)	삼일 묘도	동몽교관(童蒙敎官)	태화(泰和)	청파(淸坡)
최문식(崔文植)	울촌 중흥	가선(嘉善) 중추(中樞)	윤여(允汝)	
유자형(柳子馨)	삼일 낙포	호참(戶參)	경필(敬弼)	농은(農隱)
장채상(張彩相)	삼일 상암	통정(通政) 호군(護軍)	학삼(學三)	농은(農隱)
주진유(朱鎭裕)	문수	참봉(參奉)	윤신(允信)	
김기원(金基元)	화양 서촌	동중추(同中樞)	원범(元範)	농은(農隱)
박지창(朴致章)	돌산	통정(通政) 부호군(副護軍)	치덕(致德)	
김봉섭(金奉燮)	돌산 월암	화릉참봉(和陵參奉)		송헌(松軒)
강경서(姜敬瑞)	돌산 신복	통정(通政) 부호군(副護軍)	경동(敬東)	신정(新井)

제12절 유일

유일이란 벼슬에 관심이 없이 안빈낙도의 생애를 보낸 분들을 말함.

성명	출신	관직	자	호
유태영(柳泰泳)	울촌 평촌		덕함(德涵)	반구정(伴驅亭)
정하(丁夏)	쌍봉 송현			
주일록(朱日祿)	울촌 월명		군일(君一)	무산(靄山)
위천주(魏贊周)	울촌 봉두		군범(君範)	영재(英齋)
전후성(全厚性)	삼일 월내			영담(映潭)
이상화(李尙華)	울촌 삼산		옥계(玉溪)	지산(芝山)
장지필(張趾弼)	화양 옥적		막필(漠弼)	만취(晩翠)
강시석(姜時碩)	울촌 상여		민우(珉又)	은초(隱草)
김검(金檢)	화양 서촌		화산(和山)	
이재진(李載震)	울촌 취적		인현(仁賢)	송림(松林)
공혜신(孔惠臣)	삼일 상암		인술(仁述)	권현(眷軒)
정수송(丁壽松)	쌍봉 웅천		우백(友柏)	둔재(遁齋)
유선명(劉善命)	울촌 두봉		광준(光俊)	두암(斗岩)
백응호(白應虎)	울촌 연소		기운(起雲)	은암(隱岩)
박도량(朴道良)	울촌 내리		도량(道良)	
오명갑(吳命甲)	소라 마산		윤경(允慶)	월정(月汀)
강재상(姜在尙)	울촌 봉전		대인(大仁)	봉은(鳳隱)

서동화(徐東華)	쌍봉 시전		사옥(士玉)	옥산(玉山)
김시택(金始宅)	화양 인양		치안(致安)	효우당(孝友堂)
정동현(鄭東賢)	울촌 옥적			모헌(模軒)
강계래(姜啓來)	울촌 상여		희빈(希彬)	위당(葦堂)
위정서(魏禎瑞)	울촌 봉두		여옥(汝玉)	봉암(鳳庵)
임사길(林士吉)	여수 충무		자길(子吉)	
김두천(金斗天)	울촌 봉두		윤삼(允三)	성재(醒齋)
문동철(文東哲)	소라 사곡		춘경(春卿)	사은(沙隱)
오안욱(吳安郁)	소라 마산		내섭(乃攝)	존심재(存心齋)
정혁규(丁奕圭)	쌍봉 응천		도환(道煥)	남은(南隱)
오문석(吳文錫)	울촌 후산		경일(敬一)	덕암(德庵)
위운석(魏運錫)	울촌 신대		원여(元汝)	무정(鷗亭)
강재철(姜在哲)	울촌 상여		성서(聖瑞)	춘강(春岡)
박중선(朴重宣)	울촌 내리		군지(君志)	
위영선(魏榮先)	울촌 신대		운오(運五)	신암(新庵)
오치규(吳致規)	울촌 후산		성구(聖九)	난곡(蘭谷)
박원현(朴源鉉)	울촌 내리		사흥(士興)	죽산(竹山)

제13절 효열

■ 효자

성명	출신	효행 내용	비고
강기희(姜基會)	울촌 상여	친병에 허벅지살을 도려내 달여서 드려 연명시킴.	재필(再弼)의 자
강도생(姜徒生)	화정 화산	팔순 노부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하여 모심.	성화(性化)의 자
강봉문(姜鳳文)	여수시	아버지에 대한 효행이 지극.	
강성신(姜性信)	쌍봉 학용	친환위급(親患危急)에 단지 득소(斷指得髓)	재형(在亨)의 자
강영상(姜永相)	울촌 산려	친환(親患)에 단지주구하고 정우(丁憂)에 거려(居廬) 3년	기회(基會)의 자
강윤기(姜胤琪)	울촌 봉전	모환(母患)에 열지주구(裂指注口)	주혁(周赫)의 자
강팔문(姜八文)	삼일 상암	양친발병 단지주혈(斷指注血), 허벅다리 살을 깎아 먹여 연명시킴.	필봉(弼鳳)의 자
곽태석(郭泰錫)	삼일 중흥	모병(母病)에 적지주혈(斫指注血)	옥원(秘源)의 자

김감식(金甘錫)	남면 유송	아버지의 증기 고름을 3년이나 빨았음.	방정(芳靖)의 자
김경식(金京植)	돌산 죽포	모친 치료차 육지로 이동하다 배가 전복되어 익사	
김기채(金基采)	화양 장척	부상에 거려(居屨) 3년	수행(壽行)의 자
김동년(金東年)	쌍봉 웅천	모병(母病) 30년에 손수 음식을 만들어 드림	선재(宣齋)의 자
김두석(金斗錫)	화양 장척	눈이 먼 어머니의 지팡이 노릇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림	상언(祥彦)의 자
김문현(金文炫)	돌산 근내	노모를 극진히 모심.	
김연각(金廷珩)	돌산	모재(母子)가 려묘(廬墓) 3년하고 모병(母病)에 단지독소(斷指得髓)	문기(文起)의 후손
김용관(金容琯)	화양 안정	부모의 발병에 증기를 빨아 낮게 하고 열지주혈(裂指注血)	성규(性圭)의 자
김용기(金溶淇)	화양 안정	모병에 두 번이나 허벅지살을 도려내어 먹이고 회생시킴	재광(再光)의 자
김유석(金有錫)	화정 백야	효자이자 농촌지도사	
김육규(金六圭)	남면 두모	부종(父腫)에 피고름을 빨아 낮게 했음.	운서(云瑞)의 자
김인권(金麟權)	화양 안정	친환위독(親患危篤)에 지혈(指血)로 연명케 함	용기(溶淇)의 자
김일출(金日出)	여수	아버지에 대한 효행이 지극	
김정각(金廷珩)	돌산읍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	
김정순(金正淳)	화양 장척	모병에 작지주혈(斫指注血)	치영(致瑛)의 자
김중두(金琮斗)	쌍봉 소호	부병이 위독할 때 단지로 회소케 하고 유언을 마치도록 함.	창섭(昌燮)의 자
김종윤(金宗潤)	삼일 낙포	모환(母患)에 단지주혈	현규(賢圭)의 자
김준석(金俊碩)	삼일 묘도	모친 실명에 20여년을 갈잡이로 봉양.	창규(昌圭)의 자
김지목(金祉玉)	삼산 서도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극진	
김지혁(金智奕)	여수	대변을 맛보아 약을 쓰고 부모상에 거려(居屨) 3년	
김장혁(金章奕)			
김찬기(金燦基)	삼산면	아버지에 대한 효행이 지극	
김찬도(金贊道)	울촌 봉정	려묘(廬墓) 3년	기영(基榮)의 자
김태연(金泰連)	화양 장척	극한혹서를 무릅쓰고 6년간 조석으로 성묘하니 그 자리에 물이 들지 않았음.	상윤(尙允)의 자
김한성(金漢星)	여수 근자	아버지의 위중한 병세를 살피기 위하여 그 대변을 맛보고 단지주혈(斷指注血)로 회생시킴.	여중(汝重)의 후손
김형재(金炯在)	화양 장등	모친의 극진한 병간호	윤조(允祚)의 자
김회기(金繪基)	화양 안포	소년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홀로 계신 어머니를 정성껏 봉양	
남현권(南鉉權)	소라 마륜	노령에도 불구하고 재취(再娶)를 고사하니 몸소 부업일을 맡아 맛있는 음식을 해드림.	응우(應佑)의 자

문병인(文炳仁)	소라 사곡, 여수 둔덕	어머니의 증기를 입으로 빨아 쾌유시키고 지혈주구(指血注口)로 병간호함.	맹권(孟權)의 자, 유선(有善)의 자
문진환(文鎭桓)	쌍봉옹천	노모에 조석으로 맛있는 음식을 해드림.	여옥(汝玉)의 자
민치기(閔致機)	삼일 적량	려모(虜墓) 3년	심운(審言)의 후손
박병선(朴炳善)	삼일 적량	부병에 열지주혈(裂指注血)하고 모병 위급 시에도 단지주혈(斷指注血)	봉래(鳳來)의 자
박윤하(朴潤夏)	삼산 유촌	반포지효로 부친이 드시고 심은 음식으로 효를 다함.	
박종조(朴鍾祚)	여수	3년 동안 비바람을 피하지 않고 매일 아침 성묘	본규(本圭)의 자
박종엽(朴重葉)	돌산읍	단지수혈 등으로 숨을 거둔 아버지를 살림.	
방정규(房正圭)	삼일 묘도	어머니 증기를 입으로 핥아 낮게 함.	수홍(秀弘)의 후손
방진의(房鎭義)	삼일 묘도	거려(居虜) 3년	계홍(季洪)의 후손
백경흠(白鏡欽)	소라 봉두	단지할고(斷指割股)로 모병 간호	기식(基植)의 자
변창렬(潘昌烈)	소라 봉두	시묘3년	채원(採遠)의 자
서상갑(徐相甲)	삼일 진례	모병에 단지주구하고 급상(及喪)에 시묘(侍墓)3년	사원(思遠)의 후손
서상엽(徐相曄)	화양 창무	구순 조모가 행보불능하니 좌우부지하였고 별세 시에는 정성껏 장사를 치렀음.	달정(達正)의 자
서선익(徐宣益)	삼일 율하	어머니의 견통(肩痛)에 백약이 무효하여 선몽으로 채약하여 효를 다함.	대순(大舜)의 자
서승모(徐承模)	여수 동정	친병(親病)에 단지주혈(斷指注血)	상운(商雲)의 자
선처흠(宣處欽)	돌산	아버지에 대한 효행이 지극	
심연진(沈延鎭)		부병에 혈지, 회소케하고 엄동에 계(蟹)를 구해 모병을 치료함.	
엄보현(嚴寶鉉)	화양 용주	계모를 생모처럼 받들고 20여 년 동안 조석으로 성묘	재용(在用)의 자
오규형(吳奎亨)	율촌 신산	아버지 임종 시에 단지주혈하고 여묘(虜墓) 3년	흔인(欣人)의 후손
오기묵(吳基默)	율촌 두봉	조부 병환에 단지주구(斷指注口)	형종(亨宗)의 자
오상모(吳尙模)	소라 현천	아버지의 창병에 술개를 구해 쾌유시킴.	효재(孝在) 재(在)의 자
오성모(吳成模)	소라 당촌	열지주혈(裂指注血), 시묘 3년	학신(學臣)의 자
오수환(吳守煥)	소라 현천	아버지의 증기 고름을 빨아주고 열지주혈(裂指注血)의 효성	상모(尙模)의 자
오재두(吳再斗)	소라 현천	부병(父病)에 단지주구(斷指注口)	성화(性和)의 자
유본기(劉本起)	율촌 산곡	호랑이와 술개의 도움으로 삼과 잉어를 얻었고 지극한 효행 실천	재곤(在坤)의 자, 정려(旌闕)있다.
유치봉(俞致鳳)	여수 중앙	부친 병환에 지극정성과 모친 병에 단지 회생케 함	여림(汝霖)의 후손
이경두(李璟斗)	화양 안정	노부 와병에 똥, 오줌을 씻어내고 지극 정성으로 병 간호	태인(太仁)의 자

이규철(李圭哲)	삼일 묘도	부병(父病)에 열지주혈(裂指注血)	석碩의 후손
이기선(李奇善)	울촌 심산	친환에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대소변을 받아냄	규엄(奎堦)의 자
이문오(李文五)	소라 통천	조환(祖患)에 단지주구(斷指注口)	종석(鍾碩)의 자
이순호(李淳濤)	삼일 호명	정성을 다하는 부친의 병간호와 혼정신성을 다함	완색(玩錫)의 자
이윤영(李潤英)	여수 둔덕	모병(母病)에 작지주혈(斫指注血), 정우(丁憂)에 조석성묘(朝夕省墓)	이주(以珠)의 자
이인수(李寅洙)	울촌 취적	친환위극(親患危極)에 단지주구(斷指注口)	문연(文淵)의 자
이재득(李載得)	소라 대포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고 친환(親患)에 할고(割股)	정응(禎應)의 자
이종재(李鍾彩)	삼일 적량	노모 실명에 처와 함께 일심부호(一心扶護)	규소(圭蕭)의 자
이지현(李誌炫)	화양 용주	부친 다리의 종기를 저녁마다 3년간을 입으로 빨아서 간호	성중(誠中)의 후손
이현두(李玄斗)	여수 죽전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	
임병삼(林炳三)	쌍봉 무선	시묘 3년	일상(鎰相)의 자
임윤묵(林倫默)	쌍봉 무선	시묘 3년	일상(鎰相)의 자
장규원(張圭遠)	소라 궁항	친병(親病)에 작지주혈(斫指注血)하고 거려(居廬) 3년	석갑(錫甲)의 자
장기규(張基奎)	소라 당촌	풍우 한서 가리지 않고 조석으로 성묘	윤(潤)의 자손
장기년(張基年)	삼일 상암	봉모지효(奉母至孝)하고 모환(母患)에 작지(斫指), 회소시킴	옥상(玉相)의 자
장모상(張模相)	소라 복촌	노병에 몸져 누워 있는 노모 곁을 떠나지 않고 상분용약(嘗糞用藥)	근원(瑾遠)의 자
장세식(張世植)	울촌 취적	눈이 먼 노모의 병 간호와 대소변을 받아냄	지두(志斗)의 자
장지섭(張志燮)	여수 서교	부친의 병세를 살피기 위해 그 대변을 맛보고 작지주혈(斫指注血)	안세(安世)의 후손
장지찬(張志贊)	삼일 상암	가세가 빈궁했으나 부모의 회환에 성천을 베풀어 즐겁게 해드림	성신(性愼)의 자
장필규(張弼遠)	돌산읍	조부와 부친에 대한 효성이 지극	
정관수(鄭觀洙)	소라 현천	조석으로 부모의 안부 살핌	진화(鎭華)의 자
정상계(鄭相繼)	소라 현천	삭망으로 성묘	
정승수(丁勝洙)	쌍봉 화산	모병(母病)에 단지주구(斷指注口)	침연(鍼淵)의 자
정연수(丁演洙)	삼일 낙포	거려(居廬) 3년	종기(鍾期)의 자
정을엽(丁乙曄)	쌍봉 웅천	여묘(孺墓) 3년	한상(漢尙)의 자
정종훈(丁鍾勳)	쌍봉 가곡	아버지의 종기 고름을 빨아 쾌차	상한(相堯)의 자
정형수(丁亨洙)	여수 오천	부병(父病)에 상분용(嘗糞用)약	태경(泰敬)의 자
조윤환(曹允煥)	여수 덕충	병상의 부친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병 간호	병원(秉原)의 자
주정석(朱正錫)	삼일 화치	모병(母病)에 단지	재선(宰宣)의 자
주정옥(朱精玉)	삼일 화치	친환(親患)에 단지주구(斷指注口)	서량(瑞良)의 자

주정준(朱正俊)	소라면	어머니를 극진히 모심.	
주종석(朱宗奭)	쌍봉 월양	친병(親病) 위독(危篤)에 직지수구(砥指垂口)	봉길(奉吉)의 자
차병헌(車炳憲)	울촌 구암	친병(親病)에 열지주구(裂指注口)	홍주(弘柱)의 자
최낙원(崔洛元)	남면 심장	모환(母患)에 지혈주구(指血注口)	도성(道成)의 자
최원식(崔原植)	여수 문수	어머니 임종에 단지주혈(斷指注血)로 회소	봉삼(奉三)의 자
최재관(崔在官)	소라 덕곡	18세 소년으로서 모병(母病)에 혈지주구(血指注口)	정렬(正烈)의 자
최치봉(崔致鳳)	화정 여자	모병에 단지주혈	경보(京輔)의 자
하명근(河命根)	여수 덕총	여묘(廬墓) 3년	영홍(永洪)의 자
한용권(韓龍權)	여수 신월	양부모에 할고(割股), 단지(斷指)하고 연명케 함.	문철(文喆)의 자
황유수(黃遺秀)	소라 복산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김해김씨 열녀각을 세우고 추모	
황종익(黃鍾翼)	쌍봉 내동	모환에 자기 허벅지의 살을 도려내 달여 드림.	기재(基載)의 자

■ 효부

본 관	父 / 夫	출 신	효 행 내 용
전주이씨	이응연/서달순	삼일 상암	시부모의 노병에 정성 다해 모심.
옥천조씨	조진중/정종표	쌍봉 웅천	부모의 봉양과 내방객의 예의범절을 다함.
진주강씨	강한방/김문옥	화양 청무	구병수년(舅病數年)에 그 효행이 널리 알려져 향 천장(鄉薦狀)을 받았음.
영양천씨		쌍봉 가곡	구병(舅病)에 상분(嘗糞)하고 단지할육(斷指割肉) 하는 효열(孝烈)로 향천장(鄉薦狀)을 받았음.
행주기씨	기경관/오재두	울촌 봉전	시아버지 단지주혈(斷指注血)하는 지극한 효성을 보여 도천장(道薦狀)을 받았음.
전주이씨	이덕원/노희상	여수 관문	부모를 효양(孝養)함이 극진하여 유천장(儒薦狀)을 받았음.
전주이씨	이무중/유홍엽	울촌 두봉	시부모를 정성껏 효봉(孝奉)하고 아이를 애육(愛育)하여 향천장(鄉薦狀)을 받았음.
밀양박씨	박문오/이규옥	삼일 적량	시아머니를 12년동안 정성껏 돌보고 상사(喪事)에 예를 다하니 향천장(鄉薦狀)을 받았음.
밀양박씨	박계환/김문현	삼일 화치	시부모를 효봉(孝奉)하고 남편을 공경하며 자손을 교육시켜 향천장(鄉薦狀)을 받았음.
김해김씨	김명찬/황탁성	쌍봉 주심	시아머니의 불치병의 극진한 간호로 어사(御使)의 천거(薦擧)를 받았음.
김녕김씨	김지문/장봉순	화양 서촌	시부모에 정성을 다하는 효행.
김해김씨	김후택/주봉원	삼일 화치	시부모를 봉양하며 두 아이를 길러 내내 향천장(鄉薦狀)을 받았음.

인동장씨	장우삼/주기순	울촌 신촌	향천장(鄉薦狀)과 효열비(孝烈碑)가 있음.
전주이씨	이종갑/정갑조	삼일 모도	시어머니의 와병(臥病) 7년에 약을 달여 드리고 남편의 실명에 길잡이가 되었음.
달성서씨	서병영/정임수	쌍봉 웅천	시부모를 효도로 봉양하고 남편을 공경하여 향천장(鄉薦狀)을 받았음.
나주임씨	임윤목/정기안	삼일 진례	빈곤한 형편에도 시부모 봉양에 정성을 다함
밀양박씨	박운서/김기운	화양 서촌	27살 청상과부로 효행이 지극하여 향천장(鄉薦狀)을 받았음.
함평이씨	이영백/김화석	쌍봉 웅천	남편의 동침을 입으로 빨아 낮게 하니 향천장(鄉薦狀)을 받았음.
양천허씨	도정진/이원석	삼일 호명	시부모를 봉양하는 지극한 효성으로 향천장(鄉薦狀)을 받았음.
신안주씨	주경운/김일수	삼일 토산	시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효성으로 향천장(鄉薦狀)을 받았음.
문화유씨	유재복/황학성	삼일 화치	효성이 지극하여 향천장(鄉薦狀)을 받았음.
이천서씨	서우성/김종만	삼일 두암	시부모의 병구완과 시모의 치매에 봉양을 다함
밀양박씨	박준우/김내수	화양 세포	시아버지 노병에 밤낮 똥, 오줌을 받아내는 효성을 다하여 향천장(鄉薦狀)을 받았음.
광산김씨	김윤연/강윤경	울촌 봉진	시부모에 대한 효행과 과부로서 자녀교육에 헌신하여 어사의 천거를 받았음.
김해김씨	김정두/이종채	삼일 적량	향천장(鄉薦狀)을 받았으며 그 효행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비를 세웠음.
김해김씨	김창섭/오양환	소라 마산	효봉구고(孝奉舅姑)하고 남편을 공경하였으며 인근의 천거로 향천장(鄉薦狀)을 받았음.
고령신씨	신성태/강종모	화양 세포	시모의 굶은 상처를 입으로 핏아 낮게 하였으며 향천장(鄉薦狀)을 받았음.
김해김씨	김계문/박종두	삼일 적량	시부모의 문안을 살피고 맛있는 음식을 갖추어 각별히 효봉하니 향천장(鄉薦狀)을 받았음.
김해김씨	김창여/정상언	쌍봉 웅천	훈정신성과 봉양으로 효행으로 어사의 천거를 받았음.
신안주씨	주성순/배재명	소라 대포	시부모를 시봉(侍奉)함이 극진하여 향천장(鄉薦狀)을 받았음.
창원정씨	정승수/박종효	소라 죽림	시부모 봉양과 치상에 정성을 다해 향천장(鄉薦狀)을 받았음.
밀양박씨	박양검/徐性孝	삼일 진례	시부모를 효양(孝養)함이 탁이(卓異)하여 향천장(鄉薦狀)을 받았음.

현풍곽씨	곽남숙/김준석	삼일 묘도	시부모의 봉양과 유가적 예의 범절로 향리에서 여러번 상과 추천장(推薦狀)을 받았음.
하동정씨	정표현/김병갑	소라 달천	젊은 나이에 과수가 되어 시부모 봉양에 헌신하여 향천장(鄉薦狀)을 받았음.
목천장씨	장기성/김진록	삼일 화치	시아버지의 갑작스런 상에 예를 다하니 향천장(鄉薦狀)을 받았음.
김해김씨	김찬섭/이덕수	쌍봉 소호	시부의 재혼을 권유하고 가정의 화목으로 향천장(鄉薦狀)을 받았음.
전주이씨		소라 관기	9손의 시어머니를 정성으로 봉양하여 향천장(鄉薦狀)을 받았음.
창원정씨	정용수/주동철	율촌 신촌	시부모의 봉양과 유교적 법도에 따른 치상으로 향천장(鄉薦狀)을 받았음.
남평문씨	문일옥/김학금	율촌 외진	시모의 단치주구와 시부의 봉양으로 향천장을 받았음.
수원백씨	백대복/김두렬	삼일 중흥	노시모를 봉양하고 남편상에 유가적 예를 다하여 향천장을 받았음.
밀양박씨	박홍순/이두영	화암 화동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홀로 시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효봉하니 향천장을 받았음.
청송심씨	심인숙/김홍기	여수 충무	부부유별의 유가적 예와 시모 간병에 정성을 다해 도천장(道薦狀)을 받았음.
제주양씨	양희필/오순석	율촌 신산	시부 와병에 온갖 성의를 다하고 초상을 당하여 서도 또한 진례(盡禮)하니 향천장을 받았음.
밀양박씨	박성래/정현목	쌍봉 화산	족척간(族戚間)에 화목을 도모하고 양자를 친자처럼 양육하여 향천장을 받았음.
밀양박씨	박몽동/황하석	돌산 군내	효부로서 향천장을 여러 번 받았으며 그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비(碑)와 려(麗)를 세움.
청주한씨	한준용/오정환	여수 연동	극한영동(極寒嚴冬)일지라도 효행을 다하여 도천장을 받았음.
김해김씨	마정화의 딸	남면 두모	16세에 청상과부가 되었으나 시부모를 효몽함이 지극하여 향천장을 받았음.
밀양박씨	이함필의 처	돌산	시부모 병간호에 지극정성을 하고 나(癩)병에 걸린 시누이의 갓난아기를 젖을 먹여 기르고 그 시매부(媳妹夫) 역시 나(癩)병으로 죽자 치상하여 도천장을 받았음.
이천서씨	서용백/홍순봉	삼일 호명	시부의 지극한 병간호와 봉양으로 유림의 천거에 의해 정려(旌闕)를 세우게 됨.

■ 효녀

성명	출신	효행내용	비고
강정숙(姜貞淑)	여수 연동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아래서 어린 남매와 함께 살았다. 그러나 집안형편이 어려워 날품 팔이로 생계를 이어가며 미혼으로 노모를 모시고 남매를 교육시켰다. 이에 인근주민들의 칭송이 높았으며 표창을 받았음.	강귀봉(姜貴奉)의 딸, 본관은 진양
김봉애(金奉愛)	남면 심장	불구의 어머니를 위해 고기잡이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부모를 봉양하여 도지사의 표창을 받았음.	김증석의 딸

■ 열녀(열부)

본관	父/夫	출신	효행내용
인동장씨	장표원/김진현	여수 군자	나이 스물에 남편이 병에 걸고(割股), 단지(斷指) 상을 당하자 3년 동안 빈소를 지키고 조카로 사재(嗣子)를 삼으니 정려를 세웠음.
상주박씨	박문원/오안옥	소라 마산	남편의 운명직전에 단지주혈(斷指注血)과 열행(烈行)으로 향천장(鄉賢狀)을 받았음.
공주이씨	이서주/주종옥	삼일 화치	과수로 조카를 입새(立嗣)하여 정절을 고수하였으므로 효열각(孝烈閣)을 세웠음.
창령조씨	조애승/정시규	소라 하금	과수로 조카를 입새(立嗣)하고 종신토록 굳게 수절하니 어사의 천거장을 받았음.
곡부공씨	공형구/김계주	소라 달천	과수로 흉년에 곤궁한 사람들을 도와 덕을 베풀었으므로 향천장을 받았음.
광산김씨	김성렬/김창준	여수 남산	30에 과수가 되어 자식에게 덕의를 가르쳐 현모의 덕으로 향천장을 받았음.
성주배씨	배성택/임상대	여수 총무	유복자를 잘 길러 수절하여 부덕과 현모의 실천으로 향천장을 받았음.
김해김씨	유치홍의 처	여수 중앙	남편의 병에 할고(割股), 단지주혈(斷指注血)천장(薦狀)과 어사(御使)의 포제(褒題)가 있었음.
김령김씨	김광옥/강창언	삼일 상암	정절을 지키고 살았으므로 향천장을 받았음.
김해김씨	김국원/민영석	삼일 적량	청상으로 조카로써 후사를 삼고 종신토록 수절하니 향천장을 받았음.
광산김씨	김순평/박준민	울촌 봉전	부병(夫病)에 단지주혈(斷指注血)하고 평생을 수절하니 성균관장을 받았음.

나주임씨	임중현/도석용	화양 원포	부병(夫病) 12년에 정성을 다하고 치상하여 향천장을 받았음.
연안이씨	최용식의 처	울촌 월산	청상으로 후사가 없자 조카를 양육하여 제사를 받들어 모셨으므로 향천장을 받았음.
나주임씨	임창하/이기재	여수 만흥	남편 상을 마치고 남편을 쫓아 자결하니 예조의 포제(褒題)가 있었음
경주김씨	김순민/이선렬	삼일 호명	남편이 병에 걸려 위독하자 작지주혈(斫指注血)로 희생시켜 향천장을 받았음.
진주강씨	강덕수/임제묵	쌍봉 무선	시부모에 대한 봉양과 자녀 양육에 본보기로 향천장을 받았음.
인동장씨	장만복/최재관	화양 장수	부병(夫病)에 합고단지(割股斷指) 미망인으로 수절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 비를 세워 송덕(頌德)비를 세우고, 유림의 천장을 받았음.
전주최씨	최종진/정상기	소라 복촌	스무살에 청상이되어 상봉하육(上奉下育)에 정성을 다해 향천장을 받았음.
인동장씨	장중채/김봉우	삼일 낙포	서른 두 살에 남편과 사별하고 육아와 수절로 생애를 보내니 향천장을 받았음.
남양홍씨	홍여목/차학규	울촌 구암	부병에 열지주혈하고 남편과 사별 후 수절하고 살았음.
해주최씨	최진선/박박동	화양 이목	자녀교육에 헌신하여 향천장을 받았음.
남평윤씨	윤양집/이정우	삼일 적량	부병에 단지주혈(斷指注血) 조카로서 후사를 삼고 효열(孝烈)을 다하니 향천장을 받았음.
김해김씨	김근호/전모암	화양 이목	당년(當年) 25세에 부군(夫君)이 전몰하자 남은 어린애 하나를 데리고 정절을 지키면서 살았으므로 향천장을 받았음.
신안주씨	주종덕/차병기	울촌 학첩	부병에 정성을 다했으나 그 보람 없이 상을 당하자 슬픈 나머지 뼈만 남았으며 평생을 수절하니 향천장을 받았음.
김해김씨	김현기/오세운	울촌 신산	일찍이 남편을 여의자 유복자를 애육하여 대를 잇게 하고 집안을 보전하여 갔으므로 향천장을 받았음.
밀양손씨	손영완/윤상근	여수 총무	남편이 등창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종기를 입으로 빨아 낫게 했으나 얼마 후 병사하자 평생을 수절하니 향천장을 받았음.
남평문씨	문경선/강상문	소라 마륜	나이 스물다섯에 남편을 잃자 예제(禮制)를 갖추어 상을 치루며 육고전절(育孤全節)하니 향천장을 받았음.

상주박씨	박하규/김병수	소라 사곡	28세에 남편을 잃었으나 끝내 정조를 지켜 살아갔으므로 향천장을 받았음.
청송심씨	심한익/이규훈	삼일 적량	나이 스물여덟에 부상을 당하고 어린애와 더불어 고수정절(固守貞節)하니 향천장을 받았음.
성산배씨	배형수/곽채도	삼일 토산	스물 일곱에 남편을 잃었으나 갓난애를 생각하고 근검치산(勤儉治産)하여 향천장을 받았음.
밀양박씨	박사육/엄명신	삼일 용성	나이 겨우 20에 남편과 사별했으나 종신토록 정절을 지켜 살아갔으며 조카로 입새(立嗣)하여 향천장을 받았음.
남평문씨	문락서/김기채	삼일 화치	23세때 남편을 잃고 외아들을 잘 길러 대를 잇게 하였으므로 향천장을 받았음.
경주정씨	정해룡/이봉래	소라 복산	남편이 광증(狂症)으로 20여년을 쓸쓸하게 지냄에 엄동(嚴冬)이라 할지라도 솜옷을 입지 아니하여 향천장을 받았음.
밀양박씨	박선규/오기관	소라 마산	24세에 남편을 여의고 수절하면서 자식을 길러 내니 향천장을 받았음.
밀양박씨	박경노/곽재연	여수 광우	남편이 이상한 병에 걸려 온갖 약을 써 봤으나 효험 없이 세상을 떠나자 자식을 돌보고 수절하면서 제사를 받들어 모셨음.
창녕조씨	조인선/정상오	여수 덕충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수년 동안 일본에 머물고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시부모를 효봉(孝奉)하고 아이를 양육하여 어사의 천거를 받았음.
고령신씨	신문휴/김정두	소라 대포	나이 스물에 남편을 잃고 차마 죽지 못하여 평생을 수절하므로 도천장(道天狀)을 받았음.
남양홍씨	홍창표/정종성	쌍봉 응천	남편 병에 열지주혈(裂指注血)하고 부모 봉양과 육아에 헌신하여 향천장을 받았음.
김해김씨	김복첨/박종대	화양 이목	남편이 전염병으로 죽자 초하루와 보름에 참묘(參墓)하니 무릎을 꿇고 절한 자리에 구덩이가 패일 정도였다 하므로 향천장을 받았음.
김해김씨	김성두/심춘택	삼일 묘도	스물 다섯 살에 남편을 잃었으나 갓난아이 때문에 죽지 못하고 제사를 받들어 모셨으므로 향천장을 받았음.
김해김씨	김영준/최상규	화양 용주	남편에게 단지주혈(斷指注血)했으나 7일 만에 사망하자 그의 어머니는 개가(改嫁)토록 강권(強勸)했지만 한사코 뿌리쳐 수절하였으므로 도천장(道天狀)을 받았음.

창원정씨	정교대/이중우	삼일 적량	부병에 단지의 열행을 보였으나 그 보람 없이 3일 만에 죽자 차상하고 조카를 입사(立嗣)하여 잘 훈육시켜 향천장을 받았음.
창원정씨	정석연/이인경	울촌 취적	부병에 동, 오줌을 맞보며 악을 썼으며 상을 당하자 자신의 성명(性命)을 잃을 정도로 슬퍼하니 어사(御使)의 천거(薦擧)를 받았음.
평강채씨	채동현/양회기	울촌 행정	부병에 날마다 악 쓰는 일로 온갖 정성을 다했으며 죽음에 이르자 슬픈 나머지 넋을 잃은 사람처럼 되었고 평생을 수절하여 대성원(大聖院)(유교의 한 분파)의 천장을 받았음.
창원황씨	황규우/홍형의	삼일 호명	부병(夫病)에 단지(簾指)하고 슬픈 가운데 상례(喪禮)를 마치니 유림(儒林)의 천장(薦狀)을 받았고 정려(旌闕)를 세웠음.
경주정씨	정시좌/이두익	화양 화동	남편이 간병(痲病) 때문에 늘 깨이고 다니면서 고통을 덜게 하고 백방으로 악을 써보았으나 별로 효험을 얻지 못하여 죽게 되니 두 아이를 교육시켜 대를 잇게 하고 종신 수절하니 도천장(道薦狀)을 받았음.
김해김씨	김홍문/김기만	소라 하금	27세에 남편과 사별했으나 후사(後嗣)가 없어 따라 죽지 못하고 입사(立嗣)하여 수절했으므로 향천장을 받았음.
파주염씨	염극현/김성수	여수 고통	나이 열일곱살에 시집살이를 하는데 남편이 병이 위독(危篤)하자 직지주혈(斫指注血) 하였으며 부상을 당하자 상례(喪禮)를 잘 마치니 도천장(道薦狀)을 받았음.
경주김씨	김좌연/박중태	울촌 행정	남편 사별 후 상봉하육(上奉下育)하며 집안을 잘 보전하여 갔으므로 향천장(鄉薦狀)을 받았음.
밀양박씨	박원백/윤태홍	삼일 평어	나이 20에 부상을 당하였으나 예(禮)를 다하여 장사를 끝마치니 도천장(道薦狀)을 받았음.
창원황씨	황상윤/김중제	소라 대포	나이 23세에 남편이 임종이 가까워오자 열지주혈(裂指注血)하고 마침내 생(喪)을 당하자 상례(喪禮)를 갖추어 부도(婦道)를 다하였으므로 도천장(道薦狀)을 받았음.
하동정씨	정 작/이인유	울촌 취적	남편이 죽자 장제사(葬祭)를 잘 지켜 모시고 집안을 보전하여 갔으므로 열행비(烈行碑)가 있음.
달성서씨	서훈규/김창량	소라 대포	나이 스물셋에 남편을 잃자 상례를 마치고 두 아이를 부육(扶育)하여 유업(遺業)을 이어 받도록 하니 도천장(道薦狀)을 받았음.

밀양박씨	박봉래/김기일	소라 복촌	남편 사후 어린아이를 잘 길러 대를 잇도록 하여 향천장을 받았음.
진양하씨	하경복/김덕기	여수 만흥	나이 30에 남편을 잃었으나 집안을 잘 보전해 갔으므로 향천장을 받았음.
전주이씨	이경숙/황규재	쌍봉 내동	남편 사후 조카를 입사하고 제사를 받들어 모시며 집안을 잘 꾸려 나갔으므로 향천장을 받았음.
제주양씨	양승교/박홍준	소라 달천	남편 사후 조카로 대를 잇게 하고 수절하였으므로 향천장을 받았음.
김해김씨	김성오/이종칠	삼일 적량	시모와 두 아이를 생각하여 허영계 머리가 세도록 수절했으므로 향천장을 받았음.
김해김씨	김교민/이종원	삼일 적량	부병에 허벅지 살을 도려내고 또 시모병(媵母病)에 단지주구(斷指注口)하는 효열(孝烈)을 보였으므로 천장(薦狀)을 받았으며 비를 세움.
경주김씨	김정서/박복순	화양 이목	부병 6년 만에 간병의 보람 없이 사망하였으나 삼종지례(三從之禮)를 지키고 제사를 잘 모셨으므로 향천장을 받았음.
김해김씨	김대문/권학준	쌍봉 학옹	부병(夫病) 3년에 주야(晝夜)로 시탕(侍湯)하니 효열비를 세웠음.
경주정씨	정정국/박준근	화양 옥적	남편은 일찍이 먼 곳에 나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으나 시모(媵母)를 받들고 어린애를 기르며 정절(貞節)을 지켰으므로 향천장을 받았음.
밀양박씨	박응화/김용익	화양 옥적	부병에 지혈을 입에 쏟아 넣어 수일간 연명시켰으나 마침내 죽었으므로 슬픔을 딛고 수절로 생애를 보내니 향천장을 받았음.
제주양씨	양승모/김용현	삼일 상암	남편이 뜻밖에 재앙을 만나 죽게 되지 비통한 나머지 시당에 고별인사를 하고 목을 매어 죽으니 향천장을 받았음.
김해김씨	김원두/주학련	삼일 화치	나이 겨우 20에 남편을 잃었으나 어린애 하나를 데리고 늙어 죽도록 수절하니 향천장을 받았음.
진주강씨	강치희/박계섭	울촌 행정	1남1녀를 둔 채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를 기르면서 정절을 지켜 살았으므로 어사의 천장을 받았음.
밀양박씨	박영성/유치두	삼일 월내	남편이 죽자 자살미수에 그치고 시부모와 어린애를 돌보며 전절(全節) 보가(保家)하니 향천장을 받았음.
김해김씨	김국복/강방옥	화양 세포	한밤중에 길어 올린 깨끗한 물을 10년 동안 떠다 바치니 위독한 남편의 병이 쾌차하여 향천장을 받았음.

전주이씨	이화준/김정두	화양 원포	시아버지가 이질(痢疾)로 고생하므로 한 겨울에 구하기 힘든 개구리를 잡아 탕을 만들어 드리고 남편이 죽자 남은 애들을 돌보며 수절하였으므로 향천장을 받았음.
파평윤씨	윤경삼/주병순	울촌 신촌	부병(夫病)에 온갖 정성을 다했으나 병사하자 조카로서 대를 잇게 하고 집안을 보살피며 살아갔으므로 의열비(義烈碑)를 세웠음.
전주이씨	이중현/신두휴	쌍봉 해산	스물다섯에 남편을 잃었으므로 그를 좇아 죽으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상장진례(喪葬盡禮)하며 육고전절(育孤全節)하니 향천장을 받았음.
김해김씨	김기선/박봉래	울촌 신대	시아버지 종기를 입으로 빨아 닦게 하고 부상을 입어서는 3년간을 피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으며 평생을 소복을 입고 다녔으므로 향천장을 받았음.
전주이씨	이화실/김정준	소라 당촌	나이 스물 여덟에 부상을 당하여 염빈장제(殮殯葬祭)를 잘 지내고 근검치가(勤儉治家)하여 남편의 뒤를 이어 갔으므로 향천장을 받았음.
고령신씨	신원구/정계조	소라 봉두	28세에 남편을 여의자 너무 슬퍼 가슴을 치며 울 부짖었으며 상장례(喪葬禮)를 다하고 전절(全節), 보가(保家)하니 도천장(道憲狀)을 받았음.
장흥임씨	임정렬/이찬의	소라 복산	남편 사후 상봉하숙하고 정절을 지키고 집안을 돌봐 향천장을 받았음.
남원양씨	양선유/김정도	삼일 묘도	남편이 3년간이나 병마에 시달려 오다가 숨을 거두려 하자 코에 새 솜을 대어 호흡의 유무를 알아보고 지혈주구(指血注口)하여 쾌차케하니 향천장(鄉憲狀)을 받았음.
문화유씨	유승조/이양근	삼일 호명	우귀당년(于歸當年)에 남편이 괴질(怪疾)에 걸려 병사하였으나 다행히 유복자를 갖게 되었으므로 이를 무육(撫育)하여 남편의 뒤를 잇게 하니 향천장을 받았음.
제주양씨	양순거/김광옥	울촌 명촌	나이 겨우 20에 부상을 당하여 상제례를 잘 마치고 전절 보가하니 향천장을 받았음.
성산배씨	배재명/정만석	소라 마산	나이 27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시부모를 효봉하면서 수절하였으므로 향천장을 받았음.
밀양박씨	박치순/최운길	울촌 외진	무자변란(戊子變亂)때 남편이 실종(失蹤)했으나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았으며 그리고 백발이 되도록 수절하니 향천장을 받았음.

영광신씨	박천종의 처	돌산	20살에 시집가 3년 만에 부상을 당해 후사가 없었으나 지조를 지켜 7순의 시부에게 단지회소(斷指回魂)케 하니 정려(旌闈)를 세웠음.
경주김씨	선처흠의 처	돌산	남편의 고질병에 할고(割股), 임종시에는 병에 단지주혈(斷指注血)로 수일간을 더 연명케 하니 정려(旌闈)를 세웠음.
인동장씨	임해룡의 처	화정 제도	나이 20에 부상(夫喪)을 당하여 상장진례(喪葬禮)를 하고 조카로 하여금 입사하여 기왕에 시작한 일을 이어나가도록 하니 대성원의 표창을 받았음.
의령남씨	김대선의 처	삼산 죽촌	15세의 어린 나이에 남편과 같이 해초를 뜯으러 바다에 나갔다가 조난 당한 남편을 구하려다 그만 둘이 다 익사하였다. 이에 그 열행(烈行)을 후세의 귀감으로 삼고자 정문(旌門)을 세웠음.
연안차씨	김진구의 처	삼산 서도	연안 차씨는 혼인 3년만에 과부가 되어서도 홀시 어머니의 봉양을 다하고 이어서 연안차씨 며느리 천안 전씨도 시모와 시조모의 영향으로 효심이 지극하여 일문3열녀로 표창받았음.
제주양씨	양 환/서한규	삼일 평여	나이 37세에 남편이 난치병 부상을 당했으나 수절로 생애를 마치니 도천장(道薦狀)을 받았음.
파평윤씨	윤두호/김찬규	돌산 군내	나이 23세에 과부가 되어 선영에 봉사와 자녀 양육에 헌신하여 성균관표창을 받았음.
김령김씨	김시현/김창래	여수시	시모의 극진한 효성과 어진 어머니로써 훌륭하여 세인의 칭송에 대해 호열비를 세움.

제 3 장

근·현대 인물



제1절 항일

■ 강화선(康華善 : 1904~1979)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태어나 1907년부터 여수에서 성장하였다. 남면의 우학리교회, 제주특별자치도의 모슬포교회 등 7곳의 교회를 개척한 강병담(康秉談) 목사의 6남매 중 장녀이다. 1919년 3·1 운동 때 광주 수피아여학교 학생으로 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되었다. 출옥 후에도 여수와 광주 지역에서 국민 계몽 운동과 독립 운동을 계속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전라남도애국부인회 회장을 역임했다.

■ 광재석(郭在石 : 1913~1975)

1930년 3월 발족된 여수공립수산학교(麗水公立水産學校)의 비밀 결사 조직인 독서회 회원으로 동료 학생들과 함께 항일 의식을 고취하며 항일 투쟁

방안을 모색하였다. 1930년 9월 독서회 회원들의 활동이 일제에게 발각되면서 다른 관련자들과 같이 구속 수감되었다. 2005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 곽찬신(郭贊信 : 1913~?)

전라남도공립사범학교에 재학 중이던 1929년 6월 조길룡(曹吉龍) 등이 비밀리에 조직한 독서회에 가입해 독립 의식을 키우며 항일 운동을 펼쳤고, 11월 12일 전개된 광주학생항일운동에 참가했다. 1993년 건국포장을 받았다.

■ 김백명(金柏枏 : 1900~1990)

3·1운동 때 경성고등보통학교(京城高等普通學校) 4학년에 재학 중에 독립선언서 200매를 할당받아 비밀리에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며,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탑골 공원에서 독립선언을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서울 지역에서 만세 시위를 벌이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여수 청년회의소의 '맞춤회 사건'의 중추적 활동을 하였다. 옥고 후 독일로 가서 의학박사와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30년대 미국에서 의사로서 활동하였다.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 김순배(金順培 : 1899~1970)

여수읍교회 신도들에게 항일 의식을 고취시킨 인물이다. 1919년 3월 10일 오후 3시 전라남도 광주 부동교(不動橋) 아래 작은 장터에서 독립 선언서와 '경고아이천만동포(警告我二千萬同胞)'라고 쓴 경고문을 1,000여 명의 시위 군중들에게 배포하고, 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 군중을 주도했다. 이 사건으로 일본 경찰과 헌병에 의해 붙잡혔다. 1996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 김양호(金良浩 : 1913~1950)

여수공립수산학교에 재학 중이던 1930년 3월 하순 정보한, 윤경현, 이용기, 백인렬, 오늘보, 정재석, 정학조, 진자미 등과 함께 여수 등대산(燈臺山)에서 비밀 결사 조직인 독서회의 창립을 결의하였다. 이 독서회 활동을 통해 항일 의식을 고취하며 투쟁 방안을 모색하였다. 독서회 사건으로 관련자들과 함께 구속 수감되어 옥고를 치렀다.

■ 김용환(金龍煥 : 1907~1957)

1930년대 여수 지역에서 노동자 중심의 항일 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동년 1월 25일 항일 격문 80여 장을 작성하여 교실 및 교정 등에 살포한 후 일본 경찰에 검거되었다. 1930년 3월 1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 후 여수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노동 조건 개선 투쟁 및 여수청년전위동맹을 결성하는 등의 활동을 해오다가 1933년 7월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 김인식(金仁植 : 1911~1975)

1929년 11월 4일 광주사범학교 2학년 재학중에 광주학생독립운동사건이 터지자 사범학생들을 이끌고 반일시위를 주도하다 일경에 체포되어 갖은 고초를 겪은 뒤 퇴학처분을 당하였다. 고향 여수로 내려와 독서회 단체에 가입해 항일운동을 계속하다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200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 김철주(金鐵柱 : 1901~1962)

1919년 광주 독립 만세 운동에 숭일학교 학년별 대표 5인 중의 1인으로 참여했다. 1919년 3월 10일 만세 운동을 외치며 거리를 행진하다 일본 경찰에게 검거되어 옥고를 치렀다.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 김형석(金炯錫 : 1909~1983)

1929년 12월 서울 중동학교(中東學校) 재학 시 신용우(申用雨),姜대성(姜大成) 등과 함께 조선학생전위동맹(朝鮮學生前衛同盟)을 조직하였다. 중동학교 교실에서 “동지들이여 싸우자. 우리들을 지옥혈에 빠뜨리려는 제국주의적 교육을 배척하자.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획득하려는 것은 싸울 가치가 있는 싸움이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격문을 낭독하고 동맹 휴학과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다. 2001년에 건국포장을 받았다.

■ 노병주(盧秉柱 : 1910~1978)

1929년 11월 3일 전남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과 일본인 학교 광주중학교 학생들 간의 충돌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강

당에서 향후 행동 방침을 세우기 위해 열었던 집회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1993년에 건국포장을 받았다.

■ 문균(文均 : 1907~1985)

1930년대 여수 지역의 항일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일본 동경 소재 동양 대학 경제학부 학생이었던 1928년 7월에 구례 청년동맹 임시 동맹에서 일제의 차별 정책 철폐와 강점 배척을 강력히 주창하였으며, 1929년 8월에는 구례공립보통학교에서 개최된 동창회에서 역시 일제의 차별 정책 철폐와 강점 배척을 주창하다가 검거되었다. 그리고 해방 후 반공, 노동, 국민 계몽 운동을 통해 여수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2006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 박채영(朴采永 : 1909~1950)

1930년대 노동자·농민 중심의 항일 노동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당시의 국내의 정세를 정확히 인식하여 노동자, 농민 중심의 항일 민중 의식 고취와 조직화된 저항만이 유효한 항일 투쟁 방법임을 확신하고 항일 노동운동을 주도하였다. 2년의 옥고를 치른 후 1945년 해방될 때까지 항일투쟁에 몸을 바친 독립운동가다.

■ 배세동(裵世彤 : 1897~1942)

1919년 3월 21일 독립 선언서와 태극기를 나누어 주었고, 큰 태극기를 장대에 달아 들고 전도명(田道明)·전도근(田道根)·전부명(田富明)·이병섭(李秉燮)·김성수(金成守) 등과 원평리(院坪里) 장터에서 독립 만세를 주도하였다.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 백인렬(白仁烈 : 1913~2007)

등대산(燈臺山)에서 비밀 결사인 독서회 창립을 결의하였다. 일본인 교사가 수업 중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민족 차별적 발언과 함께 한국인 학생들을 때리는 것에 대해 독서회 회원들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동맹 휴교를 통한 항일투쟁을 주도하였다. 2005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 손양원(孫良源 : 1902~1950)

1902년 6월 3일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에서 출생하였다.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에 끝까지 맞서며 투쟁한 목사이자 항일 독립 운동가이다. 장로교 목사로서 나환자 수용소인 애양원(愛養園)에서 구호 사업과 전도 활동에 전력하였다. 여순사건 당시 공산주의자에게 두 아들이 살해되었으나 오히려 그 가해자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은 일화로도 유명하다. 그의 생애가 '사랑의 원자탄'이란 영화로 만들어져 공연되고 있다.

■ 여도현(呂道玄 : 1910~1952)

1929년 3월 23일 광주보통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졸업식장에서 일본인 교장을 응징한 사건으로 1929년 5월 30일 대구복심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 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1929년 11월 3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모체인 비밀 결사 성진회 사건의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여수수산학교 학생들의 항일운동을 지도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31년 6월 대구복심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 여운중(呂運鍾 : 1911~1957)

1930년대 민중 속에서 항일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여수보통학교에서 독립선언서 80여 매를 작성하여 교실 및 교정 등에 살포한 후 일경에 검거되었다.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치렀으며, 광복 때까지 항일 투쟁 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다.

■ 오놀보(吳耆甫 : 1911~1971)

완도 출신으로 여수공립수산학교 재학 때인 1930년 3월 항일 운동을 위한 비밀 결사 조직인 독서회 활동을 하였다. 이용기, 정학조와 함께 제1조에 편성되었다. 1931년 9월에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어 구속·수감되었다. 2000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 오우홍(吳宇鴻 : 1913~1998)

1930년대 여수 지역의 노동운동 및 청년 항일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1931년 여수공립수산학교 3학년 재학 중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영향을 받아 식민지 교육 철폐 운동, 동맹 휴학 등을 주도하다가 퇴학 처분을 당하였다. 그리고 1932년 7월에는 여수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 조건 개선과 항일투쟁 등을 전개하였다. 또 여수청년전위동맹을 결성하여 청년 항일운동을 주도하다

가 1934년 1월 일본 경찰에 검거되었다. 2006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 원정상(元正堂 : 1902~1967)

일제강점기에 노동운동가, 독립운동가, 상록수 운동가이다. 1929년 원산 총파업 때 원산노동연맹 상무집행위원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옥고를 치른 이후 고향인 거문도 덕촌리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야학을 개설하여 항일운동과 민중 계몽운동 등 상록수 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 원종상(元鍾常 : 1909~1981)

원세학의 5남 4녀 중 막내이며 원정상의 동생이다. 원정상과 함께 원산노동자 파업의 주동인물이다. 1928년 광주고등보통학교 4학년 재학 중 동맹휴학에 가담하여 퇴학을 당하였다. 이후 덕촌리 고향의 덕홍학원 교사 및 삼산면사무소 서기로 근무하면서 덕홍학원에서 청소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야학을 운영하였다. 지역청년단을 조직하는 등 민중 계몽 운동에 헌신하였다.

■ 유봉목(俞鳳穆 : 1898~1945)

여수간이수산학교 학생 이선우 등과 함께 청년회를 조직하고 1919년 12월 20일 오후 1시 여수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 만세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봉목 일행은 여수시 덕충동에 있는 김여진의 집에서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만세 시위를 준비하다가 사전에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자 군수에게 협박장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태극기 120여 장을 압수당하고 청년 회원 10명과 같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 유승운(柳承運 : 1901~1957)

경남 남해군 설천면 태생으로 3·1운동 때 시위를 주도하였다. 경찰서로 잠입하여 유치인들을 석방시켜 합세토록 했다. 3·1운동 주동자들의 검거를 피해 삼일읍 낙포에 살던 당숙 유참복 집을 찾아 은신했으나 남해에서 추적해온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3년의 징역형을 언도 받았다. 1923년 삼일읍 낙포리로 이거하여 은거생활을 하면서 사설강습소를 운영했다. 1977년 대통

령의 독립유공자 표창과 1990년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여수여천향토 지에는 본명이 유승운으로 자가 봉승이라 기록하고 있다.

■ **윤경현(尹旻鉉 : 1911~1934)**

여수공립수산학교 재학 당시 비밀 결사 조직인 독서회를 결성하였다. 1931년 9월 독서회 활동이 발각되면서 결사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구속·수감되었다. 1977년 대통령 표창에 이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 **윤자환(尹滋煥 : 1896~1949)**

1919년 3월 2일 전남 순천면 저전리에 있는 천도교 교구에서 독립 선언서 35매를 배포하고 독립 사상을 고취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해룡면 면사무소와 여수경찰서 게시판에 1장씩 붙이고, 3장은 율촌면에 사는 강석재에게 읽어볼 것을 당부하고 나누어 주었다. 2003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 **윤희숙(尹亨淑 : 1900~1950)**

순천 매산여학교를 졸업한 후 광주 수피아여학교에 재학 중 조옥희, 이봉금, 하영자 등 동료 학생 20여 명과 함께 1919년 3월 10일 독립만세 시위대 선두에 서서 태극기를 높이 들고 독립 만세를 부르며 행진하였다. 이때에 일본 헌병 1명이 선두에 있던 윤희숙의 오른팔을 군도로 내리쳤다. 팔이 잘린 윤희숙은 잠시 땅에 쓰러진 뒤 다시 일어나 왼팔로 태극기를 집어 들고 크게 독립 만세를 불렀다. 이 광경을 목격한 군중들은 비분강개하여 더욱 격렬하게 항거하였다. 2004년 건국포장을 받았다.

■ **이병현(李炳鉉 : 1880~?)**

1909년 전라남도 도서 지방을 중심으로 한 의병부대에서 활동했다. 완도군 청산도와 여서도 등에서 '완도 삼림 문제'와 '어업법' 시행 등으로 경제적 침탈이 심해지자 어민들의 생계 위협에 맞서 의병활동을 전개했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광주지방법관소 목포지부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 **이봉금(李奉錦 : 1904~1971)**

남면 우학리교회 이경집 목사의 딸이다. 1919년 광주독립만세운동 때에 광

주 수피아여학교 학생으로 시위 군중에게 태극기, 독립 선언서, 격문을 나눠 주면서 독립 만세를 불렀다. 이때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출옥 후에도 1930년대 말까지 여수와 광주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계속 하였다.

■ 이상문(李相文 : 1926~ ?)

본적은 경북 칠곡군으로 1926년생이다. 애국지사인 김경원(金京元), 김석용(金碩用), 윤정웅(尹政雄), 김미도(金未度) 등과 10여 차례 몰래 모임을 갖고 조선 민족에 대한 차별과 압박을 규탄하고 조선독립을 쟁취할 것을 결의 하였다. 1942년 8월경 조선인징병제 실시 때에 항일봉기의 기회로 활용코자 군대 내에 동지를 규합, 군기를 교란시킬 모의를 진행시키고 항일독립운동에 적극적이었다. 여수에 정착하면서 철공소 일을 해오다 교동에 전광공업사(철공소)를 운영하였다. 독립유공자로서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 이선우(李善雨 : 1899~1961)

1919년 12월 12일 여수공립수산학교 기숙사에서 유봉목의 뜻에 따라 생도 김종력 등과 함께 12월 20일 조선 독립 만세 운동을 결의하였다. 12월 19일 여수시 덕충동에 있는 생도 복습소에서 태극기를 제작하던 중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

■ 이용기(李容起 : 1908~1948)

여수공립수산학교에 재학 중이던 1930년 3월 하순 정보한, 윤경현, 백인렬, 오늘보, 정재석, 정학조, 진자미 등과 함께 여수 등대산(燈臺山)에서 비밀 결사 조직인 독서회의 창립을 결의하였다. 이 사건으로 징역 2년씩을 선고 받았다. 광복이전 경성일보와 동아일보지국장을 지내면서 지방민들로부터 신사로 존경받았다. 여순사건 때 여수 남로당위원장이었다.

■ 이형영(李亨永 : 1896~1923)

1919년 경성공업전문학교(京城工業專門學校) 부속 공업전습소 1학년 때 한위건(韓偉鍵)·김형기(金炯幾 : 경성의학전문학교)·김대우(金大羽 : 경성공업전문학교)·전성득(全性得)·윤자영(尹滋英 : 경성전수학교) 등과 함께 학생 대표로서 만세 운동을 계획·주도하였다. 그는 부속 공업전습소 학생 대표로서 3월

1일 오후 2시 탑골 공원 시위에 참여하였다. 2005년 건국포장을 수여받았다.

■ 장평완(張平完 : 1908~1981)

1930년대 여수사회과학연구회, 여수청년전위동맹, 여수적색노동조합전우조직 등을 결성하여 투쟁한 항일운동가이다. 1929년 8월에 조직된 독서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30년 여수사회과학연구회를 조직하여 회계 책임자를 맡아 활동하였다. 1931년 1월에는 여수읍 서정 자택에서 오우홍, 최준모, 강동주, 김양시, 김용운 등을 규합하여 여수청년전위동맹을 조직하여 주원석, 여운중, 김용환, 오우홍 등과 교류하며 항일 노동운동을 주도하였다. 1932년 7월에는 봉산리 의암산에서 여수적색노동조합전위조직을 결성하였다. 2007년 건국훈장인 건국포장을 받았다.

■ 정기채(鄭基采 : 1880~1909)

여수·광양 등지에서 활동한 구한말 의병이다. 1909년 3월 울촌면에서 여수재무서장 일행 5명을 습격하여, 2명을 처단하고 군자금 200원을 획득했다. 1909년 5월 순천군 산두면에서 여수군 우편취급소 우편 체송인 산진금오량(山津金五郎)을 처단하였다. 1909년 8월 29일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체포된 다음 날인 8월 30일 오후 6시 경 탈출하여 도주하던 중에 총에 맞아 순국하였다. 2003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 정두범(鄭斗凡 : 1899~1956)

1919년 3월 10일 송일학교 재학생으로 최병준 선생으로부터 미리 교부 받은 독립 선언서와 '경고아이천만동포(警告我二千萬同胞)'라는 경고문, 독립가(獨立歌) 등을 광주 시내의 시위 군중에게 배포하고 시위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19년 10월 27일 고등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5년 일본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조선일보와 시대일보 기자로 활동하였다. 2004년 애족장을 받았다.

■ 정보한(鄭輔漢 : 1913~1958)

윤경현, 이용기, 김양호, 오늘보, 정재석, 정학조, 진자미 등과 함께 여수등대산(燈臺山)에서 비밀 결사인 독서회의 창립을 결의하였다. 일본교사들의

민족차별교육에 항의하여 독서회 회원들이 동맹 휴교를 통한 항일 투쟁을 주도하였다. 2005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 정충조(鄭忠朝 : 1909~1969)

소라 현천에서 3,000석 지기 거부였던 전사(典祀) 정창현의 아들이다. 일본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1930년대 순천 및 여수에서 사회주의 항일 노동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당시의 국내외 정세를 정확히 인식하여 노동자와 농민 중심의 항일 민중 의식 고취와 조직화된 저항만이 유효한 항일투쟁 방법임을 확신하고, 민중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항일 노동운동을 주도하였다. 1934년 6월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5년간 옥고를 치른 후 해방까지 항일투쟁에 몸을 바친 독립유공자이다.

■ 정학조(鄭學朝 : 1912~1942)

정보한, 윤경현, 이용기, 김양호, 오늘보, 정재석, 진자미 등과 함께 여수 등대산(燈臺山)에서 비밀 결사인 독서회의 창립을 결의하였다. 일본의 민족차별교육에 저항하여 독서회 회원들이 동맹 휴교를 통한 항일 투쟁을 주도하였다. 2005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 조병호(趙炳浩 : 1911~1950)

정보한, 윤경현, 이용기, 김양호, 오늘보, 정재석, 정학조, 진자미 등과 함께 여수 등대산(燈臺山)에서 비밀 결사인 독서회의 창립을 결의하였다. 일본의 민족차별교육에 저항하여 독서회 회원들이 동맹 휴교를 통한 항일 투쟁을 주도하였다.

■ 주원석(朱元錫 : 1905~1956)

1930년대 당시 조선일보 기자이며 항일운동가로서 여수공립수산학교 생도들의 항일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한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에 수차례 구속되었다. 이 때 일제가 내린 25일 구류의 언도가 부당하다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등 조선총독부 재판에도 철저히 항거하였다. 1932년에는 여수적색노동조합준비회를 조직하여 정미 노동 부서를 맡아 노동 현장에 투입되었다. 노동조건 개선 및 일제 노동탄압 철폐 운동을 전개하였다.

■ 주재연(朱在年 : 1929~1944)

1943년 돌산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15세 때 조선 독립의 실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을 수시로 하고 다니면서 마을 담장 밑 큰 돌 4개에 '일본과 조선은 다른 나라(朝鮮日本別國), 일본은 패망한다(日本鹿島 敗亡), 조선만세(朝鮮萬歲), 조선의 빛(朝鮮之光)' 이라고 새겼다. 이로 인해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 받고 4개월 동안 복역하였다. 그러나 복역 도중 심한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1944년 3월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 진자미(秦者昧 : 1913~1958)

정보한, 윤경현, 이용기, 김양호, 오늘보, 정재석, 정학조 등과 함께 여수 등대산(燈臺山)에서 비밀 결사인 독서회의 창립을 결의하였다. 일본의 민족 차별교육에 항의하여 독서회 회원들이 동맹 휴교를 통한 항일투쟁을 주도하였다. 2005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 최완규(崔完奎 : 1922~1986)

1940년 6월 일본 동경 소재 목백상업학교(目白商業學校)에 재학하면서 일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잡역부로 일하고 있었다. 이 때 같이 근무하던 안명수(安明洙)로부터 영향을 받고 항일 독립운동 행동 강령을 정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1993년 건국포장을 받았다.

제2절 정계

■ 김문평(金汶枰 : 1906~1987)

여수 서정에서 출생하여 일본 와세다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했고, 해동은행, 한성은행, 동아일보 여수지국 등에서 근무했다. 1948년 대한독립촉성국민회로 제헌국회의원을 역임하였고 여수 군수를 지냈다.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의 사위이다.

■ 김상영(金尙榮 : 1914~2004)

1914년 여수에서 출생하여 여수공립보통학교 졸업, 부산제2공립상학교 졸

업 후 조선은행에 입사하여 한국은행부총재를 역임하였다. 금융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겸비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 상임부회장,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 감사를 지냈다. 1971년 제8대와 1973년 제9대 국회의원으로 여수에서 당선되었고, 사단법인 한국산업정책연구소 이사장 역임하였다. 자녀로 세칭 '로버트김 사건'의 김채곤과 민주당 김성곤의원이 있다.

■ 김우평(金佑枰 : 1898~1961)

김한승의 아들로 일본유학을 거쳐 미국 콜롬비아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한 인물로 일찍이 구미각국을 순방하여 견문을 넓힘으로써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그는 일제하에 동아일보 기자와 만주국의 재무부 참사관을 지내기도 하였다. 광복 후에는 미군정에 참여하여 외자청의 초대 구매처장을 거쳐 여천군에서 민주당으로 입후보하여 제5대 민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4·19학생의거로 자유당정권이 붕괴되고 민주당 정권이 수립되자 부흥부장관을 역임했다.

■ 박병효(朴炳洙 : 1936~1981)

광양 출신으로 여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10회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하였다. 1972년 제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초선의원이면서도 당의 정책연구실장과 원내부총무 등의 중책을 맡았다.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에 재선되었는데 1979년 10월 26일 박대통령의 서거로 국회가 해산되는 바람에 야인이 되어 사업에 몰두하다가 1981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 손창환(孫昌煥 : 1909~1966)

일본에 유학, 경흥대학교 의대를 졸업하였다. 서울 안국동에서 덕수위원을 경영하였고, 정부수립 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주치의를 거쳐 1954년 보사부장관을 지냈다. 대한적십자 총재직 시절 여수에 적십자병원을 유치하는데 큰 공헌을 했으나 현재 병원은 철수되고 없다. 여수 야구의 저변확대와 진흥을 위해 보통학교 동창생인 조종수 야구협회장에게 보사부장관기를 기증하기도 했다.

■ 이우현(李于憲 : 1902~1975)

여수보통학교와 여수간이수산학교를 졸업한 후 22세 때 자영 공성정미소를 설립했다. 광복 후에는 초대읍장을 역임했으며, 읍장 퇴임 후에는 여수국

민회장, 금련(金聯)여수회장, 2대 상공회의소 회장(1948~1951)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치면서 지방발전을 위해 많은 정열을 쏟았다. 1963년에는 정계로 진출하여 민주공화당 여수·여천지구에서 제6대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제7대에도 재선되어 국회 보사분과위원장을 역임하였다. 1975년 73세를 일기로 타계했는데 돌아가시기 6개월 전 영당부지 365평을 여수시에 희사했다.

■ 정재완(鄭在浣 : 1900~1967)

서울중앙고보 재학 시절 3·1운동 주동자로 활약하였다. 그 후 동경물리학교, 동양대학교 독일어학과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청년회관 건립에 헌신했다. 1930년에 개통된 철도시설을 위하여 철도연변(鐵道沿邊) 부지를 헐값에 강제 매입하려는 일제의 횡포와 부당성을 지적하여 정상적인 보상을 위해 농민회를 조직, 주민의 권익옹호에 앞장서기도 했다. 여수 군수와 전남도 사회교육과장을 역임해오다가 1947년 여수일보사장에 추대되었으며, 제2대 때부터 제5대까지 4선의 국회의원을 지냈다. 1970년 여수「시민의 상」을 받았다.

■ 조정환(曹正煥 : 1890~1967)

울촌면 조화리 출신으로 자유당 정권 때 외무부장관을 역임하였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는 변요한(프레스톤 : Preston 미국인 선교사)의 주선으로 1918년 미국에 유학, 베리아 대학 정치 역사과를 졸업하고 1955년에는 동 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1924년에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와 연희전문학교 강사를 하였으며, 또 별교에서 남선무역주식회사란 위장간판을 내걸고 상해임시정부와 접촉하면서 서민호 등과 암암리에 항일운동에 가담했다. 일경에 의해 친미파라는 구실로 구금되어 7년간의 옥고를 치르다가 해방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에서 풀려났다. 1949년에 외무차관에 기용되었고 1955년에는 장관에 취임하여 UN총회 한국수석대표로도 활약했다. 1970년 8월 15일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1등 수교훈장을 수여했다.

■ 황병규(黃炳珪 : 1907~1984)

여수수산학교를 졸업하고, 1948년 5월 10일 여수 을선거구에서 제헌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천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 여수어업조합장, 한국어민회초대회장을 지냈으며, 여수시장 재

임시 오동도 방파제 완공, 돌산실고 설립 등의 지역개발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2006년 제8회 여수시민의 상을 수상하였다.

제3절 관계

■ 김정식(金定植 : 1908~1965)

여수보통학교와 여수수산학교를 졸업하고 여수 군청에서 근무하다가 화양면장(1932~1935)과 여수시장을 역임하였다. 재임기간에 시내 간선도로(로터리~전화국간)를 확장 개설했다. 1949년 여수읍이 시로 승격하자 여수시장으로 1952년까지 재직했다. 1958년 민주당 공천으로 여수읍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만에 사임했고, 1960년 4·19의 거로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자 그해 5월 23일 세 번째 여수시장에 임용되었지만 1961년 5·16쿠데타로 인해 동년 6월 15일 취임 1년 1월 만에 또 다시 사퇴하였다.

■ 김준평(金準枰 : 1904~?)

1918년 교토대 법학부 졸업을 하고 1921년 고등무관사법과에 합격하여 일제강점기에 한국인 1호 판사가 되었으며, 1943년 평양복심복원장 서리로 최초의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광복과 함께 판사직 사표를 내고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다가 1950년 북한으로 납치되었다.

■ 박옥규(朴沃圭 : 1901~1971)

삼산면 거문도 덕촌리 출신으로 일본 간사이대학(關西大學) 전문부를 졸업하였으며, 1932년 갑종선장면허를 얻어 선장으로 있다가 광복되던 해 3월에는 조선선박운항통제주식회사의 선박감독관이 되었다. 1953년 6월 중장으로 제2대 해군참모총장이 되었다. 거문도 덕촌리에 해군제독 박옥규송덕비가 있다.

■ 주인철(朱仁喆 : 1924~1990)

호는 회운(晦雲). 울촌면 출신으로 8·15 해방 직후 경찰계에 투신하여 광

양, 고흥, 곡성, 완도, 광산, 광주 경찰서장을 역임한 전남 경찰의 원로였었다. 1961년 경찰계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와 여천군 토지개발조합장을 맡아 농지개발사업에 많은 공적을 남기시고 재건국민운동 여천군위원장과 여천군 번영회장을 맡아 지역개발에 앞장서 일해오다가 1972년 통일주체 국민회의 제1대 대의원과 1978년 제2대 대의원에 선출되어 군민의 지지와 신임을 한 몸에 모으고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공적을 남겼다.

■ 정경수(丁敬秀 : 1901~1953)

여수간이수산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광복 후 초대 전남어연이사장(全南漁聯理事長)으로 전남의 수산업계 조직을 정비했다. 1946년에는 제2대 여수읍장으로 지방행정을 정비하였으며, 체육회도 조직하여 초대 회장으로서는 지방 체육진흥에도 기여했다. 1953년 진남관보존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진남관의 보수문제와 국가 고적지정을 진정키 위해 노현수(盧鉉洙)와 함께 임시수도인 부산에 갔다가 선편으로 귀향 중 1953년 7월 8일 통영 근해에서 불행히도 조난당하여 사망했다.

■ 제4절 재계

■ 김영준(金英俊 : 1900~1948)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출생하여, 일제강점기에 여수에서 활동한 기업인이었다. 1926년 부산에서 천일고무공장을 세워 천일표 고무신을 생산하였고, 1931년 여수에 천일고무공장을 다시 세웠다. 광주에 호남화학공장, 구례에 천일제재소를 세웠다. 1938년에는 여수미평학교(麗水美坪學校)를 설립하였고 광복 후에는 서울로 옮겨 한국 최초로 해외 무역회사인 한국원양어업회사(韓國遠洋漁業會社)를 설립하였다. 영산포에 유리공장, 제지공장, 한국타이어공업회사, 여수에 조일직물공장(朝日織物工場)을 세웠다. 1948년 정부 수립 후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초대 부회장으로 피선되었다. 장형 김재준의 환갑을 위해 서울에서 내려와 있다가 1948년 10월 19일에 일어난 여순사건 때 사살되었다. 1969년 여수 시민의 상을 수상하였다.

제5절 절의

■ 신양우(申亮雨 : 1864~1932)

쌍봉면 화장리 출신으로 청빈 속에서도 절의를 지키면서 후진을 양성한 선비이다. 고종황제의 국상일로부터 종신토록 흰 갓(白笠)에 흰 옷(白衣)을 입고 다녔으므로 신백립(申白笠)이란 별호(別號)까지 얻었다. 1920년에는 소라면 덕양리 성재에 모현재(공자묘)를 창건하여 유학을 선양하고 각지에서 모여든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여 유림을 비롯한 여러 향인들의 추앙을 받았다.

■ 원세학(元世學 : 1885~1938)

삼산면 덕촌리에서 출생하였으며, 무과에 급제하여 제주수문장을 지냈다. 러·일전쟁이 한창일 때 일본인들이 거문도 수월산에 망루를 설치하고 등대를 세우면서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역으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자 이를 시정케 하였으며, 1916년 일본 범선이 고구마를 싣고 거문항에 입항했을 때 이를 전부 매수하여 종자로 쓰도록 집집마다 나누어 주어 그 이듬해 보리고개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한말 의병장 임병찬(林炳瓚) 의사가 1914년 거문도로 유배되었을 때, 임의사의 신원을 보증하고 거문리에서 덕촌리 자기 집으로 거처를 옮겨 아동들에게 글을 가르치도록 했다. 1919년 삼산면장으로 추대되었으며, 주민 복리증진에 힘썼으며 그가 설립한 덕촌초등학교 교정에 공덕비가 세워져 있다.

■ 정용수(丁龍洙 : 1886~1934)

1919년 고종이 승하하자 정충섭, 김병순, 정영민, 정병훈 등 지역 유림 42명(여성 6명 포함)과 함께 백기통곡단(白旗痛哭團)을 조직하여 상경하였다. 이는 민족의식을 품고 충군애국(忠君愛國)하던 여수 유림들의 꺾이지 않는 면모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한일병합 때 일제가 100원의 거액을 주고 회유하려 하였으나 이를 받지 않았고 단발령도 거부하였다. 1926년 순종의 국상 때에도 백기통곡단을 이끌고 상경하였던 지역의 대표 유림이었다.

제6절 학행

■ 김갑(金甲 : 1919~2004)

봉산동 출신으로 대구사범대학교와 일본 동경성악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여수 수산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후학을 양성하였다. 여수시교육장을 역임하였고, 강원도 장학사 시절에는 강원도 문화상을 수상하였다. 문교부 교육과정심의위원이었으며 문교부 검인정 '음악' 교과서를 저술하였으며, 대통령면려포장, 여수시민의 상을 수상하였다.

■ 김상순(金相淳 : ?~?)

삼산면 서도리 출생으로 개화기 신교육의 선각자다. 1899년 일본명치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육군교관(1903), 경무관(1905) 등의 고관직을 역임했으며, 낙도청소년을 계도하고 민족혼을 불어 넣기 위해 사재를 출연하여 1906년 11월 16일 사립낙영학교를 창설하였다. 교사(42명)와 운동장(342평)을 희사하였고, 스스로 교장 겸 교사가 되어 신교육을 실시했다. 이것이 우리 고장에서 신교육이 뿌리를 내린 시초이고 이 학교는 오늘날의 거문초등학교 서도분교장의 전신이기도 하다.

■ 김소악(金小岳 : 1897~1957)

1910년 개교한 여수서교가 1915년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나 여학생이 한명도 없어 여학생들의 신교육을 담당할 여교사의 필요를 느낀 여수 유지들이 초청한 여수 최초의 여교사이다. 부산초량보통학교와 진명여학교(3회 졸업) 및 경기여자전문학원을 수료한 후 1916년 여수서교에 부임한 이래 여수 초등학교 학생들을 30년 이상 가르쳐 지역의 동량으로 키웠다.

■ 김한승(金漢昇 : 1869~1950)

여수군 주사 재직 때 황의연, 광경환 등이 학교를 설립하자는 의견에 부속 건물 및 370두락의 노인당 재산과 여수 지역에서 1,200원을 기부 받아 군수인 김종휴(金鍾休)의 재가를 얻어 1909년에 사립 경명학교(鏡明學校)를 설립하였다. 또 1917년 여수간이수산학교 설립에도 물심양면으로 공헌하여 이 고

장 신교육에 기여한 공적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1932년에 총독부 자문기관인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었다.

■ 박규석(朴圭錫 : 1855~1923)

삼산면 동도리 유촌마을에서 출생한 학자로 어려서부터 재주가 출중하여 곁은 김류(金澗)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경사(經史)와 문학(文學)에 뛰어났던 그는 스승인 김류가 타계하자 스승의 유고를 모아 『곁은집(楸隱集)』을 펴냈으며, 낙영재(樂英齋)를 이어 받아 후학을 양성하였다. 삼산면 초대 집강(執綱 : 면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개화에도 많은 공적을 남겼다.

■ 이환희(李桓姬 : 1925~2001)

여수에서 민족 교육과 항일 운동을 전개한 이상호의 딸로 1942년 경성여자 사범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에서 15년간 교사로 봉직하였다. 청소년선도위원, 제 1대 전라남도 교육위원, 한국부인회 여수지회장, 여수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진남제전보존회 이사, 여수지역발전협의회 부회장, 제3~4대 여수 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여수의 교육과 여성운동 및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 장태지(張泰址 : 1858~1918)

화양면 옥적리에서 출생한 조선 말기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다. 1887년 충훈부도사(忠勳府都事), 1890년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과 돈녕부동지사(敦寧府同知事)를 역임하였다. 1894년 낙향하였고 동학농민운동 때 전라좌수사 김철규(金澈奎)와 함께 목방문(木榜文)을 붙여 동학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섰다. 동학농민운동이 끝나자 화양면 옥적리에서 성리학을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하였다. 한일병합이 되자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 독립운동이라 하여 후진 양성에 매진하다가 1918년 별세하였다.

■ 정명민(鄭明敏 : 1910~1985)

여수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여수읍사무소에 근무하였으며, 광복 후 여수고등학교 설립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초대교육위원, 상공회의소 의원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불우 청소년 선도기관인 재건중학교장을 역임하였다. 재건중학교가 남산동으로 교사를 이전하여 증축할 때는 사

재를 출연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여수전남병원을 건립하여 지역민들에게 의료편의를 제공하였다. 돌아가신 뒤 자녀들이 유지를 받들어 명민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여수지역 인재발굴과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 조종웅(趙鍾應 : 1891~1951)

충남 천안 출생으로 온후한 인품에 천성이 청민(淸敏)한 교육자다. 1925년에 여수수산학교, 여수여고에서 교장을 역임했다. 1946년에는 여수야간중학교(현 정보과학고)를 설립하였고, 1947년에는 여수일보 편집국장에 취임하여 향토 문화예술 향상과 대중계도에 공헌을 했다. 그가 작사 작곡한 가요「여수항경치」는 오늘날까지도 널리 애창되고 있다. 「시민의 상」제정 첫해인 1969년 수상자로 추서했다.

■ 한규홍(韓圭洪 : 1885~1968)

삼산면 동도리 출생으로 호는 굴산(橘山)이다. 한학을 닦아 일제강점기에도 평의원을 지냈고, 1925년 거문도 동도 보통학교를 설립하였다. 건국 후에는 줄곧 어협조합장, 면의회의장, 도교육위원 등 공직에서 활약하였으며, 동도 보통학교 교정에 학교 설립자를 기리는 공적비가 세워졌다.

■ 제7절 자선

■ 김정태(金鼎泰 : 1845~1901)

삼산면 서도리에서 김석옥(金錫玉)의 4남으로 태어나 과거에 급제하여 인동부사까지 지냈다. 재임 중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진압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향리 서도리에 유배되어 살았다. 흉년이 들어 굶주림에 시달리는 섬 주민의 참상을 보고 백미 600석을 풀어 섬 주민들을 구했다.

■ 유경식(兪京植 : 1911~1981)

호는 청송(靑松)으로 일본 규슈(九州)제국대학을 졸업하고 일제강점기 때 군의관 소령으로 전역하여 중앙동에 제중의원을 개원하여 시민들에게 인술

을 베풀었다. 1968년 여수로타리클럽 회장에 취임하여 3년을 봉사하였으며, 여수시체육회장(1961~1962), 제13대·14대 진남제전위원회 위원장(1979~1980), 진남제전보존회 이사장(1979~1981)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발전에 노력하였다.

■ 이홍의(李洪儀 : 1855~1911)

삼산면 손죽리 출생으로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참서(宣傳參書)와 혜민원참수(惠民院參壽) 등의 관직을 역임했다. 호방한 성격으로 문객이 많았으며 군정(郡政)에도 적극 참여해 고향발전에 공헌함이 컸다. 고향에 처음으로 고구마를 파종한 것도 그의 업적중의 하나로 전해 오고 있다. 그는 치산치수에도 힘을 쏟아 서당 솔밭을 조성하였는데 이는 오늘날까지도 마을의 방풍림 구실을 하고 있다.

■ 지정익(池植翊 : 1931~2009)

광주 출신으로 광주의대를 졸업하고 1964년 여천보건소장으로 부임하였다. 한센병 환자 진료기관인 울촌 애양원 원장인 미국인 의사 토플(한국명 도성래)의 요청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네 명의 환자에게 개안수술을 하였다. 1966년 여수 중앙동에 지정익 안과의를원을 개설하고 생활이 어려운 환자와 한센병 환자에 대한 무료 진료를 펼쳤다. 1971년 여수시립합창단을 창단했고, 1974년에는 호악회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였다. 예총회장, 호악회 회장, 여수 필하모니 단장, 시민회관 건립추진위원을 역임하였다. 2009년 2월 11일 '여수 예술인의 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 윌슨(R·M·Wilson : ?~1936)

미국인으로 1908년 2월 조선에 와서 광주에 제중병원을 경영하였다. 나병 환자 구치를 표방하여 나병환자를 수용했으며, 1927년 9월에 모든 환자를 울촌면 신흥 애양원으로 완전히 이전하여 치료에 힘쓰도록 하였다.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로로 조선총독부 시정25주년 기념표창을 받았다.

제8절 문화와 체육

■ 김기수(金基洙 : 1938~1997)

함경도 북청출신으로 1·4후퇴 때 가족과 함께 월남했다. 여수여항중학교 교장선생님의 권유로 복싱에 입문하였다. 방호남 사범의 지도하에 '여수체육관'에서 훈련을 하여 1957년 제3회 전국학생아마추어복싱선수권대회(광주)에 우승하였다. 이를 계기로 서울 성북고등학교로 진학하였고, 1958년 도쿄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경기대회 웰터급에서 금메달을 땀으며, 1960년 로마 올림픽에 복싱 국가대표선수로 출전하였다. 1966년 세계복싱협회(WBA) 주니어미들급 챔피언에 올라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챔피언이 되었다.

■ 김자환(金自煥 : 1952~2008)

순천 출신으로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여도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활동한 동화 작가다. 1984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참새와 할아버지'가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계몽아동문학상, 새벗문학상, 아동문예작가상 등을 수상하였다. 「쉬면서 노는 학교」(전3권), 「난 너하고는 달라」, 「사랑 바이러스」, 「노란 작은새」등 50여권의 동화집을 저술하였다.

■ 김홍식(金鴻植 : 1897~1966)

경성 제일고등보통학교(현 경기고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19년에 3·1운동에 적극 참여해 제적당하였다. 1922년 법학도가 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진로를 바꾸어 동경미술학교에 입학하였다. 동경미술학교 후지시마 교실에서 서구적 조형 기법을 익힌 뒤 전남 최초의 서양화가가가 되었다. 귀국 후 맞돕회 등 청년 활동과 여수농민회에 참여하여 민족개화운동에 앞장섰다. 1928년 남조선철도주식회사가 광주와 여수 간 철도 건설을 발미로 토지를 매입하여 투기를 하려는 속셈에 반발해 철도토지매입반대운동을 주도했다. 이후 만홍동 천성산 기슭에 화실을 짓고 화업에 몰두하며 여생을 보냈다. <자화상>, <나부(裸婦)>, <육장> 등 인물화와 누드 4점, 풍경화 8점, 정물 4점이 전한다.

■ 박노식(朴魯植 : 1930~1995)

여수서초등학교 32회 졸업생으로 우리나라 액션영화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배우이며, 주연과 연출을 겸한 영화감독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인간 사표를 내라>, <용팔이>, <병어리 삼룡이> 등의 대표작이 있으며, 대종상 남우조연상(1968), 청룡영화상 남우조연상(1969),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1972), 청룡영화상 인기남우상(1973)을 수상하였다.

■ 방호남(方虎男 : 1928~2001)

1953년 전주에서 개최된 '호남아마추어 복싱선수권대회'의 우승한 후 여수체육관을 건립하여 후신양성에 헌신하였다. 1966년 세계복싱협회(WBA) 주니어미들급 챔피언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챔피언이 된 김기수 선수와 1975년 WBA 주니어미들급 세계챔피언 유제두 선수를 여수체육관에서 지도하였다. 1978년 여수시민상(문화예술부문)을 수상하였다.

■ 배동신(裵東信 : 1920~2008)

1939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가와바타미술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43년 일본 자유미술창작가협회 공모전에 출품해 입상했다. 광복 후 귀국하여 1947년 제1회 개인전을 시작으로 1986년까지 제26회의 수채화 개인전을 열었다. 196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광주에서 수채화 창립전과 1970년에 황통회 창립전을 가졌다. 1972년 구상전 추대 회원, 1983~1988년까지 현대미술 초대전, 1985년 한국 수채화 협회 자문위원, 1993년 원로작가 초대전 등에 출품했다. 1989년 소재가 풍부한 여수로 내려와 살았다. 1974년 전라남도 문화상과 2000년 보관문화훈장을 받았으며, 2009년 여수 오동도미술관에서 서거 1주년 기념전이 열렸다.

■ 박보운(朴甫雲 : 1931~2009)

본명은 두정(斗鎛), 호는 풀눈이다. 1960년 『자유문학』에 '영산별 점경'으로 등단하였으며, 한국문인협회 여수지부 및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여수지부의 설립을 주도했다. 시집으로는 「어선 덕수호의 향진」(1982), 「임진강 뱃꾸기」(1983) 등이 있다.

